



11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11호

(루계 397)



◆◆◆◆◆◆◆◆◆◆ 차 례 ◆◆◆◆◆◆◆◆◆◆

땅우의 별들	4
별이여 설레이라	5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문학작품창작 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7
주체시대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문예강령	13
다툼은 말.....	19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혁명의 교과서	20
조국이여 어버이수령님의 품이여.....	24
빛나는 전망을 안고	25
강철기지의 밤에 부르는 노래.....	26
변모하는 인간상	27
잠들지 못하는 밤.....	29
노력 또 노력.....	32
전진의 대오에 힘찬 박차를	32
항구에서	33
로동의 기쁨속에	34

사랑의 궤도우에서	35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36
만풍년의 기쁨을 안고	38
생각많은 밤	40
대오여 앞으로!	50
꽃분이의 노래	51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문예사조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	52
막내딸	57
고구려사신	66
노을 피는 바다가에서	75
우리 시대 가정 룰리의 생동한 화폭	76

땅우의 별들

김상오

땅우에 별들이 있어라
시대를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진실로 빛나는 별들이 있어라
그 빛으로 시대를 뜨겁게 불붙여가는

그들은 한철 아름답게 피는
하루아침 피었다 스러지는
화려한 꽃도 아니여라

든든히 이 땅우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로운 태양을 우러러
그 빛발을 받아안고
충성의 불길로 시대를 불태워가는 사람들

오 숨은 영웅들
그들은 어느때이고
충성이란 이 신성한 말을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무게를 지닌 숭엄한것이기예

진실로 아름다운것은
그들의 심장이었나니
그 마음은 탐구의 밤을 지새우는
그들의 눈빛속에 어리고
창조의 령마루를 톱아오르는
한걸음한걸음의 발자욱에 타올랐어라

아 서리발 차거운 긴긴 가을밤
백만알의 씨앗을 헤아려 한알
수령님께 드릴 기쁨을 고르고 또 고를 때
그것은 당에 드리는
충성의 숭고한 마음 아니었던가

너무도 소박하고 너무도 겸허해

그 누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나를 바치는것이
진실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길인
아-우리 삶의 이 아름다움!

당이 이 삶을 우리에게 주었어라
인간존재의 최고의 높이예로
그 완성예로
우리를 이끌었어라

숨은 영웅들
이는 당의 빛발을 받아안고
그 품에서 빛나오른 땅우의 별들
그것은 천이 되고 만이 되어
다투어 령롱한 빛을 뿌리어라

그 빛은 건설장의 밤하늘을 밝히며
아름다운 불꽃으로 번져가고
어두운 밤하늘을 태우는
다락밭의 우등불로 타올라라

아 우리 수령님
숨은 영웅들, 이들로 하여
우리 당이 위대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용히 아뢰었노라
당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우주는 무한히 넓어라
허나 나는 태어났노라 당의 빛발아래
진실로 아름다운 인간들이 탄생하는 이 땅에
나는 걸어가노라
그 충성의 대오의 한끝에 서서

산과 들, 도시와 마을

온 강토를 별들이 덮으리라
억만의 성좌로 아름답게 피어나
우리 당이 열어놓은 인류 새 력사의
찬란한 새벽길우에
속삭이며 반짝이리라

우리 스스로가 그 무엇이라
당의 빛발로만 빛나는

우리는 땅우의 별들
충성의 불길로써만 불멸하는
당의 아들딸들

영원히 꽃피어 시들지 않을
이. 아름다운 충성의 별무리속에
나 또한 하나의 조그마한 별로 빛나리
대를 이어 길이길이 충성의 빛을 뿌리리

별이여 설레이라

오펜전

안아보면 좋으랴
쫓아보면 좋으랴
슬렁이며 설레이며
이 가슴에 실려드는
너 벼바다 강냉이바다여

해빛을 싣고
천리에 물결치고
은덕을 노래하며
하늘끝에 설레이는
너 만풍의 기쁨아

가없는 들을 보라
층층 언덕을 보라
하늘땅엔 온통
억만이삭이 설레는 소리
인민의 기쁨이 물결치는 소리

이런 좋은 날

이런 기쁨을 위해
바뀌는 계절과 함께
푸르른 봄이 있었고
이삭패는 여름은 왔던가

하늘도 땅도 못주는
이 크나큰 경사를
우리 수령님 주셨기에
온 나라가 별을 안고
기쁨에 설레이나니

이야기하자
우리 수령님
걸음 멈추시고 바라보시던
서해천리 운전별이여
너도 노래하자
수령님 이해에도 찾아주신
동해천리 함주별이여

씨뿌린 땅우엔

때아닌 눈이 내리고
 자라는 모판엔
 찬서리 내리어
 마음 놓을날 없던
 이해의 봄날이었건만
 우리 수령님
 봄날의 들길에서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손수 모이를 세여보시던
 그 사랑 그 은덕이 고마워
 함주라 백리벌은
 이리도 설레이는것인가

 우리 수령님
 모이를 세여보시던 그 마음으로
 손수 벼아지를 세여보시며
 농민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올해도 대풍이 들었다고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햇빛같이 환히 웃으실 때

 수령님 품으로
 온 나라 산과 들이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달려오며
 안겨들며
 그 은덕을 노래하나니

 아 수령님의 그 햇빛을 안고
 당의 그 령도를 따라
 온 나라가 뚝고
 온 분조가 뛰며
 억만 나락을 키워온

올해의 이 만풍
 올해의 이 기쁨

 그때문에 아 그때문에
 그 은덕에 목메이며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별을 안아보고
 이삭을 쏘아보는
 인민의 이 기쁨이여

 이삭은 알알이 영어어
 가슴엔 기쁨이 영어어
 만풍년의 자랑안고
 승리자의 당대회를 맞을
 조선의 이 영광이여

 흘러가는 세월
 변덕많은 계절을
 휘여잡으시고
 길들이시며
 위대한 수령님 이끌어주신
 이해의 이 만풍년이기에
 조선은 해마다 주체농법의 승리를
 온 세상에 노래하나니

 아 이 만풍년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안고
 영광의 노래를 안고
 벌이여 천리에 설레이라
 기쁨이여 하늘땅에 물결치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웅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한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 대회를 맞이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한없는 긍지와 신심과 희망에 넘쳐있다.

참으로 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커다란 사변이었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만천하에 시위한 승리의 대회였으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였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자랑스런 승리와 영광의 행로를 우리는 달려왔는가.

당 제5차대회로부터 6차당대회를 맞이한 오늘에 이르는 10년간,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실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스런 성과와 위훈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총결기간 우리 당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3대혁명수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자랑스레 총화하시였다.

당의 정확한 지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는 3대혁명수행의 빛나는 승리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생활할 창조어로 힘있게 고무하는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문예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어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났으며 혁명영화,

혁명가극, 혁명연극, 혁명소설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당의 지도밑에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공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여러 문학예술형태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 문예전통의 초석이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우리 문학예술이 더욱 개화발전할수 있는 휘황한 앞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한 기념비적작품들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작품들은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인민들에게 혁명투쟁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위력한 무기로 되었다.

대륙과 대양을 넘어 주체예술의 찬란한 빛발을 온 누리에 떨치며 《20세기문예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온 우리 문학예술의 그 모든 자랑스런 성과들에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잇닿아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우리 문학예술의 자랑스런 오늘과 보다 휘황한 미래를 생각할수 없다.

당은 공산주의인간학에 관한 리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창조원리와 지도원칙에 대한 전일적인 체계로서의 주체적 문예리론을 완성하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으며 그 실현으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당의 은혜로운 해빛아래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오늘 진실로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발전하였다.

참으로 지난 1970년대는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의 주체적문예로선에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대회와 높은 연단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자랑차게 총화하시고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령적보고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하여야 하며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보고서 1980년대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안고 확고한 신심과 긍지드높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곧바른 한길로 힘차게 달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새로운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개정강을 제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며 불력불가담운동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끝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그 령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보고는 조선혁명과 세

계혁명 전반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명철한 해답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력량의 장성강화와 자주, 독립,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문학예술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쳐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문학과 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이 곧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한 구성부분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철저히 로동계급의 사상과 그 리해관계를 반영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복무하는 가장 주체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새로운 문화이다.

또한 착취사회의 낡은 문화와 자본주의적반동문화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건설하는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창조적로동과 새생활창조로 힘있게 고무하는것이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우리 문학예술의 근본사명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준비시키는데 힘있게 이바지한다.

그런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개조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개조사업이다.

따라서 문학예술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그것을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으로 되게 함으로써만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전 투적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혁명적문예방침이다.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목적은 결국 우리 혁명과 건설에 문학예술이 더 잘 복무하게 하자는데 있으며 그러자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문학예술에서 주체란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감정, 우리 인민의 민족적취미와 기호에 맞는것이라고 가르치고있다.

문학예술이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아야 한다.

우리 인민의 정서와 비위에 맞는 문학예술이라야 우리 인민들에게 리해되고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그 사상정서적영향력을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 우리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문예활동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내세우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할 오늘의 혁명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가장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

하여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전투적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문학예술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그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높은 계급적자각이며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서 당성을 구현한다는것은 문학예술을 당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키며 당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로동계급성을 강화한다는것은 문학예술을 로동계급의 계급리해관계와 혁명적립장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로동계급의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내는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으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에 적극 복무하는 혁명의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서 그 최고의 표현을 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위하여 복무하는 여기에 우리 문학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특징짓는 기본핵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는 곧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이 당성, 로동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하며 그것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모든 문예활동과 창작실천을 진행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이 진실로 당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로동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의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는 근본담보가 있다.

력사적경험은 문학예술이 당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포기하고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지 않을 때에는 자본주의, 봉건주의 요소가 자라나고 나중에는 문학예술을 헤여날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굴러떨어지게 함으로써 심히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예술분야에서 자본주의, 봉

건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하여야 하며 그와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하는 사업을 다그치기 위해서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우리 작가들의 충성심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 문학예술작품창작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에서 문학예술부문앞에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더욱 힘있게 이바지할수 있는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반영한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일찌기 인류가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가장 험난하고 시련에 찬 투쟁의 력사이며 고귀한 혁명적의리와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엮어진 빛나는 력사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형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우리 혁명문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전형적성격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는것을 자기들의 모든 생활과 투쟁의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사상적지향과 기백은 항일혈전의 나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도, 해방직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영하는데서도 그리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하는데서도 일관하게 흐르는 사상정신적행이며 그들의 모든 성격적특성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신념화된 충실성의 심오한 형상화, 그것은 동시에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작품창작에서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하는데서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형상창조의 기본원칙이며 근본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응당히 우리 시대 인간들의 심장속 깊이에 간직된 이 위대한 신념과 지향과 의지를 깊이있게 형상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 내는데 탐구와 사색을 심화시켜야 할것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적성격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성격에서 중요한 사상정신적품목이다.

그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서서 혁명과업수행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 세계관을 완성해나가는 인간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없고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이 높다.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품목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할것이다.

오늘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을 형상하는데서 우리 문학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숨은 영웅들의 형상을 빛나게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이 키워낸 숨은 영웅들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전형이며 그들의 모범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숨은 영웅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이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이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숨은 영웅들은 것처럼 훌륭한 행동을 하면서도 명예와 보수를 조금도 바라지 않았으며 오직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고있다.

바로 이들이 우리 시대의 참다운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이다.

오늘 숨은 영웅들의 빛나는 모범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당의 령도의 현명성, 그 위대한 생활력을 진실하게 형상해야 한다. 여기서 당일군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당일군들은 대중속에 당정책을 해설침투하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혁명가들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참다운 총복이다.

우리 작가들이 당일군의 전형을 창조하는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를 구현한 패기있고 생기발랄한 일군으로 형상하는것이며 또한 높은 정치안목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일군으로, 고매한 인간적품모와 높은 문화성을 갖춘 일군으로 형상하는것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늘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는 당의 당일군은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아야 하며 문화적소양도 높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세도를 쓰지 않고 틀을 차리지 않으며 언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한다.

당일군은 군중을 존경하고 너그럽게 대하며 군중과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누는 군중의 친근한 동지이며 벗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일군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혁명하는 당, 투쟁하는 당의 당일군으로서의 품모를 깊이있게 형상해야 할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더욱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 로동계급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이다.

사회에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차이를 없애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과업이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역할과 혁명적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과 예술이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자면 로동계급의 전형적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혁명앞에서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해나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성, 조직성, 혁명성을 형상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당 제6차대회의 보고를 높이 받들고 혁명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창작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게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창작하는데서 지켜야 할 근본원칙이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의 조화로운 통일에 의해서만 문학작품의 진실성,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강화하고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옹게 반영할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보장하는데서 현시기 우리 문학의 중요한 과제는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오늘 우리 작가들은 문예활동과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를 가질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정치사상적풍격과 예술적가치를 규정짓는 기본징표로서 훌륭한 문학작품창작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종자와 사상, 문제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생활탐구와 세부묘사, 언어구사에 이르기까지 창작과정전반에서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한 탐구와 노력을 다함으로써 당의 독창적문예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할것이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옹게 결합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창작에서 류사성과 도식을 극복하고 독창성과 개성화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창작가들은 독창적이며 비반복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창작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생활에 대한 개성적이며 독창적인 탐구를 하여야 하며 작품창작에서 개성화와 독창성의 원칙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있다.

개성적인 비반복성은 작가의 창작적인 독창성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작가들은 응당히 남과 다른 자기의 얼굴, 자기의 독특한 목소리가 있고 자기의 고유한 숨결이 느껴지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하며 자기의 창작적개성을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들은 창작이란 언제나 새것의 탐구를 전제로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인간과 생활을 반영함에 있어서 새로운 측면, 새로운 각도, 새로운 생활감정에 비추어 탐구를 심화하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 작가들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가지고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우리 문학의 숭고한 위업에 기여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작가들은 소설문학에서 묘사수준을 높여 세부묘사를 깊이있게 분석적으로 하는 문제, 시문학에서 산문화를 극복하고 서정성을 구현하며 운율을 적극 살리는 문제, 아동문학에서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우리 시대 아동들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하는 문제, 희곡문학에서 새로운 《성황당》식 극작법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 등 시대와 우리 문학의 현실태가 제기하는 근본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당의 주체적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할것이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훌륭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그 직접적담당자인 작가자신의 준비정도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당 제6차대회의 보고를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임으로써만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으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할수 있다.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여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래야 당정책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문학작품 창작을 통하여 깊이있게 구현할수 있으며 자연주의적경향을 비롯한 온갖 부르조야반동문학의 사소한 경향도 예리하게 가려보고 그의 침습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다.

우리 작가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체득하는것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작가는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는것만큼 자연과 사회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는것은 문학작품의 사상예술성과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으로 된다.

작가들이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자질을 높이는데서 현실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들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가 될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작가들이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당 제6차대회보고정신을 높이 받들고 벅찬 로력투쟁을 벌

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실성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자기들의 작품에 진실하게 반영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뜨거운 열정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현실을 체험하여야 하며 현실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완성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세워야 한다.

작가들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려면 창작의 주인공 그들자신이 먼저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어야 하며 공산주의자로 되여야 한다.

문학작품에는 작가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다. 문학작품에는 작가의 계급적립장과 사상적지향이 반영되며 그것은 창작의 전과정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우리 문학의 당적이며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문예방침이다.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다.

문학예술창조사업에 근로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주체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의 응당한 권리이며 주체시대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자체의 요구이다.

인민들에게 리해되고 인민들에게 더 잘 복무하는 문학예술은 그들자신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될뿐 아니라 창조자로 되며 인민대중이 이 사업에 적극 동원될 때 가장 높은 수준에서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문학예술활동에서 전문일군본위로 나가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 열의와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문학예술이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소설, 시, 아동문학, 희곡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당의 독창적문예리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혁명이 요구하고 인민이 즐겨 읽을수 있는 혁명적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바로 여기에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을 맡고있는 우리 작가들의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명예가 있다.

모두다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문학 작품창작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자!

주체시대 문학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문예강령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 20 뉘에 즈음하여-

오승련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영광스러운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발표스무뉘를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우리 시대의 위대한 문예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등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시대와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문제를 비롯하여 새시대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작가, 예술인들이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갈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심오한 해답을 주심으로써 주체시대의 문학예술이 나아갈 가장 정확한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력사적인 문헌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에서 천명된 심오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독창성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주의적문학 예술이 걸어온 자랑스런 로정에 의하여 힘있게 확증되고있으며 그 위대한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로작에 담긴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기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위대한 문예강령을 따라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올것을 굳게 다짐하고있다.

× ×

문학예술은 시대와 사회생활의 반영이다.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시대와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를 옹계 해결하는것 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문학예술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창조적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1페이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문학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가장 철저하고 깊이있게 구현하는것으로 하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대중을 보다 큰 승리와 투쟁으로 부르는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된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혁명과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비상히 높아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더욱더 중요하게 나선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가 발표되던 시기 우리 인민은 남이 열걸음 걸을 때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십리를 달릴 때 백리를 달리는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이룩하고있었다.

세계를 경탄시킨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후시기에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혁에 기초하여 우리 당과 인민이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에서 쌓은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발생된 합법칙적현상이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대고조와 천리마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

계서 시종일관 견지하고계시는 혁명적근로로선의 위대한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들을 믿으시고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시며 그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추진시키나가시였으며 인민들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우러러 따르며 그이의 령도밑에서만 삶의 보람과 행복,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갔다.

이리하여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시대를 앞당겨나가는 천리마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생활의 신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시대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인민의 이 불같은 지향과 열정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으로 도도히 굽이쳐가는 우리 시대의 거센 흐름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으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는 그 모든 세기적변혁과 기적들을 낳는 힘의 원천을 정당하게 보여줄수 없다.

우리 인민의 이 지향과 열정을 그리지 않고서는 또한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문학예술로 될수 없다.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 모습을 그리는데는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가장 진실하고 심오하게 반영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시대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적립장과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 시대를 열렬히 옹호하고 긍정하며 그것을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들임으로써만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문학예술, 시대정신을 구현한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있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이 긍정과 옹호의 열정,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이 끝없는 공감과 레찬의 열정으로 하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생활공정의 문학예술로 되며 인민대중을 보다 큰 승리와 영광으로 부르는 투쟁의 기치로 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와 우리 인민의 생활을 열렬히 긍정하고 옹호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심장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관점과 립장을 가진 작가, 예술인들만이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 투쟁모습을 그릴데 대한 사상은 실로 시대에 대한 작가, 예술인들의 관점과 립장,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점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한 독창적인 사상이며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이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은 우리 당의 문예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어 오늘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는것을 일관한 문예방침으로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한다는 사상을 밝히고 문학예술작품에서 시대정신을 옹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서 생활이 제기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잡고 그것을 시대의 지향에 맞게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오늘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어나가는 새롭고 벽찬 현실과 인민대중의 지향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근로자들을 보다 큰 승리와 투쟁으로 부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 바지하는 위력한 무기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현실주체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둘릴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현대성문제를 옹바르게 해결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2~163페이지)

현대성문제를 옹게 해결하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작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현대성문제, 다시말하여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문제를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예술적으로 훌륭히 풀어냄으로써만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될수 있다.

문학예술이 현대성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을 그린 작품,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시대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큰 사상미학적영향을 준다.

현실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훌륭히 반영한 작품은 그 주제의 적극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그리고 그 형상의 친근감으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지난날을 그린 작품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물론 주제분야를 현실주제에만 국한시키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의 개척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날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련관시키며 우리 시대 인민들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해결해야 한다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문제를 인민대중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문 문학예술작품만이 사람들에게 깊은 사상미학적충동을 줄수 있으며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 할수 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의 창작은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 이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은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이 력사적위업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인민은 오늘 착취없고 압박없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나라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고 공고발전시키며 적들의 침해로부터 이 사회주의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동적으로 힘있게 노래함으로써 이

제도를 더욱 옹호하고 적극 지지하며 이 땅우에 행복한 새 생활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인민대중을 교양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현실주제작품창작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는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사회주의현실주제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흠모와 충성심을 담은 작품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떠나서 우리 인민의 지향과 열정을 이야기할수 없으며 우리 시대의 정신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서사시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여》,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바다여》를 비롯하여 가사들인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수령님 밤이 펴 깊었습니다》,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수령님의 높은 뜻 붉게 피었네》 등 수많은 작품들에는 우리 나라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우러러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 오직 어버이수령님만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감정이 숨엄한 정서속에 힘있게 흐르고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소설작품들도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비롯하여 《생명수》, 《백양나무》, 《로동가정》, 《축원》, 《령마루》, 중편소설들인 《불바람》, 《강물은 한곳으로》 등은 그 실례의 일부이다.

이 소설들에는 한결같이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열렬한 긍정과 옹호의 열정이 힘있게 흐르고있으며 우리 시대를 뜨겁게 공감하고 호흡하는 심장의 맥박이 세차게 뛰고있다.

영화예술부문에서도 《정방공》, 《독로강반에 핀 꽃》, 《꽃피는 마을》, 《압연공들》, 《산정의 수리개들》, 《이 세상 끝까지》, 《열네번째 겨울》 등이 창작되어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절박한 문제에 예술적인 대답을 주었다.

연극분야에서도 《붉은 선동원》, 《아침노을》 등과 같은 현실주제의 작품들이 창작되어 극문학의 주제를 다채롭게 하였다.

시와 가사문학에서는 서정시 《나의 조국》을 비롯하여 가사 《세상에 부럼없어라》,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등 많은 작품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행복한 사회주의 조국에 사는 인민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을

격조높이 노래하는데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교양적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뚜렷한 길을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만일 우리 작가들이 한사람의 천리마기수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잘 그려낸다면 그것은 수천수만의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좋은 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0~171 페이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인식교양적 기능은 무엇보다 그 중심에 그려지는 인간성격을 통하여 실현된다.

천리마기수들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개조하여 단결시키는 사업과 경제, 문화건설에서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천리마운동의 선구자들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간 우리 시대의 훌륭한 영웅들이며 당의 참다운 혁명전사들이다.

천리마기수들은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는 강毅한 의지와 혁명적락관주의로 하여 근로자들을 교양하는 모범으로 되었다.

천리마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특히 사람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교양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천리마현실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시대의 전형인 천리마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생활적소재를 수많이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운동을 일으키는 천리마기수들의 생동한 인간성격들이 등장하였다.

단편소설 《길동무들》의 주인공 오명숙, 《백일홍》의 주인공들인 현우혁부부 등은 천리마시대가 낳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이였다.

이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인간성격을 통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혁명임무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성격적특질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확증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철통같이 단결되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역사적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온 사회에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려는 불타는 지향이 뜨겁게 끓어치고있다.

참으로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흘러넘치는 일대 혁명적앙양기에 처하여있다.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새롭게 펼쳐지는 이 역사적인 현실과 우리 인민의 충성의 열정을 훌륭히 반영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혁명가의 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천명하였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주체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에서 가장 주도적인 특질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그 모든 사상정신적미와 그들이 발휘하는 영웅적위훈의 기초에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이 놓여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간전형들인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훌륭히 구현하고 그 전투적기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전형을 통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할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3대혁명소조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뼈와 살로 만들고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온몸에 차고 넘치는 혁명의 새세대이며 새형의 인간들이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언제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아버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는것을 생활의 확고한 철칙으로 하고있다.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확고히 지배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살며 일해나가는것이며 일편단심 아버지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실하려는 불같은 지향이며 열정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힘찬 활동을 벌리고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우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해결하여야 할 주요한 사상미학적과제로 된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혁명의 전위들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전형적인 성격을 빛나게 형상함으로써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새로운 현실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오늘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에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그 현대성을 높이는데서 숨은 영웅들의 전형적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숨은 영웅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충성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강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없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높은 주체가 철저히 선 인간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며 충성의 한길을 변심없이 걸어나가는 숨은 영웅들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과정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객관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

당은 우리 시대의 새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줌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에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새형의 인간성격이 등장하도록 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어머니와 《산정의 수리개들》의 억만대장, 그리고 장편소설 《령마루》의 기사장 현우림 등은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우리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이 창조한 긍정적모범의 전형이다.

이 새형의 인간전형들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생을 기꺼이 바쳐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들의 빛나는 모범이다.

갱마구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불치의 병도 아랑곳없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장편소설

《령마루》의 주인공 현우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화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아버지수령님의 안령을 위하여 그토록 지성을 바치는 농촌의 한 소박한 녀인인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주인공어머니의 정신세계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

이리하여 이 작품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충성성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 중요한 내용의 다른 하나는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내용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할데 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서도 중요한것은 사상적내용입니다.

노래를 위한 노래는 아무 소용도 없으며 그저 자연만 찬미하는 노래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도 물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더 값이 있는것은 사람들의 참된 생활과 위대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표현한 노래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7페이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은 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이다.

사상성을 높이는것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사상적 양식을 주며 혁명화의 무기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근본요구이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높이는것은 또한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도 관련되어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혁명적인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그들이 지닌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미학적요구로 하여 사상적내용이 심오하고 풍부한 문학예술작품을 요구한다.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는 작품보다도 사람들의 참된 생활과 위대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담은 작품들, 시대와 생활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에 심오한 예술적해명을 주는 사상적지향성이 뚜렷하고 그 내용이 심오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높이는 문제는 또한 현실생활 그자체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시대적의의와 거대한 사상적내용으로 하여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고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거대하고 심오한 사상적내용으로 충만된 시대이며 사람들에게 강한 사상미학적충격과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전환의 새시대이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처럼 정치적으로 의의있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종자를 작가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

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높이는것은 실로 우리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

로 된다.

우리 시대와 문학예술의 이러한 호상관계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밝히고 그 실현으로 작가, 예술인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친바와 같이 문학작품에서 철학적깊이란 종자의 철학적무게, 사상의 철학적심오성, 사회적문제의 예리성, 생활의 새로운 탐구,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와 언어구사를 통하여 보장되는 창작과정의 총체를 말한다.

작품의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사상성을 높이고 그 예술적감화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준 독창적인 방침으로서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인민대중은 사상성이 높고 철학적깊이가 보장된 우리 문학예술작품을 생활과 투쟁의 참다운 교과서로 삼고있으며 여기에서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끊임없이 섭취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정책으로 무장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작가, 예술인들이 시대정신을 받아들이실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9페이지)

우리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향도적력량이다.

당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적도함으로써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이해할수 없으며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없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립장과 관점,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있는 거대한 력사적사변들의 폭과 깊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니고있는 우리 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여 오늘 특별히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이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일데 대한 사상을 천명하였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주인공들인 주체형의 혁명

가들의 생활이 아무리 심오하고 의의있는 종자를 안고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일수 있는 안목과 그것을 형상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없다면 그 종자는 실재상 아무런 의미도 가질수 없다.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안목이 높고 식견이 넓은 작가, 예술인들만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져있는 현실가운데서 문제의 본질을 똑똑히 찾고 명백하게 분석할수 있으며 그것을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갈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문학창작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작가들의 사상의식이다.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의식, 다시말하여 세계관은 작품의 종자를 골라잡는데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형상으로 꽃피우는 창작의 전과정에 그대로 작용한다.

오늘 작가,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며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다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되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그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정확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시대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 할수 없다.

당이 밝힌 정치적식견을 높일데 대한 사상은 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창작가들의 사상관점에 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준 독창적인 사상이다.

이와 함께 작가, 예술인들은 높은 창작예술적기량을 소유하여야 한다.

훌륭한 창작예술적기량은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혁명적 작가, 예술인들의 자질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작가가 생활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창작적열정에 불타고있다 해도 형상능력이 없거나 모자란다면 그것을 감동적인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작가,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기량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만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현실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그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그려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또한 작가, 예술인들의 현실체험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밝히심으로써 당정책이 구현되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반영할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들은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활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70페이지)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

실에서 출발한것이며 우리 인민의 리익을 반영한 것이다.

당의 정책은 근로대중의 실천투쟁에 의하여 실생활에 구현된다.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당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은 작가들의 정치적식견을 넓히며 예술적 자질을 높이는데서 현실체험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였다.

작가들은 현실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있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성심과 그들의 념원과 지향, 불굴의 의지를 깊이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만 책상우에서는 배울수도 없고 익힐수도 없는 다방면적인 새롭고 풍부한 지식을 얻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정치적인목을 높이고 창작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간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

자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과 생활현상을 종합적으로 체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속에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야 하며 투쟁하는 로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불수 있게 되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이밖에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대중교양에 다 동원할데 대한 방침 등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심오하고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후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항구적의의를 가지는 주체적문제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독창적인 사상은 오늘 우리 당의 문예방침에 빛나게 구현되어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파시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조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본래말	다듬은 말
무미건조하다	메마르다, 무슴슴하다,	무언중	말없기
	재미없다	무용곡	춤곡
	사고없이 달리기	무용자	불일없는사람,일없는 사람
무사고주행	성없는 퍼지기	무용지물	쓸모없는물건,쓸데없는 물건
무성번식	청없는 소리	무임승차	거저타기
무성음	비김	무위도식하다	하는 일없이 지내다,
무승부	아무때나, 때없이	목과하다	놀고먹다, 공밥먹다
무시로	냄새없는~	목묵히	내버려두다, 가만두다,
무취~	표없이타기	문자	모르는체하다
무표승차	헛된~, 헛~	문진	말없이, 잠잠히
무효~	말없는 가운데, 말없이		글자
무언중에	소리없이, 아무말(도)없이		물어보기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혁명의 교과서

-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창조공연 50 뒤에 즈음하여 -

류만

우리는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역사에서 일대 사변으로 되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벅찬 환경속에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가 첫공연의 막을 올린 뜻깊은 날을 맞으며 깊은 감회와 크나큰 감격에 휩싸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 1930년 11월 7일 오가자에서는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는 역사적인 공연이 있었다.

다섯칸의 교실을 터쳐 공연장소로 꾸린 삼성학교의 소박한 무대우에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첫 공연이 시작된것이다.

력사의 그날, 오가자의 하늘땅을 진감하며 《꽃파는 처녀》의 장엄한 메아리가 울려 퍼지던 잇을 수 없는 그날로부터 어언 5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도 다섯고래의 돌기를 새긴 지난 50년간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모든것이 변하였다. 하지만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태어나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킨 《꽃파는 처녀》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의 빛발과도 같은 그 진리의 해불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밝히며 수많은 사람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 오고 오늘도 혁명으로 부르는 힘찬 진군나팔로, 불멸의 형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으며 꽃분이는 그날의 그 모습 그대로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시대의 앞장에서 억세게 걸어가고있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의연히 우리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참된 교과서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승리의 길로 고무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극치에 달한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지난 시기뿐만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도 수억만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쥐고 그들을 반제혁명투쟁으로 힘차게 불려일으키는 참된 투쟁의 무기,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고 가르치고있다.

《꽃파는 처녀》가 이처럼 영생하는 힘을 지니고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문제에 가장 완벽한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기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민족의 운명과 혁명투쟁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종자로 하여 그것을 주체철학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한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적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77~578페이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측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78페이지)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사람들의 지향이며 권리이다.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존엄을 짓밟힌 인민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사활적인 문제는 없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가 시대적배

경으로 하고있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는 일제의 류레없는 파쇼적폭압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땅우에 압제의 비운이 짙게 드리웠던 시기이다. 당시 내륙침략을 위한 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던 일제는 《후방의 안전》을 떠들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반동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자주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조성된 정치정세는 인민들에게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일제침략자들에게 혁명적폭력으로 맞서 싸울것을 요구하였다.

《꽃파는 처녀》는 당시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혁명정세와 생활현실은 가난한 고용농의 딸 꽃분이 일가의 생활과 운명을 통하여 심오하고 진실하게 일반화하면서 예측과 착취를 반대하고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 혁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정확한 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은 꽃분이 일가의 비극적인 생활과 성장과정을 통하여 나라 잃은 가난한 인민들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밝히고 있다.

주인공들은 다 착취사회에서 버림받은 최하층의 인간들이며 그들의 자식들이다. 꽃분의 아버지는 지주놈의 등쌀에 못이겨 일찌기 세상을 떠났으며 어린 동생 순희는 지주놈의 폭행에 눈이 멀었다. 그리고 오빠는 죄 아닌 《죄》로 불잡혀 감옥에 끌려갔고 어머니도 빚값에 얹매여 고역에 시달리다 약 한첩 못써보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 무시로 들이닥치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꽃분이는 지극한 효성과 성실한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때로는 갖은 멸시와 천대를 참아가며 꽃을 팔기도 하며 때로는 힘에 부치는 일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와 눈먼 동생 때문에 가슴저린 눈물도 썩어삼키며 모진 애를 다 썼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속에서도 꽃분이가 간직한 효성과 우애는 더없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숭고한것이였다.

그러나 착취사회는 그 모든것을 짓밟아버렸다. 한푼두푼 모은 돈으로 약을 사서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고 형제들이 모여 단란하게 살려던 꽃분의 소박한 꿈도 착취사회는 용납하지 않았으며 꽃분이의 가정에는 오히려 인간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불행과 고통만이 차례졌다.

작품에 그려진 꽃분이 일가의 이러한 생활처지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암흑천지에서 신음하던 당시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운명을 반영하는 하나의 축소로서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자주성을 짓밟힌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생활의 심오한 일반화로 된다.

작품은 이러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착취사회에서 나라 잃고 돈 없고 권리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땀을 흘려도 그들에게 차례지는것은 다만 더욱더 늘어나고 커가는 불행과 고통뿐이라는것을 깊이있게 보여 주었다.

작품은 또한 꽃분의 일신에 얹치고 덮치는 피

눈물나는 불행과 재난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일반화를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살아도 살곳 없고 죽어도 묻힐 땅이 없던 당시 우리 인민의 비극적운명을 반영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과 피착취대중이 생활의 막다른 경지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설움의 심각성을 예리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착취사회가 빚어내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심각성을 그 극한점에서 보여주고있는 여기에 이 명작이 제기하는 사회정치적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명작은 이와 같이 꽃분이 일가의 비극적생활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나라 없고 가난한 우리 인민에게 차례지는 설움과 고통의 심각성을 밝히면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모순된 착취사회를 없애버리고 꽃분이 일가가 가야 할 참된 길, 피착취대중이 가야 할 자유와 해방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품은 생사기로의 처지에서 우리 인민과 시대가 해결을 요구하는 이 절박한 물음에 해답을 주면서 오직 혁명만이 살길이라는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말하여 명작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강요하는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기의 자주성을 찾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하며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쳐엎어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다.

감옥에서 탈출하여 조선혁명군대원이 된 철용이의 영향하에 절기한 마을사람들의 폭동과 배지주의 청산, 오빠의 도움으로 예측과 무권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으로 된 꽃분이의 형상 등은 오직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준다. 특히 꽃분의 계급적 각성과정은 여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꽃분이는 처음에 세상물정에 어둡고 계급적으로 눈뜨지 못한 어질고 순박한 농촌처녀였다. 그는 애오라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리려는 절절한 념원과 지극한 정성을 안고 부지런히 꽃을 팔며 어머니의 병이 낫고 오빠가 돌아오게 되면 고통과 슬픔이 가시여지고 자기들도 잘살수 있게 되리라는 천진란만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걸음마다 부닥치게 되는 모진 생활고와 불행을 겪는 과정에 그는 현실과 사회에 대하여 누를길없는 통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

작품에서는 눈물과 슬픔속에 꽃분이의 가슴깊이 움트고 자라나는 통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보다 심각한 계기들을 거치는 가운데 증오와 항거의 정신을 낳고 마침내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철용이와의 상봉을 통하여 그러한 증오와 항거의 정신은 반드시 혁명적각오와 결합될 때에만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혁명투쟁을 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하였다.

꽃분이가 조선혁명군대원으로 된 오빠의 혁명

적영향하에 비로소 착취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혁명할 각오를 가지는 동시에 혁명투쟁의 원리를 인식하고 투쟁의 길에 들어서는것은 그것을 실증하여준다. 그리하여 눈물과 슬픔에 젖은 가련한 꽃송이를 파는 수난자로서가 아니라 투쟁의 열정과 긍지로 불타는 혁명의 붉은 꽃송이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안겨주는 자랑스런 혁명가로 살며 싸워나간다.

꽃본이의 이러한 성장과정은 쓰라린 생활체험을 통하여 움트고 자란 착취사회에 대한 그의 원한과 계급적원수에 대한 증오가 어떻게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아 혁명적사상의식으로 전환하며 실제적인 투쟁과정에서 심화발전되어가는가 하는 혁명적세계관형성의 합법칙적과정을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나라잃고 가난한 인민들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진정할 길은 투쟁의 길이며 착취와 억압속에 억눌리고 짓밟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옳게 자각하고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지만 하면 능히 자체의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주인공 꽃본이의 혁명적성장과정을 통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혁명의 진리,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히면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인민들에게는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는 여기에 이 명작의 철학적심오성과 높은 사상예술적경지가 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꽃파는 처녀》는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오늘날 혁명투쟁의 참된 교과서로 찬란히 빛나고있는것이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는 또한 일제침략자들과 착취계급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대한 계급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되었다는데 있다.

사람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을 똑바로 인식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끝없이 증오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주체의 혁명관을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다.

명작은 일제와 그 앞잡이놈들의 폭압과 착취가 절정에 달하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과 계급관계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고있다.

작품에서 배지주와 마름은 착취계급의 잔인성과 교활성, 탐욕성을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전형들이다. 배지주는 쫓정이가 절반이나 섞인 장리버를 《선심》이나 쓰듯이 꾸어주고는 가을에 가서 곱으로 받아내여 자기 배를 채우는 교활한

자이다.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이골이 난 이놈은 꽃본이 아버지가 진 《빛》값으로 꽃본이의 어머니를 끌어다 마소와 같이 부려먹다가 쓰러지자 이번에는 꽃본이 마저 종으로 끌어가려는 파렴치한 흉계를 꾸민다. 배지주는 또한 어린 순희에게 약탕관을 뒤집어쓰워 그가 쓰러졌을 때에도 오히려 땅바닥에 떨어진 산삼토막이 아까와 미칠듯이 몸부림치는 추악한 쓰레기이다. 오직 자기의 안락과 영달만을 생각하는 배지주놈은 지어 너편네가 앓게 되자 《살풀이》를 한다고 앞뚫보는 불쌍한 순희를 깊은 산속에 던져버리는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귀족같은 만행을 감행하는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이다.

작품은 배지주의 이러한 가증스러운 형상을 통하여 착취계급이야말로 가장 악랄한 략탈자이며 가장 추악한 야수들이라는것을 예리하게 폭로하면서 꽃본이일가에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천대받고 압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계급적원수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밝히고있다.

작품은 배지주와 그 너편네, 마름 등의 비인간적인 착취적본성과 악행을 까밝히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이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뒤받침되고있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지주계급의 정치적반동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꽃본이 일가가 당하는 고통과 재난의 근본원인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즉 작품에서는 일제놈들의 형상을 통하여 그들놈은 인민들에 대한 지주,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착취를 총칼로 뒤받침해주고있을뿐아니라 직접 식민지적강탈을 일삼으면서 우리 인민에게 죽음과 예속을 강요하는 장본인이며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수라는것을 힘있게 확인하였다.

이처럼 작품에서 일제와 배지주를 비롯한 착취계급의 형상에 대한 예리한 분석은 그대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을 폭로단죄하는 생동한 화폭으로, 준엄한 론고장으로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또한 인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형상적으로 반증하여주고있다.

일제강점하의 우리 나라의 비참한 현실과 착취계급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밝힘으로써 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취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유린하는 사회이며 몇놈 안되는 착취계급에게는 《천당》이지만 절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지옥》인 불평등한 착취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확고한 계급의식, 혁명의식을 가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명작이 가지는 또 하나의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가 있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거대한 사상예술적 성과와 의의는 다음으로 심오한 정치사상적내용을 높은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구현함으로써 사상성과 예술성의 통일을 훌륭히 실현한 데 있다.

명작은 나라 잃은 가난한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고통과 슬픔뿐이며 투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생동한 생활적화폭과 사건들을 통하여 사실주의

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있으며 인간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파고들으로써 서정심리극적인 양상을 잘 살려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계급적으로 각성한 주인공이 투쟁의 길에 나서는 마지막 대목을 제외하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얼마 안되는 빛때문에 당하는 꽃분이 일가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작이 심오한 사상과 깊은 정서로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것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나라 잃고 가난한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당대의 첨예한 사회계급모순속에서 심각하게 일반화하고있기때문이다. 꽃분이와 그 일가, 그리고 그들 주위사람들의 인정심리세계와 어질고 순박한 주인공들이 설움과 고통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눈물나는 생활에 대한 진실한 묘사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꽃분이 일가의 운명과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다양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성격의 논리, 생활의 논리에 맞게 형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인간학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하였다. 쌓일 대로 쌓인 고통과 불행속에서 놀리울대로 놀리운 울분과 반항심이 더는 참을수 없어 종당에는 터치고야마는 생활의 논리에 의하여 계급투쟁의 필연성이 밝혀지고있으며 그만큼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작품의 사상이 웅심깊게 천명되었다.

이처럼 작품에서의 예술적형상은 설움과 고통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그 사회계급적근원을 밝히는데 집중되고있으며 작품의 사상적심오성은 이러한 생활의 논리에 기초하여 스스로 흘러나오고있다. 여기에 강한 서정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작품의 사상을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생동한 형상으로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의 고유한 예술적감화력이 있다.

또한 인간의 내면세계와 생활을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 본질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작품은 강렬한 정서심리적으로서의 양상적특성을 잘 살리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예술적 존재와 가치를 더욱 뚜렷이 하고있다.

이처럼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착취사회의 반동적본질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고 계급투쟁의 필연성과 혁명투쟁의 원리를 밝히는 심오한 예술적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천만사람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가 이룩한 거대한 사상예술적성과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적문화활동의 빛나는 결실이며 그 위대한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혁명적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을 주

체 시대 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으로, 확고한 담보로 내세운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방침에 의하여 오늘 《꽃파는 처녀》는 혁명적문학예술의 고전적본보기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의 사상예술적 감화력은 날을 따라 더한층 커가고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오늘의 문학예술형태들에 옮길데 대한 혁명적문예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문예전통을 견결히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사변으로 되며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거대한 원동력으로 된다.

우리 당의 독창적문예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꽃파는 처녀》는 영화와 소설을 비롯한 여러 예술형태에 옮겨짐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들에게 사상정서적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미치게 되었다. 하기에 오늘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본 세계인민들은 한결같이 《교양적가치가 가장 큰 영화》, 《계급교양의 종합대학과도 같은 혁명적 영화》, 《사상성에서도 최고, 예술성에서도 최고, 모든것이 최고인 그야말로 최고봉의 영화》라고 솟구치는 격정과 찬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꽃분이처럼 모진 고통과 슬픔속에서 깨어나 자주성을 위한 투쟁, 혁명투쟁의 길에 용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참으로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그 심오한 정치사상성과 예술적높이로 하여 반세기전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창조된 그때로부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군길에서 역세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의 교과서로, 투쟁으로 부르는 불멸의 기치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이 명작의 거대한 생활력과 거대한 의의는 날을 따라 더욱더 커갈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혁명적문학예술의 역년 드물지 않는 초석으로, 귀중한 재부로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과 우리 작가들의 더없는 영광이며 자랑이며 행복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모범을 깊이 연구하고 따라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의 끝바른 길이 있으며 그 확고한 담보가 있다.

조국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정호수

조국이며
난생처음으로 안기는 조국이라서
저 하늘 저리도 푸르고
이 땅이 이리도 아름다운것인가

어버이수령님 펼쳐주신
사랑의 배길을 따라
처음 밟는 내 조국
청진의 맑은 하늘은
어리는 눈물속에 더 푸르고

렬차에 몸을 싣고
평양을 향하는 길
새봄이 속삭이는 무연한 벌
산을 감도는 다락밭
흥겨운 노래를 안고
저 하늘에 날으는 내 마음

낮익은 백양나무
경건히 고동치는 가슴안고
들어서는 만경대 고향집
그 어디서나 바라보는
조국의 하늘은
여기서 시작되었구나

걸음걸음 오르면
온 세상이 바라보이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서계신
위대한 수령님
가없이 무궁한 하늘
여기서 한가슴에 안는
자랑이며

이국땅의 흐린 하늘아래 태어나
재빛 하늘만을 쳐다보던 내 눈에
한점 구름도 없는
푸르게 열린 하늘

철이 들며 그리웠고
자라나는 마음에
그리도 가슴 미여지게 그리웠던
조국의 하늘
조국의 땅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없었다면
내 삶이 있었을가
저 푸른 하늘
이렇게 쳐다볼수 있었을가

우리 수령님 계시여
파도를 넘고
아득한 수평선을 넘고넘어
조국의 품에 내가 안기고있구나

아 한줌의 흙을 쥐어도
온몸에 흘러드는
푸른 하늘 보아도
목매여 부르는
어버이수령님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조국의 하늘이며
조국의 땅이며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며!

빛나는 전망을 안고

김희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는 어버이 그 사랑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더 뜨거워지는 당중앙의 빛발

견잡을수 없이
젖어오고 또 젖어오는 눈앞에
웅대한 10대전망이
빛나는 새 장을 펼친다

나는 지금 바라본다
노을비낀 건설장 아슬한 첩탑우에
없어지는 새 강철지붕아래서
태어나는 또 하나의 기계바다를

나는 또 바라본다
그 기계바다 너머
저 멀리 끝없이 설레이며 달려오는
지도에 없는 새 간석지땅을
아, 하늘이라, 땅속이라, 바위산이라
그 어디,
그 무엇을 바라보아도
이 전망속에 빛나며
헤아릴수 없는 기쁨을 퍼내주는 강산이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다함없는 수령님의 은혜에 목메이노라
행복한 나날에도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견고걸으신
그 사랑의 자욱으로 변하고 또 변해온 땅

그 걸음으로
당대회의 연단에 오르시여
또다시 웅대한 새 전망을 펼쳐주시며
우리 인민을 뜨겁게 안아주실 때

우리 가슴 얼마나 감격에 들떴었던가

아, 밝고 저무는 나날이
수령님의 사랑에 젖어 흐르고
바뀌는 해와 달이
당중앙의 생각속에 솟아오르는
조국의 나날이여

당이 밝혀준 새 전망의 빛발속에
공산주의 해돋이를 안아올릴
그 얼마나 장엄한 주체조국의 위용이
우리를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나

큰 사랑으로 안겨주시고
큰 믿음으로 불러주시는
수령님의 이 전망을
우리는 기쁨으로 새겨안고
그이의 뜻을 꽃피워가는
삶의 가장 큰 영광으로 받아안은 인민

그때문에 날마다 걷는 출근길은
따사로운 봄날처럼 마음 즐겁고
정다운 기대앞에 마주설 때마다
가슴은 한없는 긍지로 차오르는것 아니더냐
이름없는 작은 시내물이어
이름모를 외진 산봉우리들이여
새 전망의 휘황한 빛발속에
새 이름을 떨치며 변하고 또 변하자

아, 이 빛나는 전망으로
우리가 일떠세우는
무수한 첩탑과 언제와 새땅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사랑을
만대에 노래할 불멸의 기념비들이다

강철기지의 밤에 부르는 노래

오재신

동해바다가
대강철기지의 밤에
나는 이 시를 쓰노라
줄지어 쌓여진 강피더미사이를 걸으며
나는 이 밤 노래를 부르노라

잠들수 없는 밤
걱정의 밤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 구절구절이
내 심장의 피를 끓게 하여라

가슴이 버그러지게 큰 호흡으로
이 마음을 달래고싶어
이 밤만은 아, 이 밤만은
펜이 아니라
철장대를 불붙는 이 가슴에 끌어안고싶어
이 사람들속에서
감격의 한밤 지새고싶어

그 무슨 속깊은 생각에
웃음 헤프던 기증기운전공처녀의 눈빛은
저러히도 불타는것인가
오랜 나날 당을 받들어 묵묵히
젊음을 바쳐온 용해공아바이
보안경을 낀 그 눈시울 젖어오르는것인가

방금 회관의 텔레비존앞에서
헤어졌건만
전기로앞에서 다시 손을 마주잡는 미더운 사람들
열정과 환희로 들끓는 그 가슴들을
나는 끌어안노라

너무나도 평범한 나날에
내 자주 만나던 수수한 그 모습들
하건만 벌써 그 가슴들에
수령님 펼쳐주신 10대전망
휘황한 래일을 안고 불타는 심장들

불꽃을 날려가는 이 한초한초로
10년
아니 한세기를 안아세우는
그 신념 그 의지를 나는 안노라

아 세상이 아직 모르는 아득한 그 높이에

목표를 정하실 때
이들을 믿어
우리 수령님
그처럼 빛나는 글발로
하나하나의 수자도 새겨가신것 아닌가

어떤 이야기면
끓는 가슴의 이 사연 다 나눌가
자동화의 찬란한 세계일가
누리도 아직 모르는 사이에
우리앞에 다가서는 이 땅의 행복을 두고서일가

정녕 마음이 그대로 시라면
수령님 우러르는 이 가슴에
그 시의 시작은 어디에 두고
그끝은 또 어디에 맺으랴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
불러도 불러도 그 노래 다함히 없으리니

대강철기지의 저 불노을을 펼쳐들고
쏟아지는 저 쇠물꽃으로
하늘에 새기고싶노라
나의 이 노래
충성과 맹세의 결정
눈시울에 맺히는 그 더운 이슬로
나의 책장을 적시며
그 심장의 말로
나의 이 시를 짓고싶노라

밤이여
좋은 밤이여
타며 끓으며
가슴에 솟구치는 뜨거운 생각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
또다시 물결치며 안겨오는 행복의 파도...

오 머나먼 후세기가 다가와도
수령님께서 열어가시는
주체조국의 빛나는 력사
그 폐지속에
이 밤을 그대로 새겨드리고싶으랴
그것이 그대로 노래이며 시인 이 밤을
영원히 영원히
위대한 그 한품에 빚내이고싶으랴

변모하는 인간상

석윤기

력사적인 지점이란 흔히 그 앞은자리부터 범상치가 않다.

유구한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거대한 자국을 아로새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린 이 웅장화려한 대회장에서 앞을 바라다보면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던 유서깊은 룡남산마루가 맞바로 솟아있고 옆으로는 인민을 위한 아버지수령님의 심려의 력사를 담아실고 보통강운하가 굽이돌아간다.

넓고 시원하게 열린 대통령을 따라가면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요람 만경대가 지척같고 다른 한 길을 따라가면 현대건축술의 정화를 자랑하는 대 건물들의 숲을 넘어 저쪽에 만수대언덕이 높이 솟아있다.

우리 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말해주는 세계 118개 나라의 177개 대표단과 대표들이 이 대회장으로 찾아온 국제공항도 평양역도 남북으로 곧장 통해있다.

치여다보면 종합대학청사가 하늘중천에 펼쳐져 있고 내려다보면 지하평양-평양지하철도가 뻗어 간곳, 영광의 대회장이 살같이 우람차게 솟아있는 이곳도 10년전 5차당대회 당시에는 한적한 림시 주택거리였다.

해방전 그 옛날 범람하는 보통강의 감탕을 뒤집어쓰고 실그러져가던 오막살이가 널려있던 여기에 위대한 력사적사변이 기록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참으로 세상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거리, 화려한 직관물들, 눈부신 분수, 눈에 뜨이는 모든것이 변모하는 세상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심각한 변화를 가져온것은 인간이라.

가슴에 비좁도록 혼장을 단 대표들이 대회장으로 모여든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 자라난 로투사의 얼굴도 보인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시기 문맹을 퇴치했다는 녀성영웅의 얼굴도 보인다. 1211고지의 영웅들도 보인다.

저명한 박사, 교수들, 숨은 영웅들, 속도전의 선풍속에 혜성처럼 솟아난 3대혁명의 기수들, 혁신자들...

항일혁명의 나날로부터 3대혁명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이 자기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자랑스런 얼굴들이 영광의 대회장으로 모여들었다.

웅장화려한 대회장도 이 찬란한 인간형상들로 하여 압도되는듯 나의 눈은 사람들의 얼굴에만 쏠린다.

감격과 흥분은 정중한 몸가짐속에 가라앉아있고 충성의 일념은 소리없이 글썽거리는 눈물속에 배어있다.

낮익은 얼굴들이 많다. 이미 내 취재수첩과 신문발취장에 올라있는 이름들, 경력들, 사진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로정을 헤쳐온 우리 당의 믿음직한 당원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대회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결기간 우리 당은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유력한 전투대오로 자라났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멀고 험난한 길을 헤쳐온 우리 당의 승리의 로정을 개괄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백과전서로 펼쳐보이시며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인류리상사회로의 길을 힘차게 가리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뚫어넘치는 감격속에서 듣고있노라니 문득 내 눈앞에는 지구를 떠메고 력사의 폭풍속을 달려가는 거인의 형상이 떠올랐다.

힘으로 충만된 골격과 근육, 바람과 구름을 거스르며 기폭처럼 날리는 머리칼, 예지로 빛나는 이마는 높이 쳐들리고 만리창공을 바라보는 눈에는 정기가 넘친다.

이는 내 머리속에 그려지는 우리 당의 상징적 형상이다.

사람의 유기체는 무수한 세포로 이루어져있고 그것을 통일하고 지배하는것은 뇌수라고 한다.

그러니 지구를 떠메고 력사우를 달려가는 거인의 그 철근같은 팔다리, 돌같은 근육이 모두 하나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있고 그 무수한 세포가 뇌수의 유일한 지령에 의하여 지구라는 유성

의 운명을 떠메고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위대한 사명수행에 동원되어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바로 이 모든 세포들을 거대한 힘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뇌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당중앙을 우러러 모여온 대표들, 충성의 일념과 자부심에 넘친 그들의 얼굴우에 벌써 기억이 희미해진 지난날의 얼굴들이 력사의 이 시각에는 너무나 뚜렷하게 떠올라 대조를 이룬다.

그것은 구체적인 그 누구의 얼굴도 아닌 어떤 일반화된 형상이다.

그는 왜놈들의 《토지조사령》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헌병놈에게 말마디나 했다가 주리대를 틀리운 끝에 가마를 뽑아지고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령을 넘어갔다. 악을 써도, 발버둥질쳐도 먹고살길이 없어 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굶어서 퉁퉁 부은 자식들을 그러안고 향수에 젖어 목메어 불렀었다.

왜 왔던고 왜 왔던고
울고 갈 길을 왜 왔던고

밤은 길고 어두웠다. 음산한 바람은 토스레도 걸치지 못한 여윈 뼈짚을 에이였다. 이때 캄캄한 밤하늘에 비에에 젖은 선물을 압도하며 려명을 알리는 새 노래가 울려퍼졌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이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그는 후들거리는 두다리를 뻗디디고 일어났다. 찬란한 새별이 이 땅에 솟아올랐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무장을 들라!》는 호소를 가슴에 새기고 그는 소반다리를 뜯어내어 먹칠을 해가지고 골목길에 매복하였다. 왜놈경찰의 가슴에 그 소반다리를 갖다댔을 때 평생 땅을 푸지는 재간밖에 배운것이 없는 그의 가슴이 왜 떨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왜놈경찰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나가버릴 때 그는 이미 투쟁과 승리의 쾌감을 맛보았고 것처럼 무시무시해보이던 원쑤의 99식보총을 빼앗아 댔을 때 그는 자기 힘을 믿게 되었다.

그는 유격대에 입대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손수 매시어 자기 이름자를 써넣어주신 공책을 받아가지고 가가로부터 공부부를 시작했다.

오늘 그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리론실천적으로 깊이 체득한 우리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으로 자라났다.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35년, 우리 당의 초석이 내린 때로부터 50여년, 세월은 많이도 흘러 산천은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식민지동방일각에 빛

을 잃고 쓰러져가던 조선, 송충이가 뜯어먹은 황폐화된 산림과 버림받은 전야가 쓸쓸하게 누워있던 짓밟힌 이 땅에 현대적인 공업의 숲이 솟아나고 그 어떤 한랭전선의 영향에도 끄떡 않는 950만톤의 대풍을 내다보는 황금전야가 펼쳐졌다. 만국지도도 같이 누덕누덕 기운 뚝뚝을 눈물속에 바래우던 구슬픈 도래굽이에 오늘은 우리 손으로 무어낸 몇만톤급의 대양항행선과 가공모선이 바다가 비좁도록 들어찼다.

그렇다. 세상은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러나 다시금 가슴을 강하게 치는 인상은 변한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킨것이 인간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세월이 흘렀으니 나이들었다는것이 아니라 정신상의 변화, 노예의 처지로부터 만물의 주인으로 된 그러한 정신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한갓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어온 인민, 구슬픈 망향가를 부르던 어제날의 망국노, 민며느리, 깡통을 차고 류랑걸식하던 고아, 온몸을 다 팔아도 호췌살 한흙을 살길이 없어 무쇠같은 사나이주먹으로 뜨거운 눈물을 흠치던 막별이군-

사대망국의 바람사납고 온갖 부르조아반동사조가 인간을 혈뜯고있던 민족비운의 시기 주체의 해불을 높이 추켜드신 우리 수령님 눈앞에 펼쳐진 인간군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분노보다는 차라리 슬픔을 자아내는 그런 참담한 생활의 나락에 위대한 사상이 번개치고 승고한 인간애의 웨침이 메아리쳤으니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억눌리고 천대 받던 인민들을 력사의 주인으로 선포하시고 인간이야말로 위대한 존재임을 자신의 피어린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남김없이 론증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예지의 품에 안기여 어제날의 머슴군은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고 장독대에 가가거거를 써놓고 문맹을 퇴치한 어제날의 민며느리는 어엿한 농촌의 주인으로, 영웅관리 위원장으로 자랐으며 일곱살에 두 부모를 잃고 돈있는 놈들에게 얻어맞아서 귀까지 먼 불쌍한 고아가 현대과학의 비밀을 두손에 건어쥐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품에 안기여 내 또한 얼마나 몰라보게 변하였는가.

가난한 농사군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시를 써보겠다고 생각한것이 죄가 되어 부르조아의 거리에서 굶주리고 얻어맞고 짓밟히다못해 갈비대까지 부러져가지고도 종당에는 나어린 《배놈》으로 굴러 떨어져 허황한 향락의 꿈을 망망대해에 흘러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나의 쓰거운 추억-

만민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지혜를 주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계급사회가 그렇게도 구박했던 어제날의 문학소년, 나아린 《배눔》이 어엿한 당원으로 자라났으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로선과 방침을 관철해가는 자랑스러운 작가대렬에 들어서서 오늘은 영광의 대회에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대회장에 모여온 모든 대표들에게서 이러한 전변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그것은 각이한 곡절, 천태만상의 생활화폭을 펼쳐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만든 요인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대답을 들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명한 우리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이 땅의 모든 변혁에 앞서 인간을 변모시키었고 그렇게 변모된 인간,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손에 자기 운명을 튼튼히 틀어준 인간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세인을 놀래우는 이 모든 변혁을 이루어놓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다.

지구를 떠메고 력사의 창공을 달리는 거인-조선로동당의 세포들은 결코 특별한 요소들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가운데서도 가장 소박하고 평범한 인간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그 모든 세포들을 하나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감으로 묶어세운 위대한 뇌수와 뜨거운 심장이 있음으로 하여 그 모든 세포들은 영웅적인 자질을 지니게 되었으며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하기에 그 모든 세포들을 대표한 대회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뇌수이시며 심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우러러 5,000년 민족사에 그토록 갈망하던 념원을 모아, 반세기의 투쟁로정에 얹히고 뭉치고 다스려져 맑고 뜨겁고 굳게 응결된 영원불멸할 충성심을 모아 목터지게 뱉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신 대회보고를 높이 받들고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강령을 가슴에 새겼으며 10대전망목표를 비롯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실현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이 모든 투쟁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을 강화할 과업을 심장깊이 간직했던것이다.

모든 조선사람들과 우리 당의 모든 조직, 모든 세포들의 절절한 념원은 력사의 거인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다시금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고 수령님의 령도를 대를 이어 계승해갈 확고부동한 결심을 표시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을 비롯한 새로운 당중앙지도기관을 선거한 열광적인 환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위대한 뇌수와 심장이 있는 다음에야 거인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거창한 모든 전략적과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며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리상사회가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이 세상에 꽃피어날것이다.

그것은 전설적속도로 달려가는 력사의 거인 조선로동당의 바로 눈앞에 펼쳐져있는 현실이다.

이 영광의 로정과 전변의 력사를 생동하게 재현하여 후손만대에 전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며 당의 품이 있어 비로소 빛과 생명을 받아안게 된 나의 생애는 그 길위에 송두리채 바쳐질것이다. 이것은 나의 드물지 않는 신념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여-

1980년 10월

수필

잠들지 못하는 밤

김병훈

당제6차대회는 드디어 폐막하였다. 호화로운 경축야회도 막을 내렸고 군중들은 모두 헤어져갔다.

그러나 나는 광장어리를 떠나지 못하고 천천히 거닐는다.

뒤늦게 돌아가는 화려한 야회복차림의 청춘 남녀들이 이패거리 저패거리 떠들썩 웃기도 하고 목청을 합치며 노래도 부르면서 지나가군한다.

가을밤의 산산한 바람결이 단풍들기 시작한 은행나무가로수가지들 일렁일렁 가볍게 흔들려준

다.

오래지 않아 자정이 넘어 새날이 잡힐것이다.
그러나 수도의 밤거리는 잠들지 않는다.

하늘을 찌르고 솟아올라간 고층주택 정수리들
에는 각양각색의 전기장식들이 야공에 황홀경을
펼치고 흐르며 꺼지며 명멸하는데 그우로는 푸른
안개같은것이 자욱히 어리어있었다. 경축야회장
상공에 꽃보라를 뿌리던 축포의 불구름이 이제
저렇게 푸른 초연이 되어 찾아내리는 모양이다.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김일성** 광장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대동강유보도 언덕에 서있었다.

방금 저 광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당창
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근로
자들의 야회가 벌어졌던 일이, 그 행복하고 황홀
한 순간들이 어찌지 꿈같기만 하다.

주변 청사들의 높은 천추우에는 당기발, 공화
국기발, 진군나팔을 부는 항일유격대원들과 천리
마군상을 새긴 전기장식들이 아직 그대로 5색령
통한 빛을 뿌리며 흐르고있고 넓은 광장에는 무
지개를 모아놓은듯싶은 원형무대며 꽃기둥, 꽃대
문들이 그대로 널려있었다.

나의 귀에는 흥겨운 무도곡이 들려오고 드넓은
광장이 그대로 하나의 소용돌이가 되어 돌아가
던 수만명군중의 설레이는 춤물결이 눈앞에 선히
떠 올라보이였다.

취주악소리가 갑자기 고조되는것과 함께 온 광
장에서 일시에 폭풍같은 노래소리가 터져오른다.

.....

영광 영광의 노래

수령님께 삼가 드리옵니다

수만명군중은 일시에 손에 손을 마주잡아 높이
쳐들고 오색꽃수건을 흔들며 경애하는 수령님께
서 계시는 주석단을 우러러 목청껏 노래부르며
춤추며 물결처럼 출렁출렁 밀려든다.

그들속에는 백설같이 하얀 장옷을 입은 아프리
카의 손님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랍나라의 투
사들, 피부색, 머리에, 옷차림이 서로 다른 세계
만방 백십여개 나라에서 온 외국손님들도 끼였다.
온 세계가 이 광장에 모여 위대한 수령님을 우
러러 노래하며 춤을 춘다.

손들어 흔드시며 답례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갈
수록 고조되는 노래소리, 세차게 소용돌이치는
춤물결, 돌방으로 터져오르는 축포의 꽃보라, 대
동강물우에 오색등을 장식하고 흐르던 꽃배들에
서도 환호의 노래소리 터져오른다...

떠오르는 환각을 쫓아 휘청휘청 광장으로 걸어
내려가던 나는 돌출계앞에 이르러 발을 걸채일
듯 멈추어섰다. 하지만 가슴속에 밀물처럼 세차
게 밀리며 드설레이는 감격과 흥분은 건잡을수
없었다.

나는 한참 진정하고서야 되돌아올라와 강안유
보도로 넘어섰다.

어차피 나는 이 밤 잠들수 없을것이다.

하기는 이 력사의 날, 력사의 자리에서 한밤
고스란히 지새우며 발목이 시도록 거닌들 어떠하
랴. 조수에 밀려 두 기슭사이에 한가득 차올랐던
대동강물이 이제 썰물에 실려 용용히 흘러내리
고있었다.

많은것을 생각해보고싶은 밤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하여... 당대회의 나날들에 체험한 흥분과 감
격과 격동, 아마도 한생을 마치는 마지막순간까
지 지울길 없는 그 모든 벽찬 충격들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대,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이제는 그것
들을 조용히 되살려 사색하고 깊이 음미하며 날
날이 새기여 고스란히 마음속에 간직하고싶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 높은 연단에서 하시
던 말씀이 귀전에 울려온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
운 력사를 빛나게 장식한 또하나의 커다란 사변
으로 됩니다.》**

교시의 심원한 뜻을 헤아리어 내 녀의 가장 깊
은 갈피속에 영원히 간직하고싶다.

나는 실실이 늘어진 버드나무아래 돌걸상우에
걸터앉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대회를 개
막하던 그 력사의 시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폐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갈
피갈피 되새겨보며 나는 깊은 명상에도 잠겨들어
갔다.

한생을 한순간에 농축한듯싶은 격동의 순간들
이 눈앞에 차례차례 떠올라 지나간다.

대회 둘째날, 머리가 반백색은 한 로당원대표
가 연단에 올라선다. 류창하고도 격조높게 흐르
던 그의 토론이 문득 끊어졌다. 《천신만고》라는
구절의 《천신》만 외우고는 웬일인지 입을 꼭 다
물고 말을 잇지 못한다. 10초, 20초, 장내에는 무
거운 침묵이 흐른다. 웬일인가. 원고가 잘못되었
는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라도 불편해진것인가?
만장의 긴장하고 불안한 눈초리가 그에게 쏠렸건
만 그는 얼굴을 수그린채 무엇인가 오래도록 참
고 억제하는듯 싶더니 이윽해사야 고개를 쳐들었
다. 《천신》이라고 외우던 말끝을 다시 떼였으나
또다시 막혀버렸다. 순간 그의 눈굽이 번쩍 빛
났다. 불편으로 주르르 이슬이 흐른다. 그는 울고
있었던것이다.

그의 토론은 그 어떤 감격적인 일화나 눈물겨
운 미담으로 엮어진 이야기도 아니였다. 그는 주
체적 혁명위업의 승리를 총화하는 리론적인 토론
을 하고있었다.

반세기에 걸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주체사상이 우리 혁명에 뿌리내리고
생활에 구현된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자랑스런 승
리의 로정이였다는것을 정연한 체계와 드팀없는
론리로 분석하고 전개하였다. 그는 총화기간 우

리 혁명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보시고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게 됨으로써 혁명의 사활적문제인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갈 만년 드높지 않을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사실이라는것을 사리정연하게 론증하다가 그만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혀버린것이다.

눈물과 함께 마디마디 끓어지는 말을 이으며 노동당원은 계속하였다.

이제 반세기 긴긴세월 천신만고를 무릅쓰시고 인류사상 처음으로 개척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주체적혁명위업앞에는 영원히 대를 이어 승리의 붉은 지평선까지 곧바로 달려나갈 넓은 길이 열려졌다는것을 격조높이 웨치였다.

폭풍같은 박수를 보내는 만장 대표들과 방청자들의 환희와 감격, 격정에 불타는 눈동자들도 이슬이 번쩍거렸다. 어떤 대표들은 큰주먹으로 눈굽을 문지르며 박수를 쳤다.

이런 눈물은 눈시울에 닿아있는 루신만 건드리면 흘러나오는 인정세대의 혼한 눈물이 아니다. 이런 눈물은 사람의 심장과 녀의 밀창에서만 진하고 뜨겁게 배어나오는 드물고 희귀한 감격의 눈물이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피와 땀으로 적시며 쌓아올린 혁명의 공든 탑들이 혁명의 계승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탓으로 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는 일이 드물지 않은것이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뼈저리고 엄혹한 현실이며 교훈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향도성-우리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조선혁명은 이제 천만년 드높지 않을 반석같은 터전위에 깊이깊이 뿌리박고 세기의 령마루위에 높이높이 솟아올랐다. 이 령마루위에서 우리 혁명은 조국을 통일하고 자자손손 무궁번영할 미래를 한눈에 바라보게 되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조국, 나의 인민이여, 그대들은 만년 드림없을 행복의 절정위에 올라섰구나!

바로 이것이 아닐가. 20세기 80년대의 첫해에 열린 우리 당 제6차대회가 반만년을 헤아리는 민족사우에, 유구한 인류력사의 년대기우에 류달리 높고 찬란한 대기념비로 세워져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것이 아닐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명상, 끝없는 감회에 잠겨들어가던 나는 대회장에 앉았던 그 순간처럼 다시금 저려드는 눈시울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두볼을 지지는 뜨거운 눈물을 닦을 생각은 없었다. 사람의 한생 이처럼 행복한 눈물을 몇번이나 흘려볼수 있겠는가. 뜨거운 눈물속에 몸도 마음도 포근히 잠근채 누구든 마주앉아 밤이 지새도록 조용히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은 충동

을 건잡을수 없다. 사위를 둘러보았으나 인적기 없는 강반에는 출렁출렁 기슭을 치는 물소리만 은근하게 들려온다.

나의 눈앞에는 이 강기슭에서 삶을 영위하고 간 조상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돌도끼로 짐승을 사냥하고 뼈뺌시로 고기를 낚던 백만년 아득한 원시사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통치배들의 학정에다 강토를 에워싼 외적들의 침략까지 겹치여 반만년 력사의 어느 한세월 흰한 날을 보지 못한채 수많은 세상을 마치고 땅에 묻힌 수억만 조상들의 가련한 군상이 눈앞에 흘러지나간다. 다만 한순간이라도 그들을 이승에 불러내어 오늘의 이 강기슭을 보여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싶은 욕망이 가슴 그득이 차오른다.

하기는 그보다 더 간절하기는 백년, 혹은 천년, 먼 후날 이 땅에서 살게 될 후손들을 만나보고 싶다. 물론 발달된 현대문명수단들은 오늘의 이 력사를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후손들에게 전하여 줄것이다. 하지만 문명수단이 제아무리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향도를 따라 살며 투쟁하며 인류력사우에 주체적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우리의 세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체현한 의지와 결심, 궁지와 행복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줄수 있을것인가?

이를길 없는 욕망에 가슴을 들레이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였다. 이제 인적도 자동차도 끊어진 거리는 조용하였다. 강쪽을 넘어 광장으로 내려서는데 멀리 대동로쪽에서 전차의 가벼운 동음소리가 정적에 잠긴 밤공기를 조용히 흔들며 들려온다. 시간간격으로 다니는 심야의 전차가 오는 모양이다. 강안동 뒤길에서 남너청년들이 너댓명 달려나와 전차정류장쪽을 향하여 떠들썩하며 뛰어간다. 청년들을 태운 전차는 외마디 경적소리를 울리며 고요한 밤거리로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빨간 꼬리등이 아득한 거리끝으로 멀어져갔다.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조국, 조선의 운명은 오늘이라는 우리 시대의 큰 발걸음으로 더욱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받들어나가는 주체시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어깨우에는 실로 반만년민족사의 피어린 념원과 천만년 미래에 살 후손들의 운명이 고스란히 그대로 떠실려 있는것이다.

나는 온몸을 떠밀치는듯한 열정과 힘과 욕망의 강한 충격을 느꼈다.

한몸 그대로 내대어 거창한 력사의 위업을 받들어올리고싶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 받들고 영명한 당중앙향도의 빛발따라 영광의 80년대에 조선혁명을 번쩍 높이 완전승리에로 들어올리기 위하여 천백배 충성의 결심과 의지를 가다듬으며 3대혁명의

상상봉을 향하여 거인처럼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고싶다.

아마도 이것이 잠들지 못하는 이 밤 이 땅, 이 하늘아래 생을 받은 나의 동시대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아닐가...

이런 생각을 하며 큰길에 나선 나는 힘있게 걸음을 다우쳤다.

-당 제6차대회에 참가하고 나서-

1980년 10월

작가결의

노력 또 노력

최학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 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의 정신도덕적품모와 문화수준을 높이며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고무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보고를 접하고 나는 사회앞에 지닌 작가로서의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

명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된다.

심장은 뛴고 결심은 크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가, 예술인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열정을 안고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작가적기량을 더욱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위업에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내놓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전진의 대오에 힘찬 박차를

김석주

감격! 흥분! 열정!

우리 당 6차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받아안고 대축전광장을 행진해나가던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과 충천하는 기세는 일찌기 력사에 없었던 그런 장엄하고 거창한 흐름이었다.

그날 우리 인민은 그 마음을 안고 그 길로 자기 일터, 자기 초소로 달려가 첫 제품을 깎고 첫 쇠물을 뽑았으며 투쟁과 위훈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가지고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탐구하며 창작예술적기량을 높여 혁명적인 문학 예술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습니까.》

이 벽찬 시대, 이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사는 시인으로서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한대렬에 발을 맞추어 대축전광장을 지나온 나는 영원히 이 충성의 대오에 발을 맞추며 그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와 사상감정을 노래한 시들을 쓰려는 욕망으로 들끓고있다.

우리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노래한 시, 즐겨 읽고 또 읽게 될 시, 그림으로써 그들을 투쟁과 혁신으로 힘있게 고무할 서정시편들과 시초를 창작하여 당의 령도아래 개화발전하는 시문학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렵니다.

항구에서

김명식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푸른 기슭에
너는 펼쳐졌구나
오 서해의 관문
남포항 남포항

이제 떠나겠노라고
지금 들어선다고
배들은 배마다
기뻐서
목메여서
바다를 흔드는
긴긴 고동소리

이런 날 이런 때이면
선장인 내 아들이 울리는
고동소리도 가려들을수 있어
이 어머니의 가슴에도
배고동은 울리는가

남포항 남포항
우리네 너인들이
돌아오지 못한
남편들을 부르며
목놓아 울던 때는
지난날의 그 언제

내결에서
내 남편이 끌려가
내 또한 흐느껴 울던 때는
그 언제였던가

사람들을 끌어가고
재물들을 실어가고

그리고도 모자라
빛으로 훑어가고
비로 쓸어가고

그래서 텅 비였던
이 기슭
이 가슴

원한 많던 이 기슭
눈물 많던 이 가슴에
바다를 안겨주시고
내 아들을 선장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이 고마와
한생이 다 가도록
이 기슭을 떠나지 않나니

한흠의 쌀을 뜨자 해도
열번을 생각하고
다시 떠보며
떨리기만 하던 이 손으로

이 손으로
폭폭 세멘트를 떠서
희디흰 쌀을 떠서
착착 짐을 실어서
천백가지 기계를 실어서
바다 멀리
대륙 멀리로
떠나보낸다

끝이 없이
날에날마다
많기도 하여
배마다 산같이
실어보내나니

부강하여서

강대하여서
그래서 항구여
너는 언제나 풍만한
어머니조국의
젖가슴과도 같구나

언제 봐도 들끓는 이 기슭
언제 봐도 아름다운 항구거리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자욱을 노래하며
당중앙의 은덕을 이야기하며

천년을 출렁이고
만년을 흥성이리니

아 남포항 남포항
너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다를 향해
세계를 향해
활짝 열어주신
내 나라 주체조선의
넓으나넓은 대문이어라

로동의 기쁨속에

김정곤

아침은 얼마나 좋으나
기둥우에 또 기둥을 안아세운
아슬한 하늘가에서
또 하루
뜨는 해를 맞는것은

얼마나 좋으나
해를 이고
별을 이고
로동의 억센 나래를 펼치며
하늘가에 안아올린
저 푸른 지붕을 바라보는것은

우리 흘린
성실한 땀방울이
저 붉은 창가에 무지개로 아롱지고
우리 바친
로동의 하루하루가
대건설의 력사로 굽이치여라

우리의 억센 가슴들에 받들려
화려한 거리는 일떠서고
인민대학습당 지붕우에도
행복의 불빛은 비껴흐르나니

그것이어라
우리의 로동은
우리 수령님 기쁘시여
아침마다 바라보시는
저 발전소 굴뚝의 흰 연기도 솟아오르고

그것이어라
우리의 로동은

산원의 요람속에 웃는
아기들의 밝은 눈동자에
창창한 미래로 열리고

우리 수령님 기쁨속에
우리 로동이 깃들고
우리 수령님 바라시는 래일에
우리 로동은
자랑찬 위훈으로 이어지여라

당의 영광찬 년대기와 함께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주체시대의 대기념비로
우리의 로동은 이 땅우에
번쩍이며 일어서며 솟구치여라

우리는 행복도
바라는 소원도
번영할 미래도
로동에서 시작되고
로동에서 꽃피나기에

지는 해를 붙잡으며
솟는 해를 손저어 부르며
로동의 거센 숨결속에서
조국의 빛나는 나날을 맞거니

아 단 하루도
온 한생도
우리 수령님 기쁨속에 안겨지는
이 하늘밑에 우리는 서있으리라
이 보람찬 로동으로 우리는 살리라

사랑의 궤도우에서

김성환

구름도 산허리를 감도는 명문고개
흰 탑주를 안고돌아 몇십리
은빛전선을 따라 몇십리
두줄기 철길이 하늘가에 흘러들고
두줄기 철길이 하늘가에서 흘러나오는
높고 험한 기차길

산 첩첩 구름 첩첩
달리는 전기기관차의 차창에 비껴흐르는
아아한 철길에 기적소리 울려가노라면
어제런듯 눈앞에 안겨오누나
아, 굽이굽이 단풍도 붉게 타던
1949년 가을 못잊을 그날이

한굽이 돌면 마주 달려오는 굽인돌이
한굴을 지나면 련달아오는 차굴
한치한치 넘어서는 침묵에서도
고역에 멎들던 수난의 자취를 헤아려보시며
비좁은 운전실에 오르셨던
아버이수령님

숨가빠 오르는 철길의 짐이
기관사의 어깨우에 다 실린듯
땀흘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철길은
푸른 신호등 반겨웃는 저 고개마루이나
변전소의 둥근 지붕 번쩍이는 저 굽인돌이나

철의 궤도우에
더 무겁도록 실릴 인민의 재부와
더 빨리 올려세워야 할 조국의 높이를
철길 굽이굽이에서 헤아리시며
그날에 하시던 수령님 말씀
-온 나라의 철도를 전기화합시다

아, 높이신 그 뜻을 받아안고
목메게 울리던 기적소리 기적소리
이 땅의 천만굽이
천만봉우리들에
전기화의 노래되어 기쁨이 되어

울려퍼지던 그날의 기적소리

저기 다정히 흔드는 손길인양
깊은 계곡에
점점이 불붙는 단풍있도
차창에 스쳐가는 흰구름도
그날의 감격을 안았느냐

이 길을 달리노라면
안겨오는구나
천갈래 만갈래
조국땅우에 뻗어간 은빛철길들이...

먼 북방-
제철지구를 흔들며
강재를 만재하고 떠나는 열차의 기적소리도
열두삼천리의 풍년나락을 실고
백두의 아름다리통나무를 실고
동서천리 굽이도는 차바퀴소리도
정다운 노래처럼 이 가슴에 울려오는구나

아, 명문고개 명문고개
그날 그이께서 이 고개를 오르실 때
너는 현대문명에서 떨어졌던 조국이
사회주의공업강국의 큰길 열어가는
전기화의 푸른 궤도

끝고끝어도 힘겨운 짐이 없고
넘고 넘어도
높은 산 험한 령이 없는
사랑의 궤도
행복의 궤도

명문고개여, 너는
멀리 더 멀리
무수한 생활의 역들을 지나
삶의 기쁨을 싣고 달리는
내 조국의 청춘궤도를 거느리고
전기화의 첫 지점에 솟아있구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봉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의례히 벗들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우정이란 보람찬 건설의 나날속에서, 위훈으로 빛나는 투쟁속에서 맺어졌기에 더욱 그러하다.

지금 나의 책상우에는 천리 먼곳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보내온 편지가 놓여있다.

방금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어린 딸애가 뽀르르 뛰어나오더니

《아버지, 김문영이 누구냐요?》 하며 편지봉투를 내밀었다.

무작정 반가웠다. 그것은 유치원생인 딸애가 편지결봉의 이름석자를 정확히 읽었다는 기쁨에서만 아니었다.

그것은 흘러간 옛병사시절의 한분대의 전우이며 언젠가는 모처럼 만날 기회가 생겼지만 만나지 못하여 휴가때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한 친구의 소식을 이 어린것이 전달해준다는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만날번한것은 얼마전 압록강변 어느 한 방직공장에 취재차로 들렀을 때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100일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전투원들을 축하하는 악대의 힘있는 행진곡조에 발을 맞추며 웃음 많은 처녀정방공, 직포공들과 아침출근길을 걸었다.

처음 찾은 공장이라 모든것이 다 새로웠다.

푸른 하늘에 높이 드리운 구호 하나, 전투속보의 삽화 하나하나가 청춘들의 환희와 랑만이 풍기는듯 색조가 잘 어울렸다.

어느덧 나는 공장의 혁신자들을 소개한 《영예의 사진관》앞에 이르러 자신도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 누구라없이 이런 사진관앞에 서게 되면 눈길은 자연히 사진관의 좌우첫머리의 얼굴모습부터 훑어보기마련이지만 어쩐지 나의 눈길은 자석에라도 당기운듯 중심복판에 이끌렸다.

순간, 놀랐다.

(이게 누구야! 아니?! 이 친구가!)

마음속의 부르짖음이 어찌나 강했으면 옆에 함께 섰던 공장의 한 기술일군이 혹시 아는 동무가 있느냐고 물었으랴.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채 《저... 김문영동무라구...》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도 바쁘게 그 일군은 제자랑

처럼 대답했다.

《예, 김동무말입니까! 우리 공장의 이름있는 발명가지요. 이번에도 새로운 발명건을 가지고 평양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곧 친구를 만날수 있으리라고 여겼던 나의 생각은 순간에 뒤집혔다. 아쉬운 마음으로 나는 사진을 보았다. 보고 또 새겨보고싶은 옛전우의 모습이였다.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고 짙은 눈썹밑에 열정에 넘치는 눈동자만이 더 강렬하게 속삭이는듯싶었다.

(역시 소문없이... 큰것을 마련하고있었구나!)

그날밤 공장합숙에 돌아온 나는 잠들수 없었다. 려행가방속에서 보풀이 일고 빗같이 날아난 자그마한 수첩 하나를 펼쳐들었다. 병사시절을 추억할 때면 의례히 전우들의 그 이름이 그리워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한장한장 번지군하던 수첩의 갈피갈피를 넘기면서 오늘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대답도 없이 만난 그 전우를 다시금 찾고싶었다.

《경춘동무! 우리는 헤어진다.

이 리별이 상봉으로 바뀔 날은 언제일까? 우리 서로 빛나는 위훈을 안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자.

1967년 7월 31일 대덕령초소에서.

영원한 한 분대의 전우 김문영.》

영원한 한 분대의 전우-

성스런 군사복무의 기념으로 남아있는 병사수첩의 이 글발과 함께 생각도 걸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였던 대오속에는 김동무 그 한사람만이 서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시절의 송아지동무들, 보람찬 사회생활속에서 정을 맺고 사귀 그 모든 친구들과 함께 서있다고 생각하니 소리없이 추억의 문은 열리고, 회상의 화면들은 눈앞에 강물처럼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당을 받들어 걸어온 걸음걸음 어깨걸고 온 벗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마치도 아름다운 노래를 받아외우듯 온밤 하늘의 별무리 불러오던 철부지 그 시절엔 우정이란 무엇이었던지 미처 몰랐다.

아침이면 봉선화 소리없이 꽃잎 여는 유치원의 넓은 트랙을 걸으면서도, 망망한 수평선의 검푸른 파도를 맞받아 달음치던 분단야영의 그 시절

에도 벗이란 무엇이었던지 다 알지 못했다.

병사배낭을 지고 군가높이 초소로 떠나가고 어머니조국의 품에 참된 생활의 뿌리를 내린 그때부터 우리는 가슴에 혁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새겼고 부르고불러도 끝이 없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의 노래를 안았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먼 미래에 함께 피어나는 고향의 아름다운 들꽃이며 그 향기속에 흐르는 어린시절의 아름다운 꿈이며 리상일 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세월속에 단 한결음도 떠날줄 모르는 벗들의 얼굴, 부르며 더 없이 다정한 친구들의 속삭임이리라.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이 길에서만 참된 삶이 있고 이 길에서 맺어진 우정만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충실하다는것은 당을 옹호하고 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며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당과 혁명을 위한 충성의 한길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내달리는 나의 벗, 나의 혁명동지들.

그들은 그 어느 초소에 있건 가장 깨끗하고 성실한 량심으로 위훈을 향해 내닫고있으며 서로금 위훈으로 추동하는 것이다.

창밖은 대학의 교정에서 함께 미래를 속삭이던 사랑하는 학창의 동무들모두가 이 한대오에서 견고있는 것이다.

외진 개간지에서, 때로는 불밝은 공장의 합숙방에서 때로는 눈덮인 밀림의 별목장에서...

내 가끔 벗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리움을 주고받는 그 한장의 편지에서도 우리 서로 기쁨으로 안겨줄 대답이 없다면 제집 제문턱을 넘어서듯 그렇게 선뜻 우정의 문을 두드릴수 없으리라...

여기 책상우에 놓인 편지는 길지도 않다.

《...경춘동무, 나는 지금 흥분으로 잠들수 없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휘황히 밝히신 강령적과업을 받아안은 나의 심장은 그대로 감격과 환희의 불도가니가 되였

네.

이 벅찬 순간 우리는, 우리의 벗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 관철의 돌격선에서 우리는 단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네.

이 위훈의 길에서만 우리의 상봉도 기쁘게 있으리라 믿네.

우리모두 영웅으로 되고 혁신자로 되는것이 가장 기쁜 상봉으로 될 것이네...》

그렇다!

피끓는 이 가슴에 빛나는 위훈이 없다면 우리 서로 만나서도 얼싸안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진정 우리 당을 위해, 어머니조국을 위해 바치는 것 없다면 기다리던 상봉의 기쁨속에서도 우리 심장만은 맞비빌수 없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의 앞장에 서자!

이것이 친구가 보낸 심장의 호소인 것이다.

오직 이 길에 굳게 서 씩씩히 내달을 때에만 동지의 도리와 벗의 우정도 지키는 것이다.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다. 순간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세월이 소중하다. 하기에 레사로서 흘러보낸 생활을 되찾아 분발해야 할 마주오는 그 모든 앞날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것이다.

내 이 밤 먼곳의 친구에게 보내는 회답의 글줄은 끝이 난다하지만 래일의 뜨거운 상봉을 위해 충성의 한길에서 쌓아야 할 값있고 빛이 나는 디딤돌들은 다듬어 쌓고쌓아도 그 높이를 모를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어린시절 꿈속에 저 하늘의 별무리 불러오던 가슴에 오늘은 위훈의 찬란한 별무리 새겨보며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문영동무의 편지를 모든 벗들에게 알리리라 결심했다.

벗들이여,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부르는 이 밤의 노래속엔 아름다운 추억도 하나, 다지는 추억도 하나, 기다리는 대답도 우리에게 는 오직 하나인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우리는 충성의 별이 되어 위훈의 길 걷는다.

만풍년의 기쁨을 안고

장호건

위대한 농촌체제의 빗발아래 해마다 만풍년을 자랑하는 이 땅에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젖어 부르는 농장원들의 구성진 풍년가가 메아리친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 크나큰 충성의 선물로 바쳐진 올해의 만풍년!

압록강기슭의 룡천벌로부터 시작하여 운전벌, 열두삼천리벌, 재령나무리벌을 거쳐 남녘땅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연백벌과 풍덕벌, 동해의 함주벌과 안변벌에 이르기까지 벌은 벌마다 풍년자랑, 풍년기쁨으로 설레이고 신바람나게 곡식을 실어들이고 털어내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로 흥성인다.

참으로 가슴 흐뭇한 만풍년이다.

얼마전 우리가 개천군의 한 협동농장을 찾아갔을 때 그곳 녀성관리위원장이 팔뚝같은 강냉이이삭을 쳐들고 웃으며 하던 말이 생각난다.

《올해엔 강냉이이삭이 밭고랑에서 나오는지 하늘에서 쏟아지는지 거두어들일수록 뒤가 없고 끝이 없어요.》

어찌 강냉이뿐이라.

별방의 벼농사는 물론 저 멀리 량강도의 밀농사, 감자농사로부터 대관땅의 줄당콩, 개천 성천의 담배숲, 북청과 과일군의 과일농사...

농민들이 사는곳이면 그 어디에나 오탁백과가 무르익은 조선의 모습, 이것은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장식한 자랑찬 화폭이며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향하여 자신만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농업의 당당한 기상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줍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흉년이 계속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응당한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올해의 전례없는 대풍작은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진것도 아니요 땅의 혜택으로 마련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조하신 주체농법의 빛나는 결실이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뜨거운 사랑의 열매이다.

한랭전선의 광란으로 지구는 계절을 잃었어도 주체조선의 대지우에 영원한 만풍년을 불러오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에도 몸소 농업전선의 진두에 서시여 이끌어주시였기에 이처럼 크나큰 만풍의 기쁨이 이 땅우에 펼쳐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올해의 만풍년을 두고 깊어지는 생각을 더듬노라니 잊을수 없는 감격이 가슴에 솟구친다.

지난 4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님 탄생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땅 청산리를 또다시 현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봄을 맞이한 농장벌은 들끓고있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만풍년을 선물하려는 불타는 충성의 마음들이 포전마다 잘 썩은 두엄을 퍼나가고있었다.

우리와는 이미 구면인 리당위원회 지도원동무가 서글서글한 낯으로 반갑게 맞아주면서 찾아온 사연은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듯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것이였다.

《지난 4월 8일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우리 농장에 모시는 한없이 큰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쌀쌀하고 게다가 차

거운 안개비까지 내리는 곳은 날씨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친
히 모란부터 보아주셨습니다.》

감격에 떨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돌아보신 그 영광의 모
판앞에 이르렀다.

《이 모란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잘
자란 모를 뽑아드시고 이것이 바로 주체농법으로
키워낸 모라고 하시면서 만족스레 웃으실 때 우
리들의 가슴은 한없는 긍지와 행복으로 끝없이
설레이었습니다.》

지도원동무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가슴도 몽
클하였다.

주체농법으로 키워내는 벼모!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뽑아드시었던 그 한대
의 벼모에 얼마나 크나큰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
가.

그처럼 뜨거운 어버이사랑의 해빛속에 온 나라
의 벼모들이 자랐고 꽃피었으며 열매로 무르익은
것이다.

이른 봄날엔 손수 모이를 세여보시고 만풍이
설레이는 가을날엔 손수 알알이 벼이삭을 쓰다듬
어 보시는 뜨거운 사랑의 손길!

그 손길로 저택의 정원에 꾸리신 시험포전에서
몸소 여러 품종의 작물을 가꾸시며 농작물의 생
물학적속성들을 하나하나 밝히내시기도 하시고
여러 지방에 정하신 시험포전들에서 매개 작물의
특성에 맞는 주체적인 재배방법과 영농기술을
연구해 내신것이 아닌가.

머나먼 아프리카땅, 대륙의 한끝에서 사막의
모래불을 밟으시면서도 조국의 날씨를 걱정하시
여 몸소 사랑의 전화를 걸어주시고 해마다 새해
의 첫 솟는길을 헤치시며 농장벌들을 찾으시여
친히 포기농사법까지 땅우에 금을 그으시며 가르
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찬서리 내리는 백두대지에 오르시여서는 날씨
가 덥지 않아 건강에 좋다고 하시고 찌는듯 무더
운 서해기슭 다락밭에 오르시여서는 오히려 가슴
이 시원해지신다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수령님을
우리러 산천도 사람들도 목메여 흐느끼던 날은
그 언제였던가.

웃자락이 젖으시고 신발이 젖으시여도 이 땅의
대풍을 마련하시려 그렇게 찾으신 논머리는 얼
마이고 그렇게 걸으신 발이랑은 또 얼마인가.

그래서 흐르는 한줄기 내물에도, 이름없는 산

언덕 다락밭의 작은 두렁길에도 이 땅우에 대를
두고 전하여도 다 전하지 못할 위대한 사랑의 전
설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아직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인민의 행복을 념원하시는 그 높
고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열매로 무르익은 만풍
년이거니 올해의 자랑찬 수확고를 어찌 무게로만
계산할수 있으랴.

원래 인류의 과학발전에서 생물학과 농업기술
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침체한 하나
의 공백지대로 되어있었다.

더더구나 최근년간 대륙들을 휩쓸고있는 이상
기후현상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열파와
한파로 농업을 말그대로 망쳐놓고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나라의 반동적인 학자들은
이 지구덩어리가 더는 세계인구를 먹여살릴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질병과 전쟁과 같은 방법
으로 《파잉인구》를 없애야 한다는 범죄적인 주
장까지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농업에서 해마다 이룩하는
만풍년과 올해의 대풍작은 농들의 께변을 여지없
이 짓부신 위대한 승리의 포성으로써 《농업위기》,
《식량위기》로 허덕이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
체농법의 위대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농법을 창시하심으로써
농업발전의 새시기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그 어
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언제나 높고 안전
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
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올해의 대풍작은 1980년대 첫해를 빛나게 장식
하는 주체조선의 기적들중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대외에 과시한 또하나의 자랑찬 승리인것이다.

올해에 이룩한 만풍년의 자랑높이 위대한 수령
님을 우리러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농업의 미래, 우
리 조국의 미래는 또 얼마나 위대한 기적과 사변
들로 수놓아질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받들어갈 억
척같은 맹세와 함께 만풍년의 기쁨을 안고 올해
의 풍년로적가리를 쌓아올리고있는 우리 나라 농
장원들의 가슴속엔 벌써 1,500만톤의 알곡고지가
솟아있는것이다.

생각많은 밤

조대환

1

울적에도 소리없이 왔던 봄은 갈적에도 조용히 가고말았다.

아마도 그것은 첫발자국부터 퇴성벽력을 울리며 장마비를 거느리고 들이닥친 이해의 류다른 여름에 너무도 급작스레 쫓기게 되어 간다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된 탓인가싶었다.

오늘도 비는 여전히 내렸다.

지질편편한 들길을 성난 사자마냥 물탕을 췌뿌리며 내달리던 열아홉살 흥안의 청년 감억찬이의 자동차는 길옆의 보조막처럼 생긴 검차초소앞에 다달으자 옹노에라도 걸린듯 아츠러운 제동소리와 함께 박힐듯 멈춰섰다.

동시에 억찬이의 손바닥이 비물이 흐르고있는 차문유리 한복판에 물먹은 락엽처럼 척 달라붙었다.

《호호...》

차문앞으로 다가가던 처녀검차원 리필순이의 입에서는 그 손바닥에 눈길 닿자 갑자기 웃음이 확 터졌다.

억찬이의 손바닥엔 잉크로 《불량개소 없음! 제발!》 하고 씌여져있었던것이다.

아마 화물역에서 짐을 부리울 때 제손으로 차를 정비해놓고 이런짓을 꾸며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필순이는 인차 웃음을 거두고 그 손바닥을 못 본체하며 적재함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라 억찬이앞에서만은 지어내서라도 엄격해야겠다고 늘 버르느러이지만 이렇게 만나자부터 또 웃음을 참지 못한 필순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차를 몰았으면 이렇게 온통 적재함까지 흙탕물칠을 해가지고 다녀요?》

필순이의 정색해서 하는 말에 강억찬이는 전혀 그런걸 모르고있었다는듯 우정 두눈을 휘둥그렇게 떠보이며 입을 썩 벌렸다. 그러는 그의 한쪽 입귀쪽에서는 덧이 한대가 유별나게 드러났다.

《그럼 또 청소를 해야지요. 화장도 시키구요.》

필순이를 웃기는데 이골이 난 억찬이는 이렇게

말하며 운전칸안에서 바깥쪽을 집어들고 훌쩍 뛰어내렸다.

이런 억찬이고보니 그가 미운짓을 해도 밍게만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 바깥쪽 어디서 났어요?》

필순이는 억찬이의 손에 들린 바깥쪽을 보자 놀란듯 말했다. 그러자 물을 뿌려 가려던 억찬이는 주춤 걸음을 멈추며 태연하게 대꾸하였다.

《왜요? 이걸 내겁니다.》

《어디 좀 봐요.》

《차, 이거, 어서 보라요.》

억찬이는 자기앞으로 다가오는 필순이에게 바깥쪽을 쑥 내밀었다.

필순이는 얼른 그 바깥쪽을 받아들며 웃는 소리로 말했다.

《누가 억찬동무의 바깥쪽이 아니래요. 억찬동무 좀 가서 쉬란말이지요. 화장이야 녀자들이 잘 하니까.》

필순이는 이런 말로 바깥쪽을 빼앗아들고 억찬이가 가던 방향으로 부지런히 걸어가는것이였다.

《하하... 그 갑작수에는 귀신도 울고가겠단말야, 난 또...》

바깥쪽을 빼앗긴 억찬이는 운전칸에서 걸레를 꺼내들고 기관실덮개부터 닦기 시작했다.

필순이는 인차 물을 길어가지고 왔다.

《거, 깨끗한 물인가요? 깨끗하면 여기부터 좀 넣지요.》

《넣어도 돼요. 깨끗해요.》

필순이는 적재함쪽으로 가다가 억찬이가 있는 차앞으로 왔다. 방열기에 물을 넣으려고 하나부다 했었다.

《자, 이리 줘요!》

이렇게 해서 억찬이는 필순이한테서 물바깥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적재함걸로 걸어가더니 바깥쪽물을 통채로 차체에 들부렸다.

《호호... 네 떡이 하나면 내 떡도 하나란말이구만요...》

《검차원이야, 검차를 빨리 해줘야지 차청소나 하겠나요. 이걸 내가 해요.》

억찬이는 빈 바깥쪽을 들고 개울로 뛰어가며 소리치듯 말했다.

필순이는 그러는 억찬이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볼수록 정이 가는 억찬이였다. 남보

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검차반은 짧은 시간조차 아까와하며 엉뚱한것을 골잘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두눈에 열망이 충만되어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른다는 애송이청년이였다.

운전사로 5년, 또 검차원으로 2년 벌써 여러해째 자동차와 함께 살아오는 필순이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어린 청년치고 이렇게 일욕심이 많은것은 보다 처음이였다.

억찬이는 벌써 세바퀴쓰나 물을 퍼다 차에 뿌렸다.

《제길, 사다리령이 그림구나! 좋은 길을 두고 이게 무슨 꼴이람.》

억찬이는 불이 번쩍나도록 결레질을 하며 필순이가 들으라는듯 투덜거렸다.

원래 강억찬이네 차사업소에서는 두굽이나 길을 에돌아야 하는 이 들길로 다니지 않았다. 사다리령을 넘는 길이 창명광산의 광석을 실어나르는 데는 제일 가까운 길이였다.

그런데 초여름부터 시작된 장마비는 사다리령으로 가는 골짜기의 철근콘크리트다리를 넘씩 삼키고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루에 네탕씩하던 사다리령을 두고 기껏해야 두탕밖에 못하는 이 들길로 다니게 되었다. 억찬이는 부아가 치밀어 건딜수가 없었다. 네탕씩 하던것도 씨원찮아 한탕씩 더 해보자고 버르던 참에 일이 비틀어진것이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할수도 없었다. 게다가 검차원 리필순이까지 사업소에서 멀리 떨어진 갈림길목에 도중검차를 나와 가고오는 차들을 세워놓고 이걸 고치라, 저길 고치라 하면서 한시간, 어떤 때는 한나절씩 시간을 끌기가 일쑤였다.

억찬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금처럼 일해가지고는 남다른 위훈을 생각할수 없는 것이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다. 억찬이는 날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묘안을 모색하다가 무릎을 친 일이 있었다. 물때문에 자동차가 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면 삭도줄을 높이 늘리고 자동차가 삭도바가지처럼 강을 날아 넘으면 될것이 아닌가!

억찬이는 그날밤으로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그런데 다음날아침 중대휴게실에 퍼놓은 그 그림이 웃음거리로 될줄은 몰랐다. 필순이가 그 그림을 보고 《삭도를 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예 기차길을 놓지요.》했다. 그바람에 운전사들은 와그르 웃음을 터뜨렸던것이다.

누군가는 억찬이네 집과 필순이네 집이 이웃간이지만 직승기를 타고 말돌이를 다녀도 안될거야 없으니 래일부터 그렇게 해보라고 한술 더 떴다. 그리하여 억찬이의 《묘안》은 성사되지 못하고 억울하게도 《자동차비행사》라는 딱지만 붙어 사

람들의 말뚱에 오르게 되었다.

이래저래 가슴에 저기압골이 꿈틀거리던 억찬이는 또다시 필순이에게 단단히 붙들리게 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억찬이의 차에서 조항유간이 규정보다 심하다고 당장 퇴치하고 떠나라는것이였다. 그러잖아도 사업소에서 다른 일때문에 늦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탕을 못하게 되는것이다. 억찬이는 그 말을 들을수가 없었다. 저녁에 돌아가 단단히 수리하기로 작정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냥 냅다 달아났다.

이리하여 그때로부터 억찬이 차가 오기만 하면 은근히 경각성을 높이고 검차를 하는 필순이였다.

억찬이는 청소를 다 해놓고 초소막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초소안에서 우렛이 내다보이는 사다리령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사다리령!

보기만 해도 가슴울렁이는 령이였다.

여느때같으면 이맘때 억찬이는 저 사다리령을 툭아오르느라고 운전대를 바빠 꺾으며 요란한 경적도 울렸을것이다. 물론 사다리령의 굽인돌이들이 여느곳과 달리 우측으로 그리고 좌측으로 그런가 하면 그 좌측에서 다시 좌측으로 돌게도 되었지만 어쩐지 억찬이는 저령의 상상봉 샷갓봉으로 어서 치달아오르고싶은 충동으로 하여 저도모르게 가속답판을 밝게 되군했다.

사다리령 아흔아홉굽이를 한품에 거느리고 흰 구름을 날개처럼 달고있는 까마득한 메부리, 그리로 치달아올라가는것은 자동차라기보다 말그대로 비행기를 타고가는듯싶었다.

차창밖으로 뿔뿔 밀려드는 축축한 구름, 눈썹리 아찔한 절벽, 던져놓은 바줄우로 개미가 기여가는듯 달리는 렬차...

과연 사다리령 굽이굽이는 자동차가 비행기마냥 높은곳을 나는 땅우의 푸른 향로이기도 했다.

그래서 운전사들은 《자, 또 한탕 날아봅세!》하고 사다리령으로 오르군했다.

그렇게 올라가 더 오를수 없는 샷갓봉마루우에 자동차를 척 올려놓고 방열기를 식히는 그 짧은 시간은 얼마나 가슴벅찼던가.

허리에 한손을 얹고 또 한손은 이마우에 들고 툭아오른 발밑의 산을 내려다볼 때면 억찬이의 가슴은 못내 설레이였다.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 한평생을 저 돌아나다 만듯한 산처럼 이름없이 살수야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갈마들 때면 억찬이는 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불같은 충격으로 하여 자동차로 뛰어오르군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은 땀도 흘렸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차를 세워놓고 이러고있

는가?

억찬이는 초소막안에 놓여있는 등받이가 없는 접이식의자에 털썩 걸터앉았다.

초소안에는 필순이의 깐깐하고 살뜰한 체취가 그대로 깃들어있는듯싶었다.

철판으로 트렁크처럼 만든 공구함 한개, 그우에 올려놓은 나무로 만든 부속품통 하나, 뜨개질하던 주먹만한 실꾸리와 끝을 까맣게 태운 참대바늘 몇개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린 철통화로와 납땀할 때 쓰는 구리도끼가 필순이의 초근초근한 성품을 다시 한번 엿보게 했다.

억찬이는 아직도 검차를 끝냈다는 소리가 없는 필순이쪽으로 쩡그린 얼굴을 돌렸다.

기관실덮개를 열어놓고 검차를 하던 필순이가 억찬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머리를 갸우뚱하고 말했다.

《차가 감기에 걸린것 같구만요.》

기화기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리였다.

억찬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또 한나절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일없어요. 그래도 내 기화기만한것도 아마 쉽진 않을걸요.》

필순이는 기화기부분이 좋지 않을 때는 언제나 《감기》라고 말하고 스프링은 《관절》로 전조등은 《눈》으로 사람에게 비유하기를 좋아했다.

《일없다니, 감기가 쇠면 〈폐염〉이 온단걸 알면서두…》

(제길, 《폐염》이란건 또 뭔가?)

억찬이는 한가하게 까다로운 소리만 하고있는 필순이에게 한마디 짜주듯 말했다.

《자, 그건 병원에나 가서 하는 소리구요. 가도 되지요?》

《에이구… 좀 진득이 앉아 쉬라요.》

억찬이는 아무말없이 안장고삐를 한번 쥔듯하며 필순이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러자 필순이는 억찬이의 그런 우습강스런 특징을 처음 발견하기라도 한듯 얼굴을 가슴에 박으며 소리내여 웃었다.

《아니, 왜 그래요?》

하지만 필순이는 그냥 웃기만 했다. 억찬이는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기라도 했는가싶어 웃주머니에서 언젠가 필순이가 단추를 달아주고나서 준 손거울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바로 그때 거울에는 랑쪽으로 다같은 얼굴이 비끼고있었다. 거울 뒤면에는 억찬이의 독사진이 끼워있었던것이다.

억찬이는 얼굴에 아무것도 묻은것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다시 작업복주머니에 넣었다.

《아까 중대장동무가 검차를 받고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억찬동무의 그 엉뚱한짓들이 말안장 축소판같은 그 코에서 쩡긋할 때마다 한번씩 나오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호호…》

억찬이는 필순이의 그 말에 버럭 화를 냈다.

《거 중대장은 어째 그래요? 내가 무슨 엉뚱한짓을 한다고 말끝마다 엉뚱하다 엉뚱하다 하는지 모르겠단말입니다. 난 그 소리가 막 듣기 싫단말이야요. 끝세 오늘부터 세탕씩 하겠다니까 《중소! 그런 엉뚱한 생각은 나도 찬성어요!》하고 어색하게 등을 다 두드려주면서도 또 그 소리를 하거던요.》

억찬이는 오늘부터 이 들관길에서도 세탕씩 할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여느때없이 바빠하는것이였다.

《거야 뭐 억찬동무가 미워서 그런 소리를 하는게 아니지요뭐.》

《차, 내가 듣기 싫다니까 점점 더 그런단말입니다.》

《뭘 그러겠어요.》

《차, 그런데 검차원동무는 중대장 말이라면 어째서 다 옳다고만 하나요? 정말 모를 일이란말야, 허참.》

억찬이는 별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필순이는 억찬이의 말끝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것이였다.

그러는 필순이를 보니 억찬이는 문득 짙이는것이 있었다.

며칠전이였다.

억찬이의 아침밥상에는 뜻하지 않은 세가지의 떡이 올랐었다. 차떡, 시루떡 그리고 수수팔떡이였다. 알고보니 어머니의 생일이라면서 이웃에 사는 필순이네 집에서 가져온것이였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는 합숙에 들어가 먹군하던 중대장이 자기도 점심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중대휴게실에서 운전사들과 함께 점심밥곽을 풀었다. 그때 그의 밥곽에는 억찬이가 아침에 먹은 바로 그 세가지 떡이 담겨져있었다. 억찬이는 혹시 필순이가 가져다준것이 아닐가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중대장은 누가 묻기도 전에 합숙에서 특식을 했길래 가지고 나왔다면서 한개씩 나누어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억찬이는 그런가부다 했는데 지금 필순이의 얼굴이 자기의 한마디 말에 저렇게 빨개지고있는걸 보니 그때 그 떡이 보통떡이 아닌가보았다.

(허참, 그런걸 아직 몰랐군.)

억찬이는 히죽 웃었다. 코살도 한번 쩡긋했다. 그리고 시치미를 따고 한마디 더 했다.

《거, 중대장은 정말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단말입니다.》

억찬이는 중대장의 흠이라도 하나 꺼내놓고싶었으나 그럴만한게 인차 생각나지 않는것이 몹시 유감스러웠다.

《자 됐어요, 어서 떠나요. 바쁘다면서…》

이번엔 오히려 필순이가 어서 가라고 억찬이를

떠밀었다.

《어쨌든 난 중대장이 싫어요. 옳지 않거든요.》
억찬이는 자동차로 썩하고 올라갔다.

2

두번째탕을 여느날보다 한결 빨리 끝낸 억찬이는 저녁 먹을 시간이 안되었지만 미리 먹고 세번째 탕을 하려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어머니한테서 희한한 소식을 하나 들었었다.

그것은 오늘저녁에 필순이의 신랑감이 될 사람의 어머니가 평북도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허허... 평북도로 시집을 간다! 그럼 중대장하구는... 큰 실수를 할뻔했군. 잘못 생각했었는 데...)

억찬이는 아까 자기가 짐작했던 두사람사이가 그렇지 않다는것을 확인하자 혼자 웃었다. 차는 나는데 달렸다. 엔진에서는 세찬 금속성을 일으켰다.

하루종일 음산한 바람이 불고 지질거리던 날씨가 저녁녘이 되면서 좀 트이는것 같았다.

화물역에서 떠나 검차초소에 도착하자바람으로 억찬이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두번째탕보다도 7분이나 시간을 단축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필순이는 억찬이의 차에서 스프링 2번이 부러진것을 발견했던것이다.

《늦었지만 바꿔넣고 가야겠어요.》

《관절염》에 대한 필순이의 《처방》이었다.

억찬이는 필순이의 말을 못들은체하고 두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부러진 스프링만 물끄러미 들여다보고있었다.

《언제 그랬어요?》

필순이가 물었다.

억찬이는 역시 못들은척했다. 자기도 알수 없었기때문이었다. 아까 두번째탕에 이 초소를 지나 덕고개라고 하는 등성이를 넘어서자 차에 큰 충격이 오긴 했지만 그때 그렇게 된것 같지는 않았다. 그때라면 돌아올 때 필순이가 이미 찾아냈을 것이었다.

(혹시 아까번에 필순이가 못보지 않았을가? 아니, 필순이가 제 손금을 못보면 못보았지 자동차를...)

아까 억찬이가 덕고개를 넘어서서 밋밋한 내리막길로 차를 댈때 모는데 갑자기 질주하던 차가 모두발을 놓듯 요란히 들추었다. 그때 억찬이의 머리는 천정을 들쭈었고 발동까지 죽었었다. 알고 보니 길북판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걸 미처 보지 못하고 깔았던 것이었다. 억찬이는 웬 돌인가 하여 주변을 살펴보았다. 다락발을 만들다가 남아서 쌓아둔듯싶은 돌무지 하나가 길옆의 등배기우에 있었다. 아마 그것이 비가 오면서 흙이 패이게 되어 움직였던 모양이었다. 억찬이는 신경질이 났다. 그 돌을 안아 길아래로 내던졌다. 그런데 그만 그 돌이 굴러가 길아래에 있던 유아등을 깨뜨렸었다.

억찬이는 어이가 없어 깨진 유아등을 집어들고 묵묵히 들여다만 보았다. 그러다가 심지끼우개 생각이 들어 주변을 찾아보았다. 손가락마디만한 심지끼우개가 논둑아래에 떨어져있었다. 억찬이는 잔뜩 몸을 꺼꾸로 박으며 논둑밑에 있는 심지끼우개를 찾아서 유아등 물통안에 넣어두었다.

(제길, 바쁘다는데... 이걸 다시 만들어놓다간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겠군...)

억찬이는 여기서 머물러다간 세탕을 할수 없게 된다는 생각이 뇌리를 치자 더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뜨고말았다. 그바람에 그만 차에 충격이 갔다는것도 까맣게 잊고 차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러니 그때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통 알수가 없었다. 아무튼 억찬이는 여기서 스프링교체를 할수 없었다.

오늘저녁에 광산에서는 중앙예술단의 소편대공연이 있기때문에 늦게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며 그냥 갔다와서 고칠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필순이가 가라고 하지 않은 이상 이제 사정을 한다 해도 씨먹지 않을것은 뻔했다. 수는 한수밖에 없었다.

《할수 없지. 어디다 차를 세우고 교체할가요?》
차를 뽑아놓는체하고 내빼자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필순이는 《저 옆에다 빼놓고 해요.》 하고 검차 망치를 들어 앞길까지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으니 차마 선뜻 도망치듯할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잠시 망설이는데 초소막안에서 필순이가 소릴 쳤다.

《억찬동무! 이걸 좀 마시고 해요. 벌써 따끈해졌구만요!》

필순이는 운전칸에 앉은 억찬이에게 손짓을 하며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하였다.

또 사랑물을 끓인 모양이었다.

《언제 먹을새 있어요.》

《원, 어서요.》

그래도 내려오지 않으니 필순이는 김이 문문나는 고뿌를 들고 나왔다.

《내가 이러는바람에 검차원동무한테는 옴짝 못 하나봐요. 가려운데를 살살 잘 긁어주거든요.》

운전칸에 앉은채로 사랑물을 받아마신 억찬이는 문득 필순이가 고마왔다.

언젠가는 필순이가 자기의 떨어진 작업복단추까지 달아준 일이 있다. 그때 그는 《이 〈비행사〉! 제발 땅에 좀 내려오랴요. 하늘에서야 무슨 생활이 있겠나요. 자, 이 바늘을 좀 봐요. 장수들이 입는 갑옷도 이렇게 작은 바늘로 깎는대요!》하고 다 단 단추실을 입으로 꿰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쓰던 동그란 손거울까지 주며 《자, 이걸 루 얼굴도 보고 마음도 비춰봐요!》하고 웃으며 말했다. 그때 억찬이는 문득 시집간 누나의 얼굴이 그려지면서 너자들이란 다 이렇게 다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째뼉이 장갑도 떼서 운전사들에게 주는가 하면 주변의 길도 닦고 어떤 때는 농장의 상점에 가서 시원한 도마도도 사다두었다가 검차를 받는 동안 운전사들에게 내놓곤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긴요한 부속품들까지 있어서 신세를 질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이런 일대로 좋은것이지 두 탕밖에 못뛰는것을 네탕씩 뛰게는 못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남의 배이상은 해야 그래도 일하는 보람이 있을것이다.

(가자!)

억찬이는 다시 결심을 하고 차문을 닫았다. 그리고 차창유리를 내려놓고 얼굴을 내밀었다.

《저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억찬이는 필순이의 신랑감으로 될 사람의 집에서 어머니가 온다는 이야기를 아까부터 한마디 하고싶었지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값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불쑥 입을 다물었다.

《부탁이라니?》

필순이는 억찬이의 차문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저 오늘저녁에 우리 집에 좀 오시랴요.》

《왜?》

필순이는 억찬이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또 하려고 이러나 하고 그를 찬찬히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코를 찡긋거리지는 않았다.

《저 다름이 아니라 오늘저녁에 내 선을 보러 가시어머니가 온다나요.》

억찬이는 이런 말을 해놓고는 뉘다 차를 내물었다. 그러나 그 《전술》은 철저한 《경각성》에 즉시 걸려들고말았다.

《면허증!》 하고 소리치는 필순이의 목소리가

억찬이의 차안으로 총알처럼 날아들었던것이다.

(하, 이거, 또 한수 겹군!)

이미 억찬이의 속심을 꿰뚫어본 필순이가 운전칸에 두었던 억찬이의 면허증을 꺼내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이리하여 억찬이는 스프링교체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은 예상외로 빨리 끝났다.

《억찬동무! 내 할말이 있는데 오늘은 억찬동무가 너무 바빠해서 그만두겠어요. 자, 어서 떠나요.》

바깥에서 물을 떠내어 손을 씻으며 필순이가 하는 소리였다.

억찬이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필순이가 한마디 더했다.

《그리구 내가 정말 한가지 부탁할게 있어요. 아까 말한 소리 아예 사업소에 가서 하면 안돼요.》

억찬이는 필순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치미를 톡 댔다.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한거...》

《아까 말한거라니요? 말도 많이 했으니...》

억찬이는 손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필순이를 슬쩍 결눈질해보았다. 그런데 필순이는 억찬이가 중대장을 왜 그렇게 두둔하냐면서 모를 일이라고 했을 때처럼 얼굴이 또 빨개져 되고있었다.

《그런데 중대장동무는 왜 아직 안올까? 올시간이 됐는데.》

필순이는 문득 중대장생각이 났는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하더니 먼길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억찬이는 그러한 필순이를 곁에서 찬찬히 바라보았다.

굽실굽실한 그의 머리는 비에 젖어 더 반지르해졌다. 중대장을 기다리느라고 먼곳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지 원래 상큼한 목이 오늘따라 더 희고 더 상큼해보인다. 해별에 나가 일해도 잘 타지 않는 맑은 얼굴은 방금 물기를 씻어낸듯 청신하였다.

그가 입고 서있는 하늘색 비옷과 그가 신고있는 하늘색 사출장화는 필순이도 이제 보니 키가 꽤 크구나 하는 생각을 찾게 하였다.

《그럼 가겠어요.》

억찬이는 필순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려고 서있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지동차로 올라갔다.

날은 벌써 어둡기 시작하였다. 억찬이는 자동차에 전조등을 켜며 필순이에게 인사라도 하는듯

경적을 길게 울려보고나서 차를 움직이었다.

억찬이가 차를 몰아 덕고개를 넘어서는데 저앞에 웬 자동차 한대가 서있는것이 보였다. 그 차와 가까워진 억찬이는 그것이 중대장 안평선이의 차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억찬이는 안평선이의 차결에 자기의 차를 세웠다.

(이 《달구지》가 또 고장이 났구만.)

억찬이는 차에서 내렸다.

원래 안평선이는 차를 몰지 않았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숨은 영웅들에 대한 격동적인 기사들이 신문에 발표되고 그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투쟁을 하는 과정에 폐차신청을 냈던 낡은 차를 새로 만들다싶이 하여 이렇게 직접 물고다니는것이였다.

억찬이는 중대장의 차를 한바퀴 빙 둘러보았다 그런데 중대장이 보이지 않았다. 두루두루 살펴 보던 억찬이는 《중대장동무!》 하고 소리를 쳤다. 그랬더니 멀지 않은 길아래쪽의 어둠속에서 《억찬인가?》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억찬이는 그 소리가 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순간 억찬이는 《아!》 하고 입을 썉 벌렸다.

여기가 바로 아까 자기가 유아등을 깨뜨린곳이였다. 그런데 지금 중대장은 그 깨뜨린 유아등을 새로 만들어 거기에 불을 붙이고있는것이였다. 억찬이는 얼른 말이 나가지 않았다. 중대장이 풀밭에서 나오며 먼저 말했다.

《유아등불이 꺼졌길래 붙여놓자고 내려와봤더니 깨졌구만, 그래 하나 만들어왔어.》

안평선이는 길로 올라섰다.

두사람은 가까이 서서 자동차쪽으로 걸어갔다.

《중대장동지가 하지 않으면 만들어놓을 사람이 없을까봐 그러니까. 저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관리자가 보면 어련히 안해놓겠습니까. 별걸 다 가지고 시간을 보내누만요.》

억찬이는 차마 자기가 깨뜨린것이라는 말이 선풃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말만은 끝내 하지 못했다.

《허허... 그걸 깨뜨린 사람도 아마 억찬이처럼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야. 그렇길래 그냥 갖겠지. 하지만 큰 일을 하자고 할수록 적은 일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법이야. 초침이 맞지 않는 시계가 시침이 맞을수가 없지 않아.》

멀고가까운 들판의 어둠속에서는 수많은 유아등불빛이 가물거리고있었다.

《자, 어서 가라구, 비가 또 쏟아지겠구만, 참 날씨두...》

중대장은 자기 차로 올라갔다. 그러나 억찬이는 그냥 서있었다.

방금 중대장이 한 그 말이 어쩐지 가슴에 켕기였다. 그래서 더욱 자기가 깨뜨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중대장과 헤어질수 없었다.

《어서 가라는데.》

다시한번 억찬이의 등을 떠밀다싶이 말한 중대장은 전조등을 켜고 부르릉 발동을 걸었다.

《저 중대장동지! 그 유아등을 누가 깨뜨렸는지 붙잡아서 아예 혼내우십시오.》

《허허... 그 소릴 하자고 그랬어? 그너석이 어떤 너석인줄 알고 붙잡아. 벌써 그너석은 줄행랑을 쳤겠는데.》

《아무튼붙잡으면 혼내우지요?》

《억찬이가 혼내우라면 한번 본때를 보이지.》

《중대장동지! 그놈이 바로 이 강억찬이예요.》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고나니 그 무슨 커다란 짐이라도 내려놓은듯 한결 가슴이 후련해진 억찬이는 차로 닝크 올라가 부르릉 발동을 걸었다. 그러자 떠나려던 안평선이가 정말 본때를 보일듯 다시 차에서 내렸다.

《당장 그 차를 돌리라구!》

갑자기 중대장의 입에서는 벼락이라도 떨어지는듯싶었다.

억찬이는 후-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하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오기까지 했다.

공연히 굵어부스럼을 만들어가지고 진퇴량난에 빠진 자기가 못내 어리석었다. 누가 깨뜨렸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깨뜨렸소 하고 공연히 욕별이를 얻어서 할건 뭐란말인가.

《왜 이러고있어? 돌리라는데!》

또다시 중대장의 끓고 짜르는듯한 독촉이였다.

억찬이는 중대장의 이런 《공격》에 《방어》할수 있는 《묘안》을 찾아낼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진탐이 날 정도였다.

《허허... 이만하면 억찬이가 혼이 났나보지. 코도 한번 찡긋거리지 못하고말야.》

중대장은 땀을 빼고있는 억찬이의 꼴이 통쾌하다는듯 껄껄 웃었다. 그제서야 억찬이는 자기수에 자기가 넘어갔었다는것을 알고 저도 덩달아 유쾌하게 웃었다.

《억찬이가 오늘 세탕 하는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 뭇 하나 줄가? 난 억찬이가 저 유아등을 깨뜨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있었거든. 깨뜨린 유아등을 붙들고 논도랑풀쉴에 박혀 우는 억찬이가 보이더라말야. 자.》

중대장은 무엇인가 주머니안에서 꺼내여 차에 앉은 억찬이에게로 올려밀었다. 억찬이의 사진이 끼워져있는 동글납작한 손거울이였다. 아까 억

찬이가 심지끼우개를 찾으려고 논쪽에 었딜때 옷 주머니에서 떨어진것을 안평선이가 얻은것이였다.

《하, 이거.》

억찬이는 손거울을 받아들고 자기의 사진이 있는쪽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억찬이는 필순이가 자기에게 이 거울을 주면서 얼굴도 마음도 비쳐보라고 하던 말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자, 어서 떠나. 아침에 세탕을 하겠다고 할 때보다 이제 세탕째 가는 억찬이가 더 좋구만. 억찬인 오늘 좋은 생각을 했어. 아마 래일부터는 사업소전체가 억찬이 모범을 따르자고 할거야. 자, 어서.》

안평선이는 억찬이의 자동차문을 주먹으로 가볍게 한번 툭 치고나서 자기 차로 올라갔다.

두사람은 다같이 차를 움직이였다.

《참, 중대장동지!》

억찬이가 차문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저, 오늘 필순동무네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걸 아시지요. 이제 가다가 꼭 데리고 가십시오. 오늘은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일인데?》

《모르시나요?》

《날보구 아무 소리 없던데...》

억찬이는 지기가 이 말을 꺼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필순이는 자기를 기다리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있을수도 있었다.

어느날을 막론하고 아침 첫차에 초소막을 싣고 그 차와 함께 이동초소로 나오며 저녁에는 또다시 다 집어싣고 맨 마지막차에 들어가군하는 필순이였기때문이다.

《꼭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또 나때문에 안들어가겠다고 할수 있는데 강제로라도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꼭.》

《허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억찬이는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안들어가겠다고 필순이가 고집이라도 쓰면 중대장이 혹시 그냥 갈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친것이였다.

《저... 거 있잖아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라도 생긴게로구만.》

《생각해보십시오. 중대장동지도 이제 약혼이랑 결혼식이랑 하겠지요.》

《하하...》

《웃을게 아닙니다. 집에서든 이웃에서도 나이든 처녀라고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압니까? 오늘 그런데 필순동무의 약혼을 하게 된단말입니다.》
억찬이는 보태서 말했다.

《그래 중매는 누가 썼게?》

《중매요? 그건 모르겠어요.》

억찬이는 이쯤했으니 꼭 데리고들어갈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더 말하지 않았다.

《좌우간 알았어.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 거울은 주머니에 넣지 않고 왜 그렇게 들고있어? 또 잃어버리겠구만. 그게 얼마나 사연깊은 거울이야. 첫장거리은행기념에 또 오늘 유아등사건까지 겹친 거울이 아닌가말야. 잘 건사하라구.》

안평선이는 갔다. 그러나 억찬이는 인차 갈수 없었다. 그는 손에 들려있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이게 그 장거리때에 받은 거울인가?)

억찬이는 생각에 잠겨 차를 몰았다.

...그것은 억찬이가 사업소에 배치된지 두달도 못되는 어느 이른봄날이였다.

그날 억찬이네 사업소에서는 남포로 갈 일이 생겼다. 누가 가게 될것인가? 억찬이는 장거리은행을 한번 하고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헛내기에게 차례질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길고짧은것은 대박야 안다는 생각이 들어 억찬이는 중대장에게 자기의 심정을 말해보았다. 역시 어렵도 없었다. 중대장은 이미 로련한 운전사에게 지령을 주려고 했던것이다.

《일을 해봐야 경험도 생기지요. 그럼 헛내기는 끝까지 헛내기로 남아있을게 아닙니까.》

그 다음날아침 억찬이는 차를 정비하다가 지배인을 만나게 되어 똑같은 말로 자기가 장거리출장을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다음날은 억찬이에게 남포갈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저녁늦게 그 소식을 받은 억찬이는 집으로 들어가서도 못내 기분이 가벼워 늦도록 책을 들춰거리며 있었다.

(오늘은 차를 좀 잘 정비해야겠군.)

다음날아침 억찬이는 이런 생각을 곱씹어 하며 어느날보다 한시간전에 사업소로 나갔다.

그런데 억찬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가 첫출근을 한줄 알았는데 휴계실에는 벌써 필순이가 와있었다.

《제길, 내가 첫출근을 할가보아 겁이 나나요?》

억찬이는 첫출근을 하지 못한것이 은근히 화가 났었다. 버르고버른 첫출근이였는데 이렇게 된 것이였다.

《호호... 아니야요. 억찬동무가 첫출근이야요. 난...》

억찬이는 그제서야 필순이가 사업소에서 밤을 밝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더우기 놀란것은 차고안에 세워둔 자기의 차가 룽색에나멜로 날아갈듯이 도색되어있었던것이였다.

《야, 난 그것도 모르고... 도색이야 뭐래요. 정

비만 잘하면 될건데 도색때문에 온밤 새웠구만요.》

억찬이는 필순이 보기가 미안하여 다른 말을 할수 없었다.

《남포까지 가려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평양을 통과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니 억찬이 차를 두고 그냥 누워있을수 없더구만요. 평양을 통과할 차가 낡은 옷을 입고 가셔야 되겠어요.》

억찬이는 어쩐지 가슴이 쿵-하고 뼉을 느꼈다.

그날, 억찬이는 온종일 차정비를 정성껏 했다 필순이는 운전칸 시창테두리에도 뜨개실로 뜬 실발을 보기 좋게 둘러쳐주었고 숨을 넣어서 통통히 만든 둥근 판에 빨간 색실로 《무사고》라는 글자도 새겨다가 운전칸에 달아주었다.

이리하여 억찬이는 왕복 천여리나 되는 먼길로 첫 장거리운행을 하게 되었었다.

어느 령을 넘을 때 억찬이는 머리에 고사리를 꺾어 인 한 할머니를 태운 일이 있었다. 딸네 집에 왔다가 고사리가 하도 소담해서 자꾸 꺾었더니 이고 갈수 없게 많이 했다면서 할머니는 억찬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곱씹어 인사를 했다. 그 다음에는 차안이 분팍처럼 깨끗하다며 억찬이를 못내 대견해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억찬이는 차의 도색으로부터 운전칸이 알뜰히 꾸러지게 된것은 검차원 리필순이라는 처녀의 솜씨라고 약간 과장까지 해서 말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자동차사업소에 그런 훌륭한 처녀들이 있는가고 몹시 부러워 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릴 때 보통이에서 손거울을 하나 꺼냈다.

《이봐, 임자한테 줄게 없구만. 이걸 그 체네나 갖다줘. 그대신 자네 주소나 좀 알려주게. 손자녀석들한테 고맙다구는 편지나 한장 하게 할테니.》

하고 간절히 말했다. 그리하여 억찬이는 자기네 차사업소만 대주고 할머니와 헤어졌다.

장거리운행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억찬이는 할머니의 부탁대로 필순이에게 그 거울을 주었었다...

(허허... 이게 그럼 그 거울인가.)

억찬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광산골어구로 접어들었다.

3

숨이 차도록 달려와 자기의 뜻대로 세탕째 집을 실은 억찬이는 드디어 귀로에 올랐다.

코를 잡아당겨도 모를 칠칠어둑속을 뚫고 억찬이의 차는 전조등불을 휘두르며 가는비 뿌리는 들관길을 질주하고있었다.

이제는 한숨 돌리며 가도 될 길이었으나 억찬

이의 마음은 올 때나 갈 때나 여전히 조급했다.

이제쯤, 중대는 다 돌아갔을것이다.

필순이도 아마 곱게 화장을 하고 낯선 어머니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앉아있을것이고...

혹시 중대장이 나를 기다리며 중대휴계실에서 운행증정리를 할지도 모른다.

어서 가자!

억찬이의 차밀에서는 흙탕물 튀는 소리가 요란했다. 밤비는 느닷없이 차창문을 적시며 줄줄이 흘러내렸다. 비내리는 적막한 들길에는 가고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다만 저앞의 논밭에서 이렇게 비오는 밤에도 말없이 벌레잡이를 하고있는 유아등불만이 잠들지 않고 불타고있었다.

그 유아등에 눈길이 가자 억찬이의 마음은 부지중 무거워졌다.

무엇인가 뭇뭇치 않은 자신이 느껴지였다. 세탕을 제껴 즐겁던 마음을 저 유아등불이 태워버린듯싶었다.

남이 못하는 일을 자기가 하며 가는 길이라 응당 공지를 가지고 자랑차게 달려야 할 길이었으나 그 공지와 그 자랑을 당당하게 받아안을수 없었다.

남들처럼 일하며 가던 그때보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운듯싶었다. 누구의 강요에 못이겨 한 일도 아니고 제스스로가 찾아한 일이 아닌가.

억찬이는 자기의 가슴속에서 즐거움을 떠밀고 말없이 찾아든 그 느낌이 바로 말없는 저 유아등때문임을 알고있었다.

중대장은 유아등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놓고 가자고 했는데 난 무엇때문에, 왜 그냥 갔는가. 내 차에는 빈병도 하나 있지 않았는가.

억찬이는 아까 중대장이 거울을 주면서 아침에 세탕을 하겠다고 할 때보다 이제가 더 좋다고 하며 자기를 칭찬해주던 그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졌다.

억찬이의 자동차는 어느덧 유아등을 깨뜨렸던 그 덕고개의 밋밋한 언덕도 넘어섰다.

그런데 저건 뭐가? 억찬이는 한층 차를 빨리 몰았다. 들어갔을줄 안 필순이의 그 보초막같은 검차초소가 그냥 길가에 서있었다.

(중대장동문 참...)

억찬이는 자기와 약속했던 중대장의 얼굴이 그려지면서 불만이 콧 밀려들었다. 어찌자고 아직까지 필순이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단말인가? 자기도 총각이 아닌가? 자기는 앞으로 결혼도, 약혼도 안할 사람인가? 필순이도 그렇다. 오늘 한번 검차를 안한다 하여 내 차가 사업소에까지 못들어 가겠는가?

억찬이는 검차초소앞에 차를 바짝 다가세웠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았다.

《수고했어요. 억찬이!》

여느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검차망치를 들고나와 차문앞으로 오며 하는 필순이의 말이였다. 억

찬이는 등받이에 등을 대고 뻗뻗이 앉아만 있었다. 그러자 필순이가 차문은 열었다.

《수고했어요. 힘이 들어 그러누만.》

억찬이는 이처럼 자기에게 살뜰한 필순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중대장에 대한 고까움이 커졌다. 억찬이는 통명스럽게 말했다.

《차가 몽땅 고장났어요. 잠이나 싹껏 자고 새벽에 가야지!》

억찬이는 두눈을 지그시 감으며 등받이에 몸을 지냈다.

그러자 필순이가 운전칸으로 들어왔다.

《약속을 어겼지요? 중대장동무한테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꿑꿑이에 또 속을줄 알아요. 호호...》

필순이는 부르릉 발동을 걸었다.

그리하여 억찬이는 더 앉아있을수 없게 되었다.

두사람은 초소막이며 공구함들을 차에 싣고 운전칸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순이가 운전대를 잡았다.

뜻밖에 운전대를 빼앗겼으나 억찬이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필순이곁에 앉았다. 마치도 누나의 자동차를 한번 타보기라도 하는 꼬마처럼.

자동차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러나 차츰 빨라졌다. 곁에 앉은 억찬이는 더 빨리 몰라고 재촉했다.

《호호... 빨리 모는게 운전사가 아니라 잘 모는게 운전사래요.》

그바람에 억찬이는 화를 냈다.

《그만뒤요. 그건 중대장이나 하는 소리지... 제발 좀 얹지 말라요. 점점 말하는것까지 얹아간다니까.》

《벌써 억찬동무두 얹두만요.》

《내가요? 하하...》

《난 다 알아요.》

《어디 말해봐요. 뭘 아는지? 하하... 내가 얹다니...》

《그럼 말하지요. 중대장동무처럼 생활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일하려고 한다는게 내 눈엔 다 보이던데요. 오를아침에도 비가 왔지만 자동차에 물청소를 제손으로 하는걸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억찬이가 비오는 날 무슨 청소를 하겠냐고 할줄 알았거든요. 달리면 또 흙탕물이 오르게했는데 하고말이에요. 언젠가 중대장동무는 나에게 말했어요. 날고싶어하는 억찬동무에게 진짜 날개를 달아줘야겠는데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진짜 날개라니요? 하고말이에요. 그랬더니 생활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는것이 바로 나는거라고 하더군요만요. 참된 생활은 제아무리 작은것이라 하지만 결과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큰 일이된다는거야요. 바로 그런 생활속에 명예도, 위훈도 있다지 않겠어요. 중대장동무가 제대되어 우리 사업소에 온지는 이제 겨우 일년밖에 돼오지 않지만 난 어쩐지 여러해동안 그에게서 생활을 배운

것 같아요.》

필순이는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긴듯싶었다.

질은 눈섭아래 그윽히 빛나는 눈, 아름답다기보다 살뜰한 인정과 정다움이 거기에 다 보여 반짝이는듯싶은 그 호수같은 눈동자로 차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운전대를 돌리고있는 필순이의 모습은 어느때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였다. 마치도 그 모습은 자동차운전사만이 아니라 중대장이 말했다는 참된 생활의 그 길로 자신은 물론 억찬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생활의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몰아가는듯싶었다.

그래서 억찬이는 중대장이 했다는 그 말이 바로 필순이의 말이라고 느껴지면서 이 순간 자기 자신이 그런 필순이의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듯했다.

문득 억찬이는 그런 필순이가 이제 머지 않아 남편을 따라어디론지 가버리고말겠구나 하는 허전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 생각은 억찬이에게 못내 서글픔을 주는,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할 생각이였다. 그러나 저도모르게 생긴 그 생각을 억찬이는 좀처럼 놓을수가 없었다.

너자들이란 다 이렇게 언제나 한번은 꼭 가야 하는가? 가지 않고 여기서 남편을 맞으면 될것이 아닌가. 나에게 그렇게 해줄 힘은 없는가?

《어디로 가나요?》

억찬이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왜, 내가 길을 잘못들었나요?》

억찬이의 마음을 다 알수 없는 필순이는 자동차의 앞길을 좌우로 살펴보는것이였다. 억찬이는 후-하고 숨을 몰아쉬었다.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대답하는 필순이였다.

《알면서두... 오늘저녁에 온다는 어머니가 어디서 오시냐말입니다.》

평북도에서 온다는걸 뻔히 알면서도 억찬이는 이렇게 물었다. 필순이는 그제서야 조용한 웃음소리로 웃었다.

《왜요? 평북도 벽동이라는데서 와요.》

《그럼 벽동으로 가겠구만요.》

《호호... 억찬이한테 밤낮 잔소리만 했는데 불들어두고싶어요?》

《아니요. 잘 가란말이지요뉘. 불들어두고싶은들 내게 뭘 그런 힘이 있어야지요. 자동차 모는 힘밖에 없으니...》

《자동차운전사가 그 힘이면 세상에 못해낼게 어디 있어요. 난 벌써 억찬이의 그 힘에 꼭 붙들었는데.》

억찬이는 이런 말을 하는 필순이의 얼굴을 뻔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표한 안장코를 한번 찡긋거렸다. 무슨 소리인지 알수 없었던것이였다.

《자, 난 여기서 내려야겠어요.》

필순이는 차를 세웠다.

화물역으로, 사업소로 그리고 억찬이와 필순이의 집으로 가는 세갈래 갈림길이였다.

억찬이는 대답없이 운전대를 넘겨받았다. 필순이는 이제 여기서 곧바로 집으로 갈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억찬이는 필순이를 내려놓고 혼자 화물역으로 가게 되었다.

화물역에서 광석을 부리고 사업소로 돌아오는 억찬이의 마음은 왜 그런지 초조해지기만 했다.

필순이의 생각때문인지 아니면 이제는 사업소에 들어가 중대휴계실에서 자기를 기다릴 것만 같은 중대장에 대한 생각때문인지 어쨌든 여느날과 다른, 기쁜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서글픈가 하면 역시 그렇지 않은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었다.

어느덧 억찬이의 차에서 내비치는 전조등불빛은 한쪽 옆으로 치우쳐 바라보는 아치형으로 된 사업소 정문을 밝히기 시작했다. 정문열 구호관에서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고 쓴 힘찬 글발이 안겨왔다. 사업소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에서 보는 그 구호였건만 이 밤따라 억찬이는 그 구호의 요구에 자신을 비추어보게 되었다.

억찬이의 자동차는 천천히 속도를 죽여가며 정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습관된 버릇대로 문을 열라는 경적신호를 하려던 억찬이는 오늘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저녁이면 닫혀지군하던 정문의 철문이 이제야 오고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열려 있었다. 열려진 그 문안으로 들어선 억찬이의 차는 얼마 더 가지 못하고 우뚝 섰다. 억찬이의 차가 가야 할 길 한복판에 대문짝같은 속보관이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다.

《세탕 발기자 강억찬동무를 열렬히 축하한다!》

억찬이의 눈길이 속보를 더듬는데 누군가 차문을 열었다.

《억찬이! 수고했어. 어서 내리라구! 동무들이 억찬동무를 축하해주자고 모두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

중대장 안평선이가 억찬이의 손을 잡아끌었다.

억찬이는 차에서 내렸다.

중대의 전체 운전사들이 차에서 내리는 억찬이에게 박수를 쳤다.

필순이가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생화묶음을 억찬이에게 안겨주었다.

《자 받아요. 중대동무들의 마음이야요.》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억찬이! 팬잖아!》

《장하다! 우리 꼬마!》

《수고했다. 7625호!》

《억찬이!》

다 들던 목소리였다. 다 친근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들이 와-하고 밀려오더니 손을 잡아 흔들려주는가 하면 어깨를 칠척 치기도 하고 등을 두드리기도 한다.

억찬이는 도무지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정신이 얼떨떨해졌을 뿐이었다.

《동무들! 우리 〈비행사〉의 〈착륙〉을 축하해

서 목말을 태웁시다. 자!》

《웁소! 바뀌는 땅에서만 굴수 있는 법이요! 태웁시다.》

누군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억찬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또 누구인지는 억찬이를 넘쩍 안아 목말에 올려놓았다.

《자, 휴계실로 갑시다.》

목말에 실려 휴계실로 가고 있는 억찬이의 가슴 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이 샘처럼 솟구쳐올랐다.

이 사람들, 필순이며 중대장이며 이 모든 운전사들이 과연 나에게 바란 것이 이것이였단 말인가.

억찬이는 세탕째 편 오늘의 로정우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이 새록새록 눈앞에 떠오르면서 바로 그것들이 공명심에 들었던 자신의 하루 생활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단 한순간도 더는 목말우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렇다!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그것이 생활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주인다운 자세와 립장으로 참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아마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허영심도, 공명심도 갖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들떠지게 되고 땅에 닿지 않은 바퀴처럼 제아무리 빨리 굴러도 그것은 차를 떠밀어주지 못하는 공회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오늘 온종일 나는 헛바퀴를 돌린 운전사가 아니었는가. 내가 오늘 온종일 실어나른 세탕의 짐은 가고오는 그 길들에서 필순이가 떠밀어 주고 중대장이 이끌어주어 성실한 생활과 참된 생활에 실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억찬이는 목말우에서 마구 뛰어내리기라도 하고 싶었다. 더는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중대장동지! 날, 날 내려봐주십시오!》

억찬이는 저으기 목이 메여 말을 더듬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억찬이를 목말에 태운 중대장은 꺾꺾 웃으며 어깨만 우썩우썩 추켜올린다.

《중대장동지! 어서요.》

그날밤.

억찬이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밤깊도록 창가에 서 있었다. 유아등불빛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필순이와 중대장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머느리감 필순이를 만나보자고 두메산골 먼먼 평북도 벽동에서 온다는 그 어머니가 지난봄 남포로 가던 길에서 만나 자기에게 거울을 주던 그 할머니며, 그가 바로 안평선이의 어머니라는 것은 더욱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열아홉살, 아니 사회생활에 첫 발자국을 내딛고 오늘까지 살아온 그 짧은 지난날의 생활을 두고 그리고 한생을 살아가야 할 먼먼 래일을 두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 밤은 억찬이에게 생각 많은 밤이었다.

대오여 앞으로!

차영도

지금은 그 어데 있느냐
어데서 무엇을 하고있느냐
때없이 그네들이 보고싶어
사진첩을 펼치니
그립구나, 못잊을 나의 답사대오여

인상도 깊었던 나팔수동무여
그날처럼 또 나팔을 불어주렴
백두밀림에 정렬하던 그 대오속에
내 다시금 발끝 맞추며 들어서고싶구나!

대오앞에 나뭇기던 붉은 기발이여
다시한번 걷고싶다, 너를 머리우에 휘날리며
밀영의 그 습기찬 오솔길을
들쭉 많던 대홍단의 그 진펄길을

힘은 겨웠어도
우리는 웃으며 행군했지
건창에서 배개봉
배개봉에서 무포...

비내리던 곤장덕 그 숲속길은
또 얼마나 노래높이 걸어갔던가
어데선가 문득 마주오는듯
그날의 유격대오 엄숙히 우러르며

모든게 정답고 그립구나!
투사들이 쉬여간 청봉의 그 이깔숲
전적지마을에 피여오르던
그 푸릿한 저녁연기

아, 행군의 실참
우리 땀젖은 배낭우에 등을 기대고
머리 들어 바라보던 백두의 푸른하늘이여
그것은 투사들이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웃으며 바라보던 조국의 하늘이 아니었던가

하나의 풀잎에서도
하나의 구호목에서도
우리가 받아안은것
세대가 넘겨받은것

그 모든것이 만약
가장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한마음 장군님만을 우리러따른 투사들이
백두의 봉이마다, 백두의 바위마다
피로써 남긴 숨결이 아니었다면

오, 백두의 답사나날은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추억속에
이리도 소중한 안겨지진 못했으리

정다운 동무들
못잊을 나의 벗들아!
우리 얼마나 궁지에 넘쳐
백두산 답사행군의 걸음을 옮긴것인가

나와 늘 배개나란히 늪던 탄전의 친구여
그대에게도 투사들의 자욱을 따라
백두밀림을 걸어본 그 자랑이 있기에
나는 믿고싶다
그대가 오늘도 밀어낸 그 엄청난 탄충이
저녁총화에 놀라운 기적으로 평가되리란것을!

부디 믿고싶다!
비에 젖은 한겹의 사령부천막가에서
그리도 발걸음 떼지 못하던 선반공처녀야
네가 오늘도 무득히 깎아놓은
그 많은 제품은
그날에 다진 너의 맹세였으리

동무여
정녕 우리 어데서 무엇을 하건 좋다
하나 굳이 이것만은 잊지 말자
우리는 영광의 전적지를 걸은 사람

우리 비록 한장의 사진속에
대오를 남기고 헤어졌어도
언제나 이 대오속에 함께 살자
함께 살며 언제나 백두를 걷자
오, 못잊을 나의 답사대오여
대오여, 앞으로!

꽃분이의 노래

김기호

극장이 떠나갈듯
우뢰치는 박수소리 환호소리
막은 열번 내렸다가
열번 다시 오르고

향기그윽한 꽃들은 설레이며
꽃분이가슴에 안기고 또 안기고

이국땅 그 모든 꽃들이
이 순간을 위해 피었던가
꽃물결에 싸여 웃고있는
꽃분이를 부여안고
사람들은 감격에 흐느끼고있어라

어제날엔
눈물젖은 꽃을 사래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던 그 신세
그것은 그대로
온종일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다
해저무는 길가에 허기져 쓰러지던
그네들의 슬픔이런가

눈물로 가슴을 적시고
땀으로 주먹을 적시며
그날의 꽃분이마음이 되어
몸부림치던 그들의 심장속에
아, 눈부시게 비쳐든 태양의 빛발

두터운 압제의 구름장에 가리워
이 세상 누구도 모르고
이 세상 누구도 볼수 없었던
인간의 존재를
벌처럼 빛내여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이여!

찬란한 그 빛발아래
연약하던 꽃분이가
원한의 세상을 들부시는

무서운 힘을 지닌 존재
참다운 인간의 꽃송이로 피어났고

은혜로는 당의 손길아래
혁명가극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장엄한 인간송가로
애수와 비애 속에 꺼져가던
인류가극사의 새 막을 올린것이 아닌가

꽃분이 꽃분이
어제날 천대받던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된 새시대가 왔다고
국경과 대륙을 넘어
자본의 안개질은 기슭에
혁명의 꽃씨앗을 뿌려가던 처녀

그 어느곳
어느 거리에 가도
이슬젖은 꽃 한송이 팔수 없던 그가
오늘은 온갖 꽃들을 다 받아안으며
이 세상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앞에
인간자주의 승리를 선포하거니
참다운 삶을 노래하거니

설레이는 꽃바다
파도치는 장내
꽃분이의 운명에서
자기 인민의 어제와 래일을 보며
가슴 헤쳐 환호하는 사람들

아, 위대한 주체의 빛발을 따라
꽃분이처럼
자기 힘 자기 손으로
인간의 모든 행복 모든 희망
하늘땅에 꽃피가는 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설레인다
온 세상이 설레인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쵸아문예사조의 반동적본질과 그 해독성

김하명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이 미일제국주의의 2중주구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측되어있는것처럼 그것을 반영하고있는 문화분야도 극도로 퇴폐타락한 반동적인 외래부르쵸아문예사조의 란무장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의 엄중한 후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화적침투는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정책의 주되는 수법의 하나로써 해외침략의 길잡이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화적침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며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부화타락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날뛰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는 그 뚜렷한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파산의 선고를 받은 《아시아정책》을 수습해보려고 《원조》, 《문화교류》 등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한 기만수법으로 문화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을 서두르는 한편 역시 《원조자》의 가면을 쓰고 사상문화적침투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일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문화적침투에서 반동적부르쵸아문예사조들과 반동문예작품들을 끌어들여 전파시키는데 각별히 큰 힘을 넣고있다.

그것은 놈들이 그 어느 사회적의식형태보다도 광범한 대중에게 주는 사상정서적감화력이 큰 문학예술을 침략야욕의 실현에 악용하고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프랑스, 서독, 영국 등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류행되고있는 각양각색의 반동부르쵸아문예사조들이 《신비평》이요 무슨 《미학》이요 하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출판보도물과 대학강당 등 각이한 경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흘러들어 널리 퍼지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 극히 해독적인 작용을 하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하고있는 반동부르쵸아문예사조들은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지고 《새것》을 표방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본질에 있어서 인생의 허무를 고취하면서 문학예술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것을 반대하며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거부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가령 미국에서 60년대이후에 류행한 이른바 《신허무주의》나 《부조리파》로 불리우는 류파들이 일정한 형식속에 일정한 내용을 담은전통적문학예술양식이 《부조리와 허무가 지배하는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내용이 없이 《순전한 형식, 스펀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산문양식》을 창조해야 한다느니,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그자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반어, 역설 등 표현수법을 다 동원하여 《현대의 허무와 부조리에 대응하는 새로운 의식구조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느니 하고 떠벌이고있는것은 그러한 실례이다.

일본에서 독점자본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반동적부르쵸아문예사조의 경우도 이에서 레외로 되어있지 않다.

일본에는 《현대산업사회의 특질》의 문학적반영이라고 하면서 《존재의 문학》이요, 《속명론》이요 하는 비판주의적이며 반사실주의적인 류파들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남조선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스며들었다. 《존재의 문학》이라는것은 《문학의 내면화로의 길》이라느니 《〈앙가저망〉(현실참여)의 문학으로부터 〈데가저망〉(현실리탈)의 문학으로》 가야 한다느니 하고 주장하고있는 극단한 주관관념론에 기초한 문학이다. 그리고 최근년간 일본에서 지진, 한랭전선의 영향에 의한 이상기후현상, 《미나마다병》을 비롯한 공해현상으로부터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생존에 대한 불안이 널리 퍼지고 나아가서 인류 그자체의 파멸이 멀지 않다는 이른바 《종말론》까지 떠돌게 되었는데 그것을 반영하여 나온것이 《속명론》문학사조이다.

《존재의 문학》이나 《속명론》문학의 반동적본질은 그것이 인민들에게 들켜워지는 불행과 재난의 사회적근원을 가리우고 사람들속에 불안과 현실도피, 자포자기, 허무주의를 고취한다는데 있다.

남조선에 최근년간 침투되어 민족문화발전에 이렇게나 저렇게 악영향을 미치고있는 반동부르쵸아 문예사조로서 또한 프랑스의 문예비평분야에서 1960년대이후 주류를 이루고있는 이른바 《신비평》을 들수 있다.

《신비평》이란 하나의 류파인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구비평》을 반대하여 나온 여러가지 종류의 문예비평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반동적인 프로이트주의에 바탕을 둔 《심리학적비평》, 《실존주의 비평》, 《사회학적비평》, 《구조주의 비평》 등이다 《신비평》으로 불리워지고있는데 거기서 《구조주의비평》이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구조주의비평》은 반동적인 구조주의언어학의 방법을 문예학분야에 도입한 극단적인 형식주의 문예비평이다. 그들은 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문학평가의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작품에서 언어가 《정언하계》 쓰이고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데 문예비평의 기능이 있다고 떠벌이고있다.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년간 남조선에 새로 침투하여 영향을 미치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반동적부르조아문예사조들은 그 이름을 어떻게 붙였든 모두 주관관념론철학에 바탕을 둔 반사실주의, 형식주의 미학이며 지난시기부터 판을 치고있는 프로이트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의 변종들이다.

결국 오늘도 남조선문학계에서 의연히 지배적인 사조로 되고있는것은 프로이트주의, 실존주의, 모더니즘의 제 류파들이며 그것을 창작수법의 견지에서 크게 자연주의와 형식주의로 갈라볼수 있다.

자연주의는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를 《사상리론적기조》로 하고있는 색정주의문학에서 지배적인 창작수법으로 되고있으며 형식주의는 모더니즘문학의 이러저러한 류파들에서 주되는 창작수법으로 되고있다.

그러면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이 부르조아문예 사조들의 반동적본질은 어데 있는가.

실존주의는 8.15해방후 남조선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반동적문예사조의 하나이며 창작분야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실존주의의 반동적본질은 극단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 비판주의에 대한 설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그 《창시자》로 알려져있는 단마르크의 반동철학가 케르케골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계자들인 야스퍼스, 하이데카 등에 의하여 전파된 실존주의철학이 주장하는것은 《어쩔수 없이 생존하고있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이상도 없고》 《무목적, 무근거, 부조리, 허무, 고독, 불안》 같은것이 실존의 속성으로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실존주의철학에 사상적바탕을 두고있는 실존주의문학은 제2차세계대전후에 와서 프랑스 반동문학의 지배적인 조류로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나라들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남조선에도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의 일환으로서 8.15해방후에 스며 돌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싸르뜨르, 까뮈 등의 작품들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반동문학계를 휩쓸게 되었다. 이른바 《전후파》로 불리우는 반동작가들은 《본격문학》을 한다고 떠벌이면서 결국 실존주의문학을 폐찬하고 선전하였다.

남조선의 한 반동평론가는 《본격문학》이 앞으로 개척할 영역이 《심각성의 추구하고 비극의 심화》에 있다고 하면서 그의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서 《은 지구우에 뒤덮여있는 초조와 불안과 공포와 살륙과 처참한 장면 등이 인간의 정신상태를 극도로 마비시킴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극제와 비극의 심화 없이는 독자들에게 도저히 감명을 끼칠수 없다는것》이라고 썼다.

남조선의 실존주의문학은 인생의 《무의미성》과 인간활동의 《무목적성》을 고취하며 그것을 세계와 인생의 《부조리》, 현대인이 처하여있는 《극한상황》에 대한 설교와 결부시키고있다.

그들이 말하는 《상황》이란 인간이 살고있는 현실적환경의 전체계를 의미하는데 피할수도 없고 변혁할수도 없고 돌파할수도 없는것이 《절대적상황》, 《극한상황》이다. 그들은 이러한 전체 밑에서 인간은 현대에 이르러 《극한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극한상황》속에 놓여있는 현대인에게는 오직 《죽음》에로의 길이 있을뿐이라고 떠벌이고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실존주의작가들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이상이 없는 인간들, 불구화되고 부패타락한 인간들을 《부조리》의 세계, 《극한상황》속에 몰아넣고 그러한 강요된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든 할수없는 숙명적인것으로 묘사하며 인생의 《불안》과 《고독》, 《허무》와 《절망》을 강조하고있으며 죽음을 설교하고있다. 이로부터 실존주의는 향락주의의 설교를 동반하게 되며 향락주의로부터 온갖 폐륜패덕과 몸서리치는 범죄행위를 찬미하는데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된다.

보는바와 같이 실존주의문학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은 인생의 《절망》과 《허무》를 고취하면서 남조선에 심각한 경제적위기와 사회적혼란을 가져오게 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는데 있다.

프로이트주의는 미제가 침투시킨 남조선부르조아반동문학의 또하나의 주요한 사조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시기부터 프로이트주의를 퍼뜨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세기말에 오스트리아의 정신병학자인 프로이트에 의하여 제창된 관념론적심리학설인 정신분석학은 20세기초에 미국에서 독점자본의 리익에 맞게 가공되어 미제의 해외침략과 략탈을 위한 사상적무기로써 세계 자본주의나라들과 예속국가들에 대대적으로 역수출되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서 《...해방후 특히 6.25이후 외국 그중에서도 브로이드의 철학이 미국처럼 모든 과학과 문화부문에 가장 많이 침투해있는 나라와의 문화적교류가 심해짐에 따라 우리 나라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홍수가 닥쳐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쓴것만 보아도 남조선에 프로이트주의가 얼마나 널리 침투되어있는가 하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다.

프로이트주의의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은 그것이 인간행동의 원동력은 《잠재의식》에 있고 《잠재의식》의 주요내용을 이루는것은 《리비도》 즉 성적욕망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몸서리치는 패륜패덕과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기초하고있는 프로이트주의미학은 예술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현실의 반영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무의식, 즉 성적욕망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한

프로이트주의신봉자는 과거의 이름있는 예술가들이 《실제적인 현실에서 그들의 성적요구의 완전한 만족을 성취하지 못한 결과 창조적환상에 호소하였던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예술작품을 모독하였다. 프로이트주의의 극악한 반동성은 고대그리스의 신화에 있는 에디퍼스가 자기의 부모인줄을 모르고 아버지와 싸워서 죽인후 그의 아내 즉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였다는 이야기로부터

《에디퍼스 콤플렉스 <관념>》라는것을 조작해내고 그것을 인간의 본성인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근친상간을 고취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오늘 남조선문학의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극도의 부패타락은 이러한 프로이트주의침투의 후파가 얼마나 심각한것인가를 실증해주고있다.

모더니즘은 남조선에서 퇴폐적인 형식주의문학의 주도적인 흐름을 이루고있다.

모더니즘은 일정한 문학사조를 특징짓는 고유한 사상미학적특성을 가지고있지 않고 20세기에 들어 와서 특히는 제1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나타난 여러가지 부르조아형식주의문예조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고있다.

다시말하면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상징주의, 주지주의, 《의식의 흐름》, 《반소설》 등을 비롯하여 이른바 《현대적인것》을 표방하여나선 퇴폐적인 부르조아형식주의미학의 잡다한 사조와 류파들이 다 포함된다. 그중 남조선에 침투하여 주되는 사조적현상을 이루고있는것은 주지주의, 초현실주의이다.

주지주의문학론의 형식주의적본질은 무엇보다도 작가와 그가 창작한 작품을 분리시켜 고립적으로 고찰하면서 사상적내용을 부정하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주지주의의 시조인 엘리오프트는 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것을 반대하면서 《형식의 참신성》, 《선물적인 언어의 적절한 배합》만이 시의 미학적 가치를 규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였으며 시인은 자기외의 어떤 사람이 자기 시를 리해하건 말건 관여할바가 아니라고 떠벌이었다.

이러한 반인민적견해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주지주의시문학의 난해성이 흘러나오게 된다. 주지주의-모더니즘시인들은 시창작에서 《지성》을 존중하고 《시각적이미지》를 존중한다고 떠들면서 까다로운 어휘, 애매몽롱한 상징적표현, 리해

하기 어려운 비유법 등 문법적규범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라렬함으로써 시를 전혀 리해할수 없게 만들고있다.

모더니즘의 주되는 문예사조의 하나인 초현실주의는 남조선부르조아시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현실주의의 형식주의적본질은 예술창작의 원천을 《무의식》에서 찾으며 《꿈》, 《환각》 등을 표현할데 대하여 떠들면서 창작에서 리성적사고와 생활체험의 의의를 거부하며 객관적현실에 대한 반영을 반대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모든 통제와 일체의 미학적 및 료리적 선입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자동기술법》이라는것은 작가의 사회미학적리상과 현실체험을 떠나서 인간들의 《무의식》의 세계에 숨어있다고 하는 이른바 《심오한 진실》을 생활의 론리를 무시하고 생각나는대로 기록한다는 극단한 반사실주의적수법이다.

남조선의 한 반동시인이 현대를 《이미지의 시대》라고 하면서 현실생활을 반영하는 사실주의시문학을 《시자체의 순수한 자주성》이 없어진것으로 비방중상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을 가능하게 하는 《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면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에 눈을 돌려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헌신하여야 하겠다》고 초현실주의를 극구 찬양하는데서 그 례를 볼수 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부르조아문예사조들은 마치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내놓고있는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문학의 인식교양적기능을 거부하며 남조선의 부패타락한 사회현실을 합리화하고 인생의 고독과 허무, 절망을 숙명적인것으로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패타락케 하는데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반동적부르조아문예사조의 또하나의 공통점은 《현대적감각》, 《현대적수법》 등의 구실밑에 민족적인 모든 아름다운것을 《낡은것》으로 부정하며 민족문화유산의 비판적계승과 민족적특성이 구현을 반대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반동부르조아문예사조들은 《본격문학》이요 《순수문학》이요 하는 탈을 쓰고 레외없이 《반공》 선전에 복무하고있다. 《반공》 선전의 앞장에서 군사파쑈도당의 개가 되어 꼬리를 흔드는자들이 모두 《순수문학》의 주장자들이며 《유미주의자》들이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오늘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반동적인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장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을 퍼뜨리기에 더욱더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과 술책을 쓰고있다.

그 주요한 술책의 하나가 신문들에서의 현상문을 통하여 신인작가들을 철저히 반동부르조아 문예사상으로 길들이는것이다. 다시말하면 현상모집의 방법으로 제놈들의 비위에 맞는 자연주의, 형식주의 문학을 추어올리고 몇푼의 돈부스레기를 상금의 명목으로 쥐여주어 제놈들의 사환군으로 만드느것이다.

놈들의 술책에 의하여 남조선의 일부 문학청년들은 이러한 퇴폐사조에 마취되어 흑백을 가릴수 없게 되어있으며 그러한 흥미한 의식을 가지고 퇴폐적인 문학작품을 만들어내고있다.

1973년 남조선의 6개 중앙급신문에 당선된 6편의 단편소설을 분석해보면 놈들의 악랄한 술책이 문학을 얼마만큼 부패타락하게 만들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그 6편의 단편소설들은 등장인물들이 모두 병적 인간들이고 기이하고 퇴폐적인 이야기들로 줄거리가 엮여져있으며 건전한 미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구역질이 나서 견딜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인것에서 그 어떤 《미》를 찾고있다. 6편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 20명중에서 정신이 비정상적인 자가 8명, 육체와 정신이 다 병든자가 2명이다.

그리고 이 주요인물들중에서 사건의 발전과 함께 죽게 되는것이 8명이나 되는데 그나마 거의가 자살이다.

다음으로 이 여섯 작품중에서 취급하고있는 사건들은 거의가 다 평범한 인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동떨어진 으스스하고 구석진데서 벌어지고 있다.

《밀실》, 조선농촌답지 않은 색다른 시골, 괴이한 산중의 절간 등이 병든 주인공들의 무대이다. 이와 같이 병든 인간들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벌어지고있는 사건들이 또한 정상적인것으로 될수가 없다.

남조선의 한 평론가는 이러한 사태를 두고 《왜 이들 주인공들의 절반이 병들었고 무의미하게 죽어가야 하며 살벌한 사건이 전개되며 잔인한 리기주의자로 변하게 되었는가, 작년보다도 더하다. 그전보다도 더 다르다. 왜 점점 주인공들이 기형화되어가며 비인간화되어가는가.》라고 개탄하였다.

그 해답을 다른데서 찾을것이 없다. 그것은 바로 침략자 미제가 남조선에 문학예술의 《현대화》를 강요하면서 썩을대로 썩은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을 끌어들여 사회를 극도로 부패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로 만들었기때문이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남조선문학계에 퇴폐사조를 침투시키고 그것을 더욱 조장시키기 위한 악랄한 술책을 쓰고있는 또하나의 실례로서 《동인문학상》이나 《리상문학상》과 같은 이른바 《상금제도》의 설정을 들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김동인은 1920년대부터 자

연주위의 대표적작가로서 청년들을 부패타락시키는데서 앞장섰던 반동부르조아작가이다.

리상은 1930년대에 모더니즘문학사조를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반동부르조아작가의 한사람으로서 《9인회》의 성원이다.

그는 시분야에서 주지주의를 표방하여 《오감도》와 같은 누구도 알수 없는 난해시를 남겼고 소설분야에서 《날개》와 같은 《의식의 흐름》의 실험작품을 남겼다. 이런것으로 하여 그는 오늘 남조선 반동문학가들에 의하여 《최초의 현대문학적성격의 작가》로 떠받들리우고있다.

남조선의 한 반동평론가는 리상을 《한국현대문학의 시조》로 내세우면서 그 근거로 그의 문학이 《주지적성격》을 띠고있고 대표적인 난해시를 남겼다는것, 《리상이 그의 작품을 통하여 추구하고있는 세계가 의식의 세계이기보다는 무의식 또는 전의식의 세계》라는것, 《그 인물의 특이한 고독과, 생활과 생리가 말해주고있는》 《단독자》로 등장하고있다는것, 《시간의식 또는 공간의식이 전혀 무시되어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그 반동평론가가 리상을 조선에서 《최초의 현대문학적성격의 작가》라고 추어 올리는것은 그의 작품이 주지주의,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 등 현대반동부르조아문예사조의 결합체라는데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리상문학상》을 설정함으로써 젊은 작가들을 모두 리상을 닮아서 주지주의,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의 심취자로 만들며 그 독소로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정신을 마비시킬것을 노리고있는것이다.

제1회 《리상문학상》을 받은 소설 《서울의 달빛 0장》을 보아도 그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이 소설의 작자는 이미 1965년에 소설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으로 《동인문학상》을 받았는데 반동평론가들은 그의 소설이 《인간의 내밀성과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윤리적문제를 파헤치고 있는데 섹스를 모티브로 하여 사건을 발전시켜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밀도있는 독특한 문체로써 자의식의 세계를 전개시켜나가》는데 특징이 있다고 찬양하였다. 다시말하면 그의 소설은 바로 실존주의, 프로이트주의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작품인것으로 하여 평가되고있는것이다.

그자들이 《리상문학상》의 수상작품으로 《서울의 달빛 0장》을 선정한 리유로서 《현대의 도시문명속에서 변질되어가는 인간관계 특히 부부로서 상징되는 타자와의 단절을 통해서 고립된 인간의 자의식의 문제에 접근하고있》는 점을 들고 있는데서도 그것을 볼수 있다.

소설은 아무런 사회적리상도 인생의 목적도 없고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과 도덕규범을 상실한 정신적불구자의 녀두리를 늘어놓고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것에서 그 어떤 《문학적가치》를 찾고있는 바로 여기에 사멸의 선고를 받은 남조선 반동문학의 막다른 운명이 있는것이다.

지금 리상의 반동문학을 그 어떤 《규범》으로 추어올림으로써 남조선의 문학계와 사회풍조에 얼마나 엄청난 해독을 끼치고있는가를 1977년도 남조선문학의 《대표작》으로 선정된 8편중에서 3편이 직접 리상의 문학과 관련되어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소설 《침묵》(《문학사상》 7호), 《드레박을 올려라》(《문학사상》 2호)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된 《서울의 달빛 0장》이 바로 그러한 작품이다.

소설 《침묵》은 리상의 시 《오감도》속의 《시제 12호》에서 한 구절을 따서 두번 반복하고있으며 리상의 수필 《권태》의 사상을 소설화하고있다. 아파트촌에서 몇몇 아이들이 햇병아리를 사서 옥상에서 던져 사느냐 죽느냐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기본줄거리로 되어있다.

아이들이 아파트에 찾아온 장사꾼에게서 병아리를 사서 옥상에서 던질내기를 하였는데 병아리는 모두 빠드러져 죽었다. 그들은 그것으로 성 차지 않아 택시를 타고 가서 병아리를 사다가 다시 던졌는데 역시 모두 빠드러져 죽었다.

한 소녀만이 병아리를 던지지 않고 가지고있었다. 이때에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것을 본 사내아이들이 미친듯이 소녀에게 달려들어 병아리를 빼앗아 잔인하게 찢어서 밟아죽이고만다.

남조선의 평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보여주는것으로써 이 작품에다 그 어떤 《문학사적의의》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의 《무목적》, 《무의미성》을 설교하는 무내용적이고 무사상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것으로서 문학사적으로 그 어떤 의의도 가질수 없다는데 대하여 구태여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소설 《드레박을 올려라》는 리상의 소설 《날개》를 그대로 모방한것이다.

《누가 우물밑바닥에 내려가 본 사람이 있는가》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이유없이 집을 나간 한 대학생이 도서관에서 남의 지갑을 《절묘하게》 훔치는 녀대생을 골라잡아 《우물보다 낮은 방》에서 동서생활을 하는 썩어빠진 이야기가 기본줄거리로 되어있다. 그 녀 주인공이 락태하기 위하여 무수한 알약을 먹는것은 리상의 《날개》에서 안해가 주인공 《나》에게 강요하는 아날긴(수면제)에 대응하는것으로 평론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남조선에 침투한 반동부르조아문예사조의 해독성은 이처럼 창작에서 인간의 고독과 인생의 허무, 앞길에 막힌 절망감과 비극을 고취하며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규범을 무시한 변태적인 성적방종의 자연주의적묘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많은 경우 프로이트주의, 실존주의와 같은 반동 부르조아문예사조들이 뒤범벅이 되어있으며 문학 전반이 깊이 병들고있다. 이만큼 남조선 반동부르조아문학은 더는 헤여날길 없는 부패타락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있는것이다.

그러나 탄압이 있는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에서는 노동계급이 일

정하게 장성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것과 함께 투쟁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진보적문학의 진출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그러한 움직임을 《70년대작가》로 불러우는 신인작가, 평론가들의 활동에서 볼수 있다.

《70년대작가》들은 조국통일문제, 노동자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주제분야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조국통일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남조선의 한 평론가가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60년대가 쌓아올린 토대에서 새 모습을 보여주고있》는데 《그것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생긴 비극을 치절하게 보여줌으로써 통일에의 열망을 유도해내려는 형식을 취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외신이 광주인민봉기때에 남조선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군사과쑈도당의 야수적만행으로 희생당한 동료들의 시체를 옮겨가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겨레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는 노래를 부르며 대하여 한 목격자의 증언을 전한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지향은 시로도, 소설로도 반영되고있다.

《70년대작가》들이 주로 관심을 보인 또 하나의 문제, 《사회적부조리》에 대한 비판문제를 류형별로 나누어보면 경제적빈부현상을 파헤치면서 노동자, 농민 등 서민-가난한 인민들의 생활을 그린것, 정치적권력의 횡포에 대결하려고 하는 체제고발문학, 《근대화》의 추진속에서 침식되어가는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와 사회풍조에 대한 비판 등을 들수 있다.

시 《5적》, 《비어》 등으로 미제침략자의 주구 남조선군사과쑈도당의 반인민적죄행을 날카롭게 폭로단죄한 저항시인 김지하의 활동만을 보아도 남조선에 대두하고있는 진보적문학의 동향을 짐작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70년대작가》들의 작품이 혁명적 문학으로서의 풍격을 다 갖추었다든가, 남조선사회 독자들이 모두 건전한 미의식을 가지고 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가치를 정확하게 가려낼수 있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의미에서의 진보이며 발전일따름이다.

미제가 침식시킨 반동부르조아문예사조가 문학 분야에 끼친 해독은 너무도 심각한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영생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에서 훌륭히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것과 함께 미일제국주의와 남조선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대하여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그 반동적본질과 해독성을 날카롭게 폭로비판하여 놈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철저히 분쇄해버려야 할것이다.

막내딸

리인철

《여보!》

윤덕만은 현관문을 열자바람으로 여느때없이 밝고 호기있는 목소리로 안해를 불렀다.

《네-》

저녁차비하던 마누라가 현관으로 마중나왔다.

《맥주 한병 가져오우.》

덕만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양복저고리를 벗어 들고 응접실로 들어가는것이였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어서 맥주나 가져오우.》

마누라는 멍하니 선채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보았다.

오늘 조반도 설치고 우울한 표정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였다.

요새 불경기바람에 빠짱 꼬장사가 매달 적자를 내고있어 월말이 가까와지면 늘 은행에 갚을 돈을 만들기 위하여 걱정이 많은 남편이다.

《대체 무슨 일이요?》

방안에 들어온 마누라는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하였다.

덕만은 한고뿌를 단숨에 들이마시고 《야, 시원하다.》 하면서 입술을 닦았다.

덕만의 얼굴에는 잔주름이 많아졌고 머리도 반백이 되였다.

《좋은 혼처가 생겼단말이요.》

마누라는 맥주를 따라주던 손을 갑작스레 멈추었다.

《뭐 혼처요?!》

《그래, 채순이도 이젠 스물네살인데 서둘러야지...》

《글쎄요...》

마누라는 말을 얼버무렸다.

《들어보라구, 이달에두 별수 있나. 그 사돈한테 구차한 소릴 할수밖에... 그래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잘되었다고 하면서 의논할게 있으니 거기로와 달라는거야.》

그 사돈이란 딸딸 미순의 시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다.

5년전에 딸딸이 큰 회사를 경영하는 상공인네 집에 시집갔는데 덕만은 그 사돈령감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빠짱 꼬점을 차려놓을수 있

었던것이다. 그후에도 불경기때문에 몇번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방조를 받군한 말하자면 은인인것이다.

그 사돈이 셋째딸 채순의 중매를 서겠다는것이 다. 그 상대자는 이미 장사거재를 해온 잘 아는 큰 상공인의 아들인데 법정대학 농업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집일을 돕고있는 서른살의 유망한 청년이라는것이였다.

말을 들으니 그럴듯하고 사진을 보아도 괜찮은 것 같아 덕만은 쾌히 응하였다.

《사돈이 이달에도 이백만원을 리자없이 빌려주겠다는구만. 참 고마운 사람이지, 채순의 결혼문제까지 걱정해주니...》

《도와준다고 너무 신세를 지지 마시우. 나중엔 그제 다 신세갚음을 해야 할 빛이 된다우.》

《이번 고비를 넘기면 퍼일것 같소. 그건 그렇고 이번 혼담을 어떻게나 성사시킵시다. 채순이도 언제까지 그 청년학교 강사란걸 시킬수는 없잖소. 그래서 래일 맞선보도록 약속했소.》

《래일요?!》

《그래, 이런 일은 빠를수록 좋지.》

덕만이는 안주머니에서 총각의 사진을 꺼내여 안해앞에 내놓았다.

마누라는 사진을 보지도 않고 거북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아니 왜 그러오? 뭐가 마음에 안드오?》

덕만이는 담배불을 불이려다 말고 말하였다.

《저...》

《아, 막내이를 그냥 끼고있고싶어 그러는게지.》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담배불을 불이고는 말을 이었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찌겠소.》

마누라는 딱한듯이 말하였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요.》

《그럼?》

《그러지 않아두 당신한테 말할가 했는데... 그 앤... 제가 정한 사람이 있대요.》

《뭐?!》

덕만은 눈을 부릅뜨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안해의 말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버락이였다.

《정한 사람? 그게 무슨 말이요?》

덕만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불부는 소리로 계속 하였다.

《나한테 의논도 없이 정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래 당신은 언제 알았소,》

《일주일전에 채순이가 웬 청년하고 같이 가는 걸 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날저녁 채순이한테 웬 청년인가 물었더니 그런 말을 합디다.》

막내딸 채순이가 《정한 사람》이란 총련 사지부 사업을 보는 스물아홉살난 강영식이라고 하는 조선대학교 졸업생이었다.

그들은 바로 초청사업을 같이 하는 과정에 사랑이 맺어진 것이었다.

《나도 좀 알아보니 동포들속에서 아주 신망이 높아서 사랑을 받고있는 모양입니다.》

덕만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담배만 껍썩 피우고 있었다.

채순이가 부모들과 의논도 없이 제멋대로 대상자를 정했다는데는 참을수 없이 화가 났다. 특별히 사랑하는 막내딸만은 자기가 좋은 혼처를 구해 시집보내자고 버르고있었는데 그 딸한테서 배반당한것만 같았다. 자기를 이처럼 난처하게 만든 딸이 패씸하기도 했다.

(사돈이 제기한 혼처는 어떡한다? 이런 사정은 모르고 허덕 맞선볼 날까까지 정해놔으니...)

덕만이는 말없이 가슴만 풀떡이고있는데 《다녀왔습니다.》 하는 채순의 가냘픈 소리가 들렸다.

《채순아, 여기 와 앉아라.》

덕만은 노기띤 소리로 딸을 불렀다.

무슨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촉한 채순은 말없이 아버지앞에 조심히 앉았다.

덕만은 엄한 눈길로 채순이를 한동안 노려보다가 은근하면서도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자 네 에미한테 들었다만 뭐 네 마음대로 상대자를 정했다고?...》

《.....》

채순이는 언제고 아버지한테 톡톡히 꾸중을 들을것을 각오하고있었지만 정작 당하고보니 당황해져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채순아, 넌 언제부터 버릇이 꺾혀졌니? 인륜대사를 부모와 의논도 없이 정해. 그따위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단말이나. 응!》

덕만이는 분기가 치미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아직 어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숨소리가 높은것으로 보아 얼마나 성이 났는가를 채순이는 알수 있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구 했는데...》

채순이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끝을 흐리었다.

《일은 저희끼리 다 정해놓고나서 말은 해 뭘해, 나는 승인할수 없다. 짝 건너치워라!》

덕만이는 담배에 불을 붙여 뻑뻑 빨았다.

《내가 보니 그 청년이 생기기도 괜찮게 생기고 또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답디다.》

어머니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당자가 좋다는데 부모가 강압적으로 파탄시킬수야 없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조심스레 말했다.

《뭐라고? 에미라는게 저러니 애들의 버릇을 꺾어놓거던. 남의 처녀들이나 꼬이려드는 녀석이 변변하게 뭐야.》

그러자 채순이는 자기 대상자를 알아보지도 않고 나쁘게 평가하는데 참을수 없어 말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 청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오래동안 조선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시다가 4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너맹일군으로 사업하시다가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 어머니 뒤를 이어 총련사업에 모든것을 다바쳐 일하는 성실한 동무입니다.》

《듣기 싫다. 벌써부터 총각놈의 편역을 들어! 그리고 뭐 고아야? 안된다 안돼.》

덕만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나서 채 타지도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 말을 이었다.

《네 둘째언니를 보고도 그런 꼴이 되고싶으냐. 밤낮 돈이 없어서 집세요, 전기사용료요 하고 우는소리 하고 다니는걸... 네 큰언니를 봐라.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너한테도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졌다. 오늘 네 맏언니 시아버지가 좋은 상대자가 있으니 네 중매를 서겠다고 했다. 큰 기업을 하는 상공인의 아들인데 법정대학을 졸업하고 지기 아버지일을 돕고있단다. 나이는 서른살이고... 래일 맞선 보기로 했다. 그러니 판생각 말고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해라.》

덕만이는 마지막 말을 아버지의 권위로서 명령조로 힘주어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그 견해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가야 행복하다는 그 견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맏언니는 행복한 것으로 보시고 둘째언닌 불행한것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맏언니가 결코 행복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전 그렇게는 살고싶지 않습니다.》

채순이는 엄한 아버지앞이지만 아버지의 그릇된 견해를 온순히 받아들일수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맏언니네 집에 몇번 가본것을 회상하면서 말한것이다.

맏언니 미순이는 하는일없이 아이를 끼고 낮잠이나 자고 남편에게 곱게 보이기 위해 미장원에

나 다니고 남편앞에서는 뽀뽀 하며 아양이나 떠는 것이다. 채순이는 그 언니를 보고 저렇게 살아서야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완전히 남편의 예속물로 되고있는것이 보기가 역겨웠던 것이다.

《뭐 내 견해가 어쨌다고? 건방진 소리 말아! 네가 알면 뭘 안다고, 주둥아리만 까가지고. 계집애 배려먹었거든, 학교졸업후 나돌아다니더니...》

덕만은 채순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 큰소리로 꾸짖었다. 그는 마누라에게 화풀이하듯 말했다.

《맥주나 좀 따르라구.》

덕만은 맥주고뿌를 단숨에 기울여 마시고나서 채순이를 노려보다가 좀 누그러진 소리로 말했다.

《너는 세상을 알려면 멀었어. 고이 자라 학교에나 다니구 고생을 못해봤으니까. 네 말언니가 행복하지 않고 작은언니가 좋은것으로 보는것부터 철부지소리야. 여기는 일본이야. 돈없는이 못사는 세상이야... 그 집하고 우리 집이 대비가 되느냐. 짝이 기울어도 어방없이 기울지.》

덕만은 여기서 말을 끊고 또 따라주는 맥주를 마셨다.

《아버지, 짝이 기울다는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혼문제는 사람문젠데 돈을 가지고 짝이 기울고 어찌고 할수 없잖아요.》

《돈으로 규정해야지 뭘로 하겠니. 여기서는 돈가지고 모든걸 해결해. 그런데 너같이 고생을 못해본게 돈없는 살림을 해나갈듯싶냐? 애국사업 할라, 부업을 할라, 아이나 낳으면 아이 시중들라 네가 그 고생을 해낼것 같으냐? 밤낮 우는소리나 하며 집에 찾아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겠니. 광순이처럼...》

《아버지, 광순언니 집에 와서 돈달란 일이 없었어요. 그 언니가 언제 아버지한테 돈달란 일이 있었어요?》

채순이가 말했다.

《나한테 달라고 한일은 없다만 제어미한테서 얻어가곤하겠지.》

《령감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우. 그 앤 나한테도 그런 말 한 일이 없수다. 이따금 어린것들 웃가지라도 사가지구 가면 그런건 뭘 사오는가고, 자기네 살림에 대해 걱정안해도 된다고 합디다.》

마누라가 하는 말이다.

덕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철없는것이 사랑에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장래를 생각못하는 채순의 마음을 돌려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넌 사랑이요, 뭘요 들떠다니다가 일생을 망친 너자들을 보지 못했니.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말고 아버지 하라는대로 해라. 어느 부모가 제자식

잘 살게 해주려고 하지 못살게 해주려 하겠니. 더우기 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만은 어떡하든지 행복하게 사는걸 보고싶은 내다. 그런 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네가 그럴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덕만의 말소리는 구슬프게까지 들리었다. 그리고나서 한마디 더 보냈다.

《상대자가 고아라니 더 안되겠다. 부모라도 있어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니 네가 광순이처럼 사는 꼴을 이 애비가 어떻게 보란말이나?》

채순이는 귀밑머리가 희끗희끗 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서 하는 말인것이다. 채순이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가슴이 찢르르해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눈먼 사랑의 포로가 될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심정은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저는 생활이 좀 곤란해도 값있게 살고싶어요. 그것은 보람있는 일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에게 얽매어 살고싶지 않습니다. 지어 남편한테도...》

덕만은 지금의 기분상태로써는 채순의 말을 이해할수도 없었지만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만큼 말하면 알아들을게지 끝내 고집이란말이나! 집안망할 자식같으니! 어디서 저따위자식을 자식이라고 길렀어!》

채순이는 발딱 일어나 뛰쳐나갔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아버지 울화나 돈구어줄뿐이고 욕박에 먹을것이 없었다. 그리고 자식의 의사는 무시하고 부모라는 립장에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아버지의 그 횡포성을 참을수 없었던것이다.

덕만이는 채순이가 뛰쳐나가자 더 화가 나서 큰소리로 웨쳤다.

《채순아! 썩 들어오지 못할가!》

그러나 채순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발소리만이 쿵쿵 들릴뿐.

덕만은 따라나갈듯 궁둥이를 들었다가 털썩 주저앉았다. 생각갈아서는 채순의 버릇을 톡 떼어 주고싶었으나 나이찬 딸에게 매질도 할수 없는 일이어서 할수없이 주저앉아 가슴만 풀떡거리고 있었다.

마누라가 보기에 딱해서 말했다.

《령감, 생나무껍듯 해가지고야 되겠어요. 차근 차근 타일러야지...》

《타이른다고 듣소!》

《내 가서 타일러보겠수다.》

마누라는 2층으로 올라갔다.

채순이는 눈물이 그렇게서 책상앞에 앉아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

었다. 채순이곁에 가았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성미를 잘 알면서도 왜 그러니? 맞대 놓고 반대를 하면 육박에 먹게 없지 않니. 래 일 맞선보러 가거라. 맞선을 본다고 혼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맞선을 보고 마음이 없으면 싫다고 하려무나. 그러면 아버지 체면도 서고...》

채순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아버지 체면이나 세워주자고 거짓행동을 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어머니한테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이 대답이 없자 자기 권고대로 하려는데 알고 아래로 내려왔다.

《내가 올라가 타이르니까 순순히 듣는걸 공연히 욕을 해서 토라지게 할게 뭐예요.》

마누라는 이렇게 말하며 평감을 나무랐다.

《그래, 맞선보러 가겠단가?》

《순순히 듣더라고 하지 않아요.》

덕만은 저으기 마음이 놓이였다.

이튿날아침에 일어나자 덕만은 채순을 찾았다. 오늘 맞선보는 준비랑 어떻게 하려는가 다짐도 해야겠다고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서 설겅이하는 마누라에게 물어보았다.

《그 애가 어디 갔소?》

《아마 미장원엘 간것 같아요.》

덕만은 속으로 만족하였다.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그는 자기 방에서 신문도 보고 책을 뒤적거리고있었다.

11시가 넘어도 채순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여보, 아직 안돌아왔소?》

《글쎄요. 미장원에 전화해볼가요.》

미장원에서는 그런 사람은 안왔다는것이였다.

덕만은 당황해졌다.

(설마 부모를 속일수야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불안감은 억제할수 없었다.

《여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셈이요?》

《아니 어제 타이르니까 가만히 듣던데...》

《뭐? 가만히 들었다는게 무슨 말이요. 푹푹히 확인을 안했단말이요?》

《글쎄 말없이 있기에...》

안해는 거북해하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빨리 어디 갔는지 알아보오.》

마누라는 지부사무소랑 동무네 집들이랑 아는 대로 전화해보았고 광순이한테도 알아봤는데 좀처럼 행방을 알수 없었다.

덕만은 진땀이 났다. 시계초침은 쉬임없이 달려가기만 하였다.

열한시반이다.

(열두시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야단났는데...)

덕만은 서둘러 사돈택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사돈령감이 전화를 받았다.

사돈령감은 기다렸다는듯 먼저 말했다.

《아, 사돈이요. 이제 떠나려던참이요. 어제 우리 머느리한테서 채순의 사진을 얻어가지구 그쪽에 가지고 갔더니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요. 하하...》

《저, 사돈님, 딱한 사정이... 실은 채순이가 갑자기 식중독을 일으켜 앓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것 같은데요.》

《뭐요?!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 몇시라고 그러오. 방금전에 저쪽에서 호텔로 떠난다고 하면서 빨리 오라는 전화가 왔는데.》

덕만은 며칠 연기해가지고 채순의 마음을 돌려 세워 맞선을 보게 하자고 타산하였는데 그 한가닥의 희망도 끊어졌다.

《사돈님, 참 이거 안됐습니다.》

《아니 그럼 미리 좀 알려줘야 할게 아니요.》

《의사를 불러온다 복아치면서 미쳐...》

《허, 일이 잘 안됐군. 인륜대사를 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오. 이제는 어쩌려겠소. 딱하게 됐는데...》

《저도 뜻밖의 일이라 당황해서 그만...》

덕만은 이렇게 얼버무리었다.

《할수 없군. 그럼 이제 빨리 호텔로 가서 사과나 합시다.》

마누라는 전화받는 옆에 서서 마음을 조이고있었다.

덕만은 급히 집을 뛰쳐나갔다.

큰거리까지 달려가 택시를 탔다. 일요일이라 거리가 비교적 붐비지 않아 빨리 달리고있었으나 운전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채촉하였다.

호텔의 널찍한 홀중간쯤에 사돈령감과 마주앉아있는 점잖아보이는 중년사나리와 하늬색양복을 입은 젊은이가 아마 회사 사장과 신랑감인 모양이였다.

덕만은 그쪽으로 갈념은 못하고 이마의 땀을 닦으며 복잡한 심정을 가라앉히려 했다.

덕만이가 서있는데로 사돈령감이 걸어왔다.

《아니, 여기서 뭘하고있소.》

《예, 지금 와닿은참입니다.》

《그런데 사돈,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리해가 안되거던, 혹시 다른 사정이 있는게 아니요?》

사돈령감은 덕만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덕만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얼버무리었다.

사돈령감은 눈치를 챘는지 어이없다는 눈길로 덕만을 보면서 말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니 내 체면이 뭐가 되오. 체면

뿐 아니라 사업에도 큰 손해를 보게 됐소. 사돈도 그렇고...》

덕만은 할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제는 할수 없소. 빨리 가서 그럴듯하게 사정이나 말해봅시다.》

사돈은 미간을 잔뜩 찌프려 본래 주름살이 많은 얼굴을 찡그리고 명령조로 말했다.

사돈은 덕만을 데리고 사장한테로 가서 소개시킨 다음 말하였다.

《하 글쎄 처녀가 오늘아침 갑자기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긴 요즘 식중독이 많은 계절이라 하지만... 그래서 의사를 불러온다 야단치다가 이제야 왔다는군요. 허탕을 친 우리도 심겁게 됐지만 신랑감을 못보게 된 처녀마음이야 더 안타깝겠지요.》

사돈은 능란하게 너스레를 섞어가며 말하였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걱정이겠습니다. 빨리 잘 치료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장의 말은 혼연히 리해하는것 같았으나 표정은 어딘가 쓰거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덕만이가 사장앞에 나서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한듯 말했다.

《이거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이 공교롭게 되어서...》

《사과까지 할게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병이 생긴거야 어찌는수 있습니까. 일없습니다.》

사장은 듣기 좋게 말하고나서 썩은밤을 씹은듯한 표정을 하고있는 아들을 보고 《애, 가자.》하며 일어섰다.

《그 병이 오래야 가겠습니까. 다 나오면 그때...》

덕만이가 이렇게 말하는것을 사돈이 가로채가지고 나섰다.

《사오일 지나면 일없겠지요. 그때 제가 다시 날을 정하고 만날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장은 그렇게 하자는 뜻인지 무슨 뜻인지 고개만 끄덕이고 코트를 벗겨입었다.

덕만은 사장한테 따라가서

《사장님, 이거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하고 사죄하였다.

《일없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장의 코트자락에서는 찬바람이 이는것 같았다.

사돈은 덕만에게 뜻있는 눈짓을 하고 사장의 뒤를 따라나갔다.

덕만은 긴숨을 내쉬고 손수건을 꺼내어 이마와 목덜미의 땀을 닦았다.

맥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덕만은 생각이 복잡하였다.

팔때문에 이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채순이를 그냥두고싶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배반을 당한 아픔과 분노를 참기 어려웠다. 이럴수 있단말인가? 그러나 지금의 채순이는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딸은 아니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달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한다. 이 일이 파탄되면 사돈을 쳐다볼수도 없지 않은가.)

그는 분노와 걱정이 뒤엉킨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니 채순은 아직 안보였다.

덕만이는 안해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지경이었다.

《집구석에서 밥만 먹고 딸자식 하나도 옮겨 키우지 못하고 뵈했소. 집안망신을 당하게-》

그는 마누라를 보자 버럭 화를 냈다.

《령감은 제 잘못으로 창피를 당하고 나한텐 왜 화풀일 하우.》

마누라도 같이 화를 냈다.

《뭐 내 잘못이라구?》

《령감 잘못이 아니고요. 이런 일이야 집안식구들과 의논이 맞아가지고 해야 할 일인데 령감 혼자 날자까지 정해놓고는 억지다짐으로 내려먹이려는 일이 될게 뭐요.》

덕만은 얼른 대답을 못하다가 큰소리로 말했다.

《그년이 제맘대로 정한건 잘못이 아니구 이 애비가 한 일은 잘못이란말야!》

《그러니 아버지도 딸도 다 잘못했구려. 그런데 나야 뭐 잘못된게 있대구 야단이요.》

덕만은 마누라 말이 어이가 없는듯 한참 노려보다가

《이년, 만나기만 해봐라. 다리깅일 분질러놓을테다.》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아침 덕만은 일어나자바람으로 채순이가 돌아왔는가를 안해에게 물었다.

아침동자를 하던 마누라가 말했다.

《어제 밤이 깊어서 광순이한테서 채순이가 거기와 잔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망할자식같은니. 이제 집에 영영 안들어올텐가.》

이렇게 말한 덕만은 채순이를 어떡하면 좋을가 생각하고있는데 전화종이 울렸다.

채순인가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채순이한테서가 아니라 사돈한테서 걸어왔다.

《그래 채순의 병은 좀 어떻소?》

《네, 그러그러합니다.》

덕만이는 달리 말할수 없어서 이렇게 굼뎠버리

였다. 사돈은 무엇을 생각하는듯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돈, 나한테 뭐 숨기는게 있지 않소. 집에 무슨 판일이 생긴게 아니요? 우리사이에야 숨길게 있소.》

《아니올시다. 숨기다니요. 판일이 없습니다.》

덕만이는 낮간지러우나 이렇게 말할수밖에 없었다.

《사돈, 잘 생각해서 일처리를 하소. 만약 이 일이 틀어지면 사돈도 나도 곤란하게 되오. 사실 까놓고 말하면 이 혼사가 이루어지면 나도 그 사장덕택으로 사업을 확장할수 있게 되오. 그러면 사돈도 나쁘게 없지 않소. 그대신 일이 틀어지면 내 계획이 파탄되는만큼 사돈을 도와줄 형편도 못되게 되오.》

《알겠습니다. 어떡하든지 성사시켜얍지요. 사돈님이 힘써주십시오.》

덕만은 기왕 거짓말을 한이상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전화는 끝났다. 덕만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돈의 의도를 처음부터 모르지 않았다. 결국 사돈은 자기 리속을 위해 중매를 나선것이다. 자기 역시 해로울것이 없기때문에 응해나선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일이 안되면 사돈의 립장이 곤란하게 될 모양인데 그러면 자기에게도 리롭지 못할것이다. 사실 이런 사정만 아니라면 혼사가 안된다고 그리 걱정할것이 없는것이다. 그리고 사돈은 이번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이달 은행에 갚을 돈을 돌려주겠다던것도 못하겠다는 위협이 섞여있었다.

그런데 채순이가 말을 들어줄것 같지 않았다. 그러면 래일모레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사돈한테 부탁할수도 없게 된다. 딱한 일이었다. 생각할수록 채순이가 패심하게 여겨졌다.

패심한것은 패심한것이고 우선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이제는 별수없이 자기 힘으로 어디 가서 변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힘으로 마련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사돈만 쳐다보고 비굴하다고 할만치 굶질거린것이 잘한 일같지 않았다.

그는 조반을 먹자 돈마련을 해보려고 집을 나섰다.

덕만은 이백만원의 돈을 빌리기 위하여 하루종일 돌아다녔다.

그런데 어느 상공인들도 월말이면 늘 돈문제로 바쁘터이라 반액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덕만은 사무소에 돌아와 나머지 백만원은 어떻게 장만할것인가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하였다. 모레까지 수형을 펴구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이제 남은 길은 오직 채순의 마음을 돌려세워

사돈한테서 방조를 받는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채순을 설득시켜야만 했다.

덕만은 사무소를 나와 둘째딸 광순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전차를 타려다가 귀찮아서 택시를 불렀다.

그는 광순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었다. 하루종일 점심도 못먹고 다녀서 배가 출출하기도 하고 또 속이 답답하여 가까이 있는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아빠트리의 이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나무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광순이네 집은 제일 안쪽구석이었다.

광순이는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가 어떻게... 어서 오세요.》하고 반겨맞았다.

《이쪽으로 왔던길에 들렀다. 채순이 있냐?》

《채순은 아까 돌아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채순이가 돌아갔다는것이 덕만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것보다 집에 가서 천천히 설득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아서였다.

넓지 않은 단칸방이지만 방안이 잘 정돈되어 그렇게 비좁은감이 나지 않았다.

갓 태어난 외손자가 쏸쏸근 자고있었다.

한켠구석에 밥상이 차려놓여있었고 그옆에는 광순이가 하던 가내부업품이 널려있어 여유있게 앉을 자리는 없었다.

광순은 재빠르게 물건들을 모두어 께짝안에 넣고 선반우에도 없었다.

《안됐어요. 어지러워서...》

광순은 방석을 내놓았다.

《일없다. 채순이가 와서 뭐라더냐?》

《뭐라겠어요. 자꾸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 채순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뭐! 내가 채순일 괴롭힌다구? 행복하게 해주자는게 괴롭히는거냐?》

광순이는 아버지한테 하고싶은 말이 있으나 아버지 말을 다 듣고 하려고 참자코 있었다.

덕만은 담배를 꺼내 붙여물고나서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고 말하였다.

《자식새끼들이 이렇게도 애비속을 태울줄은 몰랐다. 자식들이 모두 이렇다면 자식은 길러 뭘하겠니. 안먹고 안쓰면서 고이고이 길러놓으면 부모속이나 썩게 하는 자식은 길러 뭘한단말이나. 그래 무자식 상팔자란 말이 있지. 너도 너희끼리 좋아하길래 결혼시켰더니 이꼴로 살지 않니. 내가 보태주지 못하니 밤낮 네 걱정이다. 못사는 자식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너희들은 아직 몰라. 그런데 어떻게 채순일 또 네꼴로 만들겠니. 너는 지금 네가 당하는것이니 쓴맛을 알겠지. 네가 채순일 잘 타일러줘야 할게 아니

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눈물이라도 흘릴것 같이 구슬퍼져서 말했다.

광순은 머리가 회개회개한 아버지가 그러는것이 측은해보이기도 했다. 아버지 댄에는 자식들을 잘살게 해주려고 그러는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는것부터 마음에 거슬렸다.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지금의 아버지의 기분상태를 고려하여 참고있는것이다.

아버지는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말했다.

《송서방은 아직 안돌아왔나?》

《요새 신문사 일이 바쁜 모양입니다. 늘 이렇게 늦는답니다.》

《그래 저녁은 안먹고 기다리는구나.》

《예-》

시계를 보니 여덟시삼십분이였다.

《부업으로 하루 얼마나 버냐?》

《용돈밖에 안돼요.》

《그런걸 안해본 네가 얼마나 고달프겠니.》

《고달프긴... 애아버지는 그만두라고 하지만 제가 살림에 도움이 될가 해서 그러지요 뭐.》

《애국사업도 좋지만 이제 애도 낳았으니 그만하고 좀 편히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낮에는 학교일을 하고 밤에는 부업까지 하면서도 쪼들리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수 있겠니. 네 남편도 그렇지, 생활비도 몇푼 못받는 신문사 기자노릇을 하며 널 이런 고생을 시키니 답답한 일이 아니냐.》

《아버지도 참, 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 일입니까. 조국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제가 적극 뒤받침해야지요. 전 이런 생활이 조금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광순의 말이 잘 이해안되는지 약간 술기운이 도는 눈으로 뺨을 쳐다보고있었다.

광순은 아버지한테 하고싶은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저를 불행한것으로 여기시는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조금도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집세다 전기사용료다 쪼들때면서도 행복해?》

《아버진 돈때문에 일생을 고생하셨지요. 일본에까지 와서도 돈때문에 수모를 당하시며 살아오셨으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한줄 아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순은 잠시 말을 끊고 아버지를 쳐다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에게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애국

사업을 하는것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사람이 자주성을 못가지면 사람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남한테 얹매우지 않고 제생각대로 살아야 살맛이 있지 얹매워 살아서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돈만 생각하면 돈에 얹매워 살게 됩니다.

언니를 보세요. 돈많은 집에 시집을 가서 돈에 얹매우고 남편한테 매워살지 않아요. 언니가 뭐 제 주장대로 사는게 있는줄 아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일없이 남편시중이나 들어주면서 사는게 뭐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하루도 못살것같아요. 사람이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보람이 없습니다. 조국을 위해, 후대를 위해 일해야 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 고생도 고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채순이도 그것을 알기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거예요.》

광순의 말을 듣고있던 아버지는

《어쩌면 채순이와 똑같은 소릴 하느냐. 철들이 없다고 할지... 난 모르겠다.》

하고 탄식하듯 말하였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것이니 절대로 우리를 걱정거리로 생각지 마세요.》

광순의 말소리는 부드럽고 작았으나 역센 의지가 어려있었다.

《그렇다면 좋다, 너 좋을대로 살아가라.》

덕만이는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려 했다.

《아버지, 시장하시겠는데 저녁 잡주세요.》

광순이는 밥상을 아버지앞에 내놓았다.

《일없다. 난 돌아가겠다.》

《아이, 잡수실건 변변치 않지만 좀 잡숫고 있다가 애아버지도 만나보고 가세요.》

《이 다음에 또 오지.》

덕만은 자고있는 외손자를 보고 이마에 가벼이 입을 대었다. 애기만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내가 아무것도 안사왔구나.》

덕만은 지갑에서 돈을 내어 딸에게 주려는데 광순은 굳이 안받으려 했다.

덕만은 할수없이 손자가 누워있는 이불밑에 넣었다.

《아이, 아버지두 참...》

《애기웃이라도 사다주어라. 난 가겠다.》

광순은 계단밑에까지 내려오면서 말하였다.

《아버지, 채순이가 말하는 강영식이란 동무를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며칠전에 만나봤어요.》

《.....》

《참 명랑하고 팔팔한 동무예요. 우리 아버지는

완고한분이니까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자기하고 어느쪽이 완고한가 한번 겨루어보겠다고 하잖겠어요.》

광순은 웃으면서 말했다.

덕만은 쓰겁게 웃으면서 광순이와 헤어졌다.

덕만은 택시를 탈 생각도 안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돌아가고있었다.

(채순이 마음을 돌려세우기는 틀렸고...)

이렇게 생각하는 덕만은 광순이가 하던 말을 되새겨보는것이였다.

(돈많은게 행복이 아니라 보람있는 일을 하는것이 행복이라고. 뭐 남한테 얹매워살지 말고 제 주장대로 살아야 살맛이 있다고...)

덕만은 그 말이 옳은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돈이 없어야 고생이지...)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그건 그렇고... 채순이문제가 틀렸으니 수형문제는 어떡한다? 이제 어디 가서 백만원을 더 장만하겠는가?...

《고리대금이라도 얻을수밖에...》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갑자기 자전거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저 윤덕만씨 아니요?》 하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뒤를 보니 지부위원장이였다.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덕만은 그에게 다가가 악수하였다.

지부위원장은 덕만이보다 나이가 세살 우이다. 성격이 소탈하고 사람이 꾸밈없어 덕만은 그에게 친근감을 가지고있었다.

《참말로 오래간만이요. 그간 우리 모임에도 참가안하는걸 보니 장사가 아주 바쁜 모양이지요?》

위원장은 큰소리로 유쾌하게 말했다.

《바빠도 돈벌이나 되면 보람있겠는데 참 헛고생만 하고있습니다.》

《내가 댁에 찾아갈가 했는데 마침 잘 만났수다. 래일 지금의 불경기를 잘 넘기기 위한 상공인들의 회합이 있수다. 세금신고대책도 논의하구.》

《래일이요? 난 월말이여서 바빠 못참가하겠수다. 당장 해결해야 할 수형때문에 체정신이 아니우다.》

덕만은 수형문제때문에 자기가 딱한 지경에 놓여있다는것을 간단히 설명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래일 오전까지 백만원을 더 만들어야겠는데 야단났수다.》

덕만은 지부위원장에게 도움을 받자고 한 말은 아니고 하두 답답하여 또 무간한 사이라고 생각

되어 해본 말이였다.

위원장은 좀 심각히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 동포들의 기업을 우리 동포끼리 해결하자고 상공회에서 회합을 가지는겁니다.

그런데 덕만씨 일을 래일모임에서 토의해가지고는 늦겠고 어떡한다?...》

지부위원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히 말하였다.

《해결합시다. 상공회 회장한테 부탁합시다. 그는 내가 부탁하면 백만원쯤은 일시 빌려드릴겁니다. 내 오늘밤 전화를 걸어보고알려드리지요.》

덕만은 마음이 확 트이는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그럼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고맙긴, 힘써보겠수다. 우리 동포들의 회합에 자주 나오시오. 일본사람들의 웬간한 상공단체보다 힘이 있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동포들이 굳게 뭉쳐야지 조직을 떠나서 혼자 씨름해서야 힘이 들지요. 내 전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더 찾아갈데가 있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다.

덕만은 큰시름이 놓이는것 같았다.

지부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도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해결할수 있는것을 나는 왜 이때까지 사돈한테만 매달려 굶질거렸는가.

(역시 조직의 힘이 크구만...)

덕만은 기분이 저으기 좋아져서 채순이생각도 잊고 집으로 돌아왔다.

덕만이가 현관문을 여는데 녀자 울음소리가 맞아나왔다.

급히 들어가보니 만딸 미순이가 어린것을 업은 채 랑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고있는것이였다.

네살짜리 아들도 엄마결에서 울고있었다.

덕만은 무슨 일인가 마누라한테 물었다.

《령감이 만딸 시집 잘 보냈다고 밤낮 자랑하더니 이 꼴이 됐수다.》

마누라는 화풀이를 령감한테 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나?》

덕만은 우는 딸한테 물었다.

《전 전... 갈라지겠어요. 이 이상 참을수 없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나?》

덕만은 큰소리로 물었다.

《저는 참을수 없는 수치를 당했어요...》

미순은 이렇게 허두를 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내막을 말하였다.

덕만은 수형문제가 해결되어 기분이 좋아서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였다. 그는 일시에 피곤이 몰리는듯하여 결상에 몸을 기대여 눈을 감고 미순의 말을 들었다.

…몇달전부터 남편이 집에 안들어오는 날이 많아져서 알아보니 어느 술집녀자와 관계를 맺고있다는것이였다. 어제밤에도 들어오지 않아 오늘 이른아침에 그 녀자의 집으로 갔었다.

방문밖에 있는 남편의 구두를 확인하자 주인도 찾지 않고 방안에 들어가 남편을 깨우고는 울고 불고 하다가 그 집 녀자한테 덤벼들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를 밀어던지며 그 녀자편을 들더라는것이였다.

미순은 그 이상 참을수 없어 헤어질 결심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것이다.

………

덕만은 가만히 들으면서 미순에게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역시 채순이, 광순이들이 옳게 보았구나. 결국 내 생각이 잘못되었지…

돈냥이나 있는 청년은 그렇게 되기 쉽지. 녀자를 한달 놀이감으로 생각하거던… 놀이감이란 싫어지면 버리고 새것을 구하게 되는거지.)

《사위녀석은 제 처가 여기 와있는줄 알겠는데 전화도 안거누만요.》

안해가 불만스럽게 말하였다.

미순은 계속 청승맞게 울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원망하는것 같이 들리였다.

이때 《따르릉…》 하고 전화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내가 나가 받겠소.》

안해가 나가려는것을 만류하고 덕만이가 수화기를 들었다. 지부장한테서 온 전화였다. 해결됐으니 래일아침 지부사무소로 오라는것이였다.

덕만은 긴숨을 내쉬었다. 어깨가 가벼워지고 가슴이 넓어지는것 같았다. 이제는 누구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데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전화종이 또 울렸다.

《여보시오, 아 사돈이요? 나요.》

뜻밖에도 사돈령감이 건 전화였다.

높고 깔린 그의 목소리는 수화기에서 들어도 귀가 아팠다.

《예…》

《채순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소?》

덕만은 대답하지 않고 미순을 보고 물었다.

《미순아, 네가 여기 온 사정을 시아버지는 아

느냐?》

미순은 아직 모른다는 뜻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사돈령감은 더 큰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되었소? 일이 성사될것 같소?》

《그 이야긴 좀 있다가 합시다.》

《뭐요? 역시 일이 잘 안되는 모양이구만. 쫓쫓… 딸 하나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오? 난 모르겠소.》

덕만에게는 똥판지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

《당신 아들교양이나 똑똑히 하소!》

하고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마누라와 딸은 놀라운 눈으로 덕만을 보고있었다.

덕만은 오히려 기분이 상쾌하였다.

팬히 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할말도 못해왔다는걸 생각하니 우습기 짝이없었다. 오늘 무거운 짐을 활 벗어던진것 같은 기분이였다.

덕만은 아직 저녁을 안먹었다는것이 이제사 생각났다.

《여보, 맥주 한병 가져오오.》

덕만이가 응접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려 할 때였다.

발자국소리를 죽여가며 집에 들어온 채순이가 살짝 이층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채순아, 이리 와.》

채순은 깜짝 놀라는듯하더니 할수없이 들어왔다. 심각한 얼굴로 미순의 옆에 쏙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마누라도 부엌에서 걱정어린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덕만은 맥주 한고뿌를 단숨에 비어놓고는 크게 숨을 내쉬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있는 채순이를 한참 보다가 말하였다.

《내가 그 청년을 만나보겠다. 집에 데리고 와.》

채순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믿을수 없다는듯이 한참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얼굴에는 전과 같이 자애에 넘친 웃음이 어려있었다.

채순은 숨을 호하고 내쉬고나서 아버지의 팔을 잡아흔들며

《아버지, 정말이예요? 고마와요.》

하고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안해는 부엌에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맛있는 안주를 장만할수 있을가 궁리하고있었다.

고구려사신

강화래

1

7세기초엽, 고구려영양왕(26대임금)이 왕위에 올라 18년세월이 흘러간 607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을 빠져나온 공골말 두필이 북으로 뻗은 신작로를 따라 질주하고있었다.

말고삐를 량손에 틀어잡고 몸을 다소곳이 숙이고 달리는 북부대형(높은 벼슬이름) 고두루의 머리에는 새깃이 두개 달린 고깔모자가 얹혀있고 역관(통역)의 머리에는 검은 빛갈의 빨난 모자가 얹혀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잔등에 활과 활통을 지었고 옆구리에 한발이나 되는 긴 칼과 숫돌까지 차고있어 갓춤새가 여간 엄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고구려사신으로 돌궐(나라이름)로 가는 길이었다.

긴장되어오던 고구려의 정세가 양광(수양제)이 왕위에 올라앉으면서 더욱 험악해졌기때문이었다.

양견의 둘째아들로 태어난 양광은 자기가 태자로 못된것이 불만스러워 자기 형을 내쫓고 그 자리에 들어앉았다가 그것마저 성차지 않아 나중에는 제 애비까지 죽이고 605년에 왕위를 가로타고 앉은 악명높은 폭군이였으며 동방침략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놈이었다.

수양제 양광의 출현은 실제상 고구려에 더 큰 위협으로 되었다.

모든 권력을 한손아귀에 틀어친 이놈은 서역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돌궐을 치고는 천하가 다 제놈의 지배밑에 들어온듯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오만무례하게도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여 항복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영양왕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고구려는 본래 한나라와 진나라가 군현으로 만들었던 고장인데 네가 어찌 무엄하게도 지금은 신하노릇을 하지 않고 별개의 지역으로 남아 나와 맞선단말이나. 돌아가신 황제(수문제)께서도 일찌기 료수(고구려의 료하를 말함)의 너비가 장

강(양자강을 말함)과 비교하여 어떠하며 고구려 인구의 많기가 진나라(양견에 의하여 멸망한 나라)에 비하여 어떠하다고 여기는가 하고 경고한 바 있으니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네 죄를 씻고 태도를 고쳐서 나를 따르다면 그때는 곧 나의 좋은 신하로 될것ियो, 그렇지 않을 때는 네죄를 따질것인즉 속히 와서 항복하기를 바란다…

영양왕의 손에서 편지가 잠자리날개처럼 바르르 떨었다. 영양왕은 노발대발하여

《천하에 고현놈, 제 애비를 죽인 무지막지한놈이 감히 나까지 위협하려든단말이나? 뭐, 나더러 신하노릇을 하라구? 4군(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강점한 한나라가 설치한 악랑군, 진번군, 립둔군, 현토군을 말하는데 용감한 우리 선조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되찾은 땅이다.)으로 말하더라도 그제 조선땅덩이지 어찌 제놈들의 땅덩이란말이나! 여봐라, 수나라사신들에게 회답편지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리구 다시는 이따위 편지를 들고다니지 못하게 엄하게 꾸짖어서 보내여라!》 하고 추상같이 호령했다.

일이 이쯤 되었으니 힘과 힘의 대결은 불가피했고 수양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올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렇다고 큰나라앞에 고분고분 무릎을 꿇고 머리숙일 고구려가 아니었다. 수문제 양견의 100만 대군을 대릉하(강이름)와 료하 계선에서 일격에 쳐물리친 공지와 자부심을 한순간도 잊은적이 없는 영양왕이었다. 그 애비에게도 수그러들지 않은 왕이니 그 아들에게 수그러들지 않으리라라는것은 세상의 리치건만 무지막지한 수양제가 어떤 모험을 할지 알수 없는 일이다.

영양왕은 수나라와 싸울 차비를 하는 한편 돌궐에 사신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수문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혼이 난만큼 수양제가 반드시 돌궐과 연합하여 쳐들어오려 할것이므로 수나라가 손을 뻗치기전에 돌궐을 중립시켜놓자는 목적에서였다. 게다가 돌궐추장인 계민이 수양제의 위압에 놀리워 요즘에 와선 오금을 못쓴다는 말

을 들은후부터 잠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었던것이다.

영양왕은 돌궐에 누구를 보낼것인가를 두루 궁리하던 끝에 북부대형 고두루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를 불러들였다. 그것은 고두루가 일찌기 고구려의 신성을 지키는 싸움에서 직접 계민과 맞서 용맹을 떨친적이 있고 돌궐군 수백명을 사로잡아 그의 명성이 돌궐땅에까지 파다하게 퍼져있었기때문이었다.

영양왕은 고두루가 나타나 한쪽무릎을 꿇고 앉자 그에게 돌궐로 가게 된 사연을 자세히 알려주고나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대형은 계민과 아는 사이니 그를 잘 타일러 우리와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키게 하고 돌아오라. 이것도 수나라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고두루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지금까지 고구려의 신성에 함부로 쳐들어온 돌궐군의 피수 계민을 말아래 떨어뜨려놓고도 공연한 너그러움을 베풀어 그를 살려보냄으로써 고구려사람들앞에 평생을 씻어도 다 씻지 못할 죄를 지은 몸이라고 자책하고있었던것이다. 한것은 그놈이 그후에도 계속 쳐들어와 고구려 변강사람들을 못살게 굴었기때문이었다. 그런만큼 고두루는 이번 기회에 계민을 굴복시킴으로써 고구려사람들앞에 잃었던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는 앞으로 세워짚은 오른쪽 무릎우에 단정히 엎었던 두손을 가슴우에 마주잡고 머리를 쏘아렸다.

《대왕님, 소신은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전엔 살아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사오이다.》

고두루의 말을 듣고난 영양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과연 계민추장과 맞설 장수로다!》 하고 못내 기뻐하며 섬돌밑에까지 내려와 그를 바래주었다.

말을 타고 달려가는 고두루의 가슴속에는 산악도 날아넘고 넓은 강도 단숨에 뛰어넘을 용맹이 솟구쳐올랐다.

(돌궐추장 계민이 나를 모른다고야 안할테지! 가자. 수나라 사신도 올수 있다니 내가 한발 먼저 가서 계민과 만나야 한다.)

그는 저도모르게 앞코숭이가 뽀족한 반장화(버선을 신기에 반장화 우끝이 뽀족함)뒤꿈치로 말의 배허벅을 힘있게 걷어찼다.

허우대가 큰 공꿀말이 흠칫 놀라며 네굽을 걸어안고 성난 사자처럼 나는듯이 앞으로 내달렸

다.

2

밤의 어둠을 한꺼번에 몰아내기라도 하려는듯 여기저기서 꼬리를 맞물고 일어나는 닭울음소리가 국경연안의 고즈넉한 정적을 깨뜨리고있었다. 이제 한두시간이 지나면 지평선 저 한끝에서 둥근해가 이글거리며 솟아오를것이다.

초원너머 푸르스름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동녘 하늘을 이윽히 지켜보던 고두루는 사관(귀빈들이 묵어가던곳) 마당가를 거닐며 맑은 새벽공기를 한껏 들이마시고있었다.

나이는 마흔 남짓하고 키가 흰칠한 사람이였다. 얼굴이 깨끗한데다가 눈은 부리부리했고 코밑수염이 날카롭게 휘어올라 선량해보이면서도 마구 대하기 어려운 위엄이 풍기였다.

어디선가 불어지나는 산들바람에 나무잎들이 우수수 설레이자 그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대문가에 서있는 백양나무가지가 머리위에 높이 드리워있었던것이다. 고구려의 도읍 평양성을 떠날 때엔 길가에 늘어선 백양나무잎들이 푸르싱싱해보였는데 그곳으로부터 2천여리 떨어진 이곳 북방에는 가을이 와서 백양나무잎들이 누렇게 황이 들고있었다.

고두루는 감회깊은 눈길로 백양나무우듬지를 바라보고나서 빨리 길차비를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마구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구간에서는 웬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다가가보니 사관 주인 어달기였다. 그는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을 저으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그의 아래도리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벌에 나가서 마초를 베여온 모양이었다. 엿저녁부터 사신일행을 각별히 환대하며 온갖 편의를 다 도모해주는 주인이었다.

《벌써 나왔나? 자네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군!》

고두루는 마초를 한웅큼 쥐여 말한테 먹이며 다정한 어조로 말하였다.

《새벽에 떠난다시기에 길차비를 해주려구... 인젠 조반도 다 되었는데 어서 들어가 진지를 드십시오. 역관님도 방금 깨어나셨습니다.》

마초를 먹고있는 공꿀말의 넉적한 코잔등을 다 독여주며 고두루가 말하였다.

《왜 우리 말들만 먹이나, 자네 말도 먹이라구.》

고두루는 살이 피둥피둥 오른 어달기의 재빛말이 코를 불며 마초를 먹기 시작하는것을 보고서야 천천히 자리를 떴다.

마초며 여물을 배가 터지도록 먹은 말들이 투

레질을 하자 어달기는 날랜 솜씨로 안장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굴레를 바로잡는다, 배때끈을 조인다하며 극성스럽게 돌아치던 그는 말안장이 드높지 않는가 흔들어보고서야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그리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웃음을 거두었다.

자기가 돌궐로 가는 사신일행을 위해 이런 일밖에 해줄수 없는것이 못내 안타까웠던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술한 사신일행을 맞고 보내였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허전해보기는 처음이었다. 그것은 사신일행이 단출하게 구성되는데다가 갓춤새가 그닥 엄해보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사절단이라면 그 임무가 어떻든간에 큰 기발을 들고 북소리를 뚝뚝 울리며 많은 사람들이 위풍당당히 가야 할것이다. 그래야 상대국이 그 위세에 눌리워 이쪽에서 요구하는것이면 뭐나 다 들어준다고 생각해온 그였다. 나라정세가 긴장한 때에 더구나 영양왕의 명령을 받고 돌궐로 간다는 대고구려사신일행이 두사람뿐이라니 얼마나 단출한가, 아무리 북부대형의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역관

한사람을 데리고 가서 돌궐추장 계민과 맞서 어찌 국사를 론한단말인가? 뭇법도 아니한 일이었다. 그래서 어제저녁엔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사관프락에 잇달아 꾸러놓은 훈련장에 나가 그와 활쏘기대기까지 건 그였다.

훈련장에 세워놓은 다섯개의 파녁을 좌우에서 말을 타고 동시에 내달으며 활로 쏘아 누가 먼저 맞히는가 하는 경기였다. 고구려사람치고 활술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랴만 파녁 다섯개를 먼저 맞혀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말을 전속으로 몰아야 하는만큼 작은 파녁을 말우에서 맞힌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다.

이 경기에서 그는 어방없이 지고말았다. 자기가 세번째 파녁을 맞혔을 때 북부대형 고두루는 벌써 다섯번째 파녁까지 다 맞히고 돌아섰던것이다. 보통솜씨가 아니였다. 자기도 한타하는 활쏘기명수였지만 이렇게 놀라운 솜씨는 처음 보았다.

어달기는 저으기 마음을 놓았지만 이제와서 막상 손님들을 떠나보내자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근심스럽기만 하였다.

여기서 돌궐 도읍까지 가자면 온길보다 몇배더 먼길을 가야 한다. 말도 두세필 갈아타면서 가도가도 끝이 없는 넓은 초원과 고비사막도 지나야 한다. 이따금 흰 장막이 두세개씩 눈에 띄우는 허허벌판을 표적도 없이 가다가 길이라도 헛들면 무서운 고생을 할수도 있고 길이 턱없이 지체될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종단말인가?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을 더는 할수 없단말인가?

말잔등을 쓸어주며 한자리에서만 천천히 오르내리던 그의 손이 뚝 멎었다. 자기가 직접 돌궐까지 모시고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던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어찌나 기뻐던지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부랴부랴 자기가 타는 말잔등에도 안장을 얹고 마구간에서 나와 방안으로 들어갔다.

고두루는 방금 아침상을 물리고 양치질을 하려던 참이었다.

어달기는 고두루앞에 왼쪽 무릎을 꿇고 앞으로 세워짚은 오른쪽 무릎우에 두손을 포개여엎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여쭙어보았다.

《대형님, 황송한 말씀이오나 한가지 소원이 있어 들어왔사옵니다. 소인이 대형님 일행을 돌궐까지 모셔다드리고싶사온즉 함께 데리고 가주시면 이보다 큰 영광이 없을줄로 아뢰옵니다.》

고두루는 손에 든 숭늉그릇을 내려놓고 팔자수염을 쓸어올리며 물었다.

《그건 왜?》

어달기는 고개를 쳐들고 다시 말했다.

《어제 훈련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님행차가 너무 조용해뵈어서 소인이 큰기발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장서 들고갈까 하옵니다.》

고두루는 어이없는듯 껄껄 웃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어달기의 마음을 떠보았다.

《그래 자네 눈엔 내가 그리 초라해뵈나?》

어달기는 뜻밖의 물음에 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자기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 아니 그제 아니올시다. 저의 부모를 죽인 수나라 오랑캐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를 넘보는것도 통분한 일이며나 소문에 돌궐추장이 수양제를 몹시 겁낸다 하니 대형님의 행차를 다소라도 엄엄히 하고싶은 생각뿐이옵니다. 그리구 돌궐로 말하면 길이 험한 나라인데 소인이 그곳 지리를 잘 알고 돌궐 언어풍습을 잘 아니 도움이 될줄로 아뢰옵니다.》

고두루는 어달기의 진정에 가슴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못하고 생각깊은 눈길을 창밖에 던졌다.

어달기의 고향은 본시 고구려의 서쪽 국경인 룡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려라라는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무역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룡하에서 물장구를 치며 어린시절을 보내였고 말을 타고 넓은 초원을 제집 트랙처럼 누비며 젊은시절을 보내였다. 그러다가 598년 6월 수문제 양견이 100만대군을 바다와 육지로 내몰아 고구려에

쳐들어오자 어달기는 용약 전장으로 달리가 무려라성을 지키는 싸움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역량상 부득불 일시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려라성을 차지하자 수나라 침략자들은 닥치는대로 죽이고 빼앗고 불을 지르면서 성안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어달기의 집에도 맏놈이 달려들어 젊은이들은 어데 갔느냐고 울레데다가 마구간에 좋은 말들이 서있는것을 보자 마구 몰아내어 한놈이 한두필씩 끌고 달아나려 하였다.

어달기의 아버지는 죽어도 그 말들을 못내놓겠다고 막아나섰다. 그러나 그것은 닭알로 바위치기였다. 락탈자의 우두머리인듯한놈이 다잡고 칼을 쭉 뽑아들더니

《반항하는놈은 모조리 죽이라는 수문제의 명령도 모르는놈이로군!》하며 단칼에 베어넘기었다. 움안에 숨어 그 광경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달려나가며

《이 날강도놈들아, 남의 말을 빼앗아가면서 사람은 왜 죽인단말이나? 이 천벌을 받을놈들아...》

하고 소리지르다가 그 자리에 폭 꼬꾸라졌다. 놈들이 달아나면서 어머니의 여린 가슴에 활촉을 박았던것이다.

료하계선에서 식량난과 장마비로 하여 허덕이는 원주민들을 사정없이 죽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달기는 마을사람들로부터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이를 갈며 가슴을 쥐어뜯었다고 하니 세월이 흐른 오늘이라고 어찌 그의 가슴에서 복수의 피가 끓지 않으랴!

사관프락에 잇달아 훈련장을 꾸려놓고 무술을련마하는것도 그때문이라고 한다. 오가는 손님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 사관일은 집안사람들에게만 맡기고 거의 훈련장에 붙어살다싶이 하고있으니 얼마나 미더운 사람인가! 이런 어달기고보면 그런 부탁을 할만도 했다.

고두루는 천천히 눈길을 돌려 어달기의 자주빛 동정을 바라보면서 은근한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자네가 돌궐지리에 밝고 그곳 언어풍속을 잘 안다는게 사실인가?》

《네, 사실이옵니다. 소인이 아버지를 따라 여러번 돌궐에 가왔기때문에 그곳 형편을 잘 아옵니다. 가도가도 산 하나, 나무 한그루 볼수 없는 무연한 초원을 가로질러가야 하옵니다. 반쯤 남짓하게 자란 풀밭을 밟고 가노라면 간혹 양가죽을 뒤집어 만든 하얀 장막 두세개를 만날수 있는데 그게 마을이라는겁니다. 고비사막을 넘을 땐 이런것두 없습지요. 한번은 소인의 아버지도 그만

향방을 잘못 잡아 사흘씩이나 무서운 고생을 하며 헤맨적이 있사옵니다. 겨우 마을이라고 찾아 들어가니 마침 저녁참이여서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시루밥만 먹으면서 자란 소인에게는 한껏 부풀어오른 구운 떡을 칼로 썰어먹는것도 신기했지만 뽕잔에 부어마시는 말젖술은 더욱 신기해뵈질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잔에다 불까지 붙여놓고 앉았다가 마실 때면 불을 훑 불어끄고 마시는게 흡사 자기들이 대담하다는걸 뵈여주려고 일부러 그러는것 같았사옵니다. 이제 가노라면 별의별 신기한걸 다 보게 됩지요. 돌궐 도움가까이 가면 무덤앞에 큰 비석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10리길 좌우편에 막돌을 듬성듬성 늘어놓은것도 보게 되는데 그건 돌궐의 한 장수가 적의 머리를 벤 수자라나요.》

《됐네, 이젠 그만 하라구.》

자기를 꼭 데리고 가야 한다는것을 인식시키기라도 하려는듯 묻지도 않는 말까지 늘어놓는 어달기의 말을 막고나서 고두루는 싱긋이 웃으며 그의 잔등을 쳐주었다. 《그다음 말은 가면서 듣자구...》

《그게 정말입니까?》

어달기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고두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보였다. 어달기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함속에서 붉은 천을 꺼내어 안해와 함께 사신기발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일행은 세사람이었다. 활과 활통을 지고 칼을 찬 어달기가 재빛 말을 타고 앞장서 걸어가고 고두루일행이 뒤따라 가고있었다. 그들앞에는 《고구려사신》이라고 쓴 사신기발이 나뭇기고있어 한결 위풍당당해보였다.

어달기는 길모퉁이를 돌아서기 바쁘게 반장화발로 박차를 가하여 앞으로 내달았다.

고두루는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달리는 어달기를 바라보노라니 가슴이 절로 뜨거워졌다. 고구려의 존엄과 영예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며 저렇게 위풍당당히 사신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달려가고있으니 얼마나 장한가! 고두루는 2천여리길을 달려오며 저같은 사람을 한두사람만 보지 않았다. 자기가 기르던 좋은 말들을 끌고 진중에 찾아가는 사람, 자기들의 농량을 아낌없이 떼내어 성안에 실어보내는 사람,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 훈련에 여념이 없는 사람, 온 나라가 수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싸움에 별썩부터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나라의 운명과 자기를 떼여놓고 생각지 않는 저런 사람들로 하여 고구려는 그렇듯 강대한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고구려여 잘 있으라. 내 한목숨 바쳐서라도 너를 지켜 원썬들을 이기고 돌아오리라!》

고두루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몇번이고 곱씹으며 사랑하는 고국과 하직하고나서 힘있게 박차를 가하며 몸을 앞으로 숙이었다.

행길가에는 또다시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3

《고구려사신 북부대형 고두루 문안드리오.》

돌궐사람의 안내를 받아 계민의 장막에 이른 고두루는 역관과 어달기를 데리고 장막안에 들어서며 읍례를 하였다.

돌궐추장 계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구려사신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돌궐에서는 유목종족의 오랜 전통에 따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궁성에서가 아니라 장막에서 만나는것이 관례로 되어있었다. 양가죽을 여러겹으로 이어만든 흰 빛갈의 큰 장막인데 밑에는 커다란 바퀴까지 달아 끌고다니게 되어있었다.

비록 장막이라고는 하지만 그안은 여러 나라들에서 받은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꾸려져있었다. 바닥에는 알락달락한 문양을 수놓은 주단을 깔았고 정문맞은편에는 호랑이가죽을 씌운 어마어마한 룡상(왕이 앉는 의자)이 놓이고 그 좌우에는 병풍을 둘렀다. 룡상앞에는 긴 탁상 하나와 탁상을 사이두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두줄로 놓여있었다.

고두루는 이 모든것을 일별하고나서 계민이 권하는 자리에 가앉았다.

계민은 한쪽 옆구리를 터친 긴 비단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호화찬란한 모자를 썼다. 그는 룡상에 가지 않고 칼을 찬 세 신하와 함께 고구려사신일행과 마주앉았다.

궁신들이 약과며 차를 들고 들어와 탁상우에 펼쳐놓고 나간다.

이번에도 북부대형 고두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구보니 참말로 감회가 깊습니다. 신성에서 만났던 일을 추장께서도 잊지 않으셨겠지요.》

고두루는 코수염을 쫓긋거리며 신성에서 있었던 싸움을 언지시 상기시켰다.

계민은 넓은 이마에 주름살을 깊숙이 파며 왼손으로 툇 불거져나온 광대뼈를 어루만졌다. 자기의 평생에서 가장 수치스럽던 순간을 상기시켜주는 고두루의 말이 불쾌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모르쇠를 할수 없는 일이어서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돌궐추장 계민은 그때 일을 너무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고구려의 신성에 쳐들어갔을 때였다. 대오의 어중간에 서서 진고개를 넘던 계민은 좌우 수림이 우중충한데다가 큰 바위들이 묘하게 들어앉아 혹시 북병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전후좌우를 살피는데 퇴성벽력파도 같은 북소리가 울리며 청룡,백호기를 든 고구려 군사들이 일시에 내달아 그만 대오가 토막쳐지고말았다.

혼비백산한 계민은 대오를 수습할 생각도 못하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사이길로 빠져나가려는데 그쪽에서도 북병이 내닫는것이였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계민은 하는수없이 호위하는 군사들을 내몰아 포위진을 뚫게 하였다.

《적장은 신성태수 고두루의 칼을 받아라!》하는 소리가 뒤쪽에서 울려왔다. 계민은 다시 말머리를 돌려 고두루와 세우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칼과 칼이 맞부딪쳐 불과 몇번 겨루어보지 못하고 머리우에 곧추 떨어지는 칼은 피하다가 그만 말우에서 떨어지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눈한번 깜박하지 않고 먹으로 툇 찍어놓은것 같은 고두루의 팔자수염과 머리우에 쳐든 긴 칼을 번갈아 보며 목을 옆으로 내대였다. 비겁하게 죽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려오던 고두루의 칼이 공중에서 몇더니 다시 말을 타라고 하는 것이였다. 그는 말우에 올라앉기 바쁘게 호위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줄행랑을 놓아 오늘까지 목숨을 이어온것이였다. 그러고보면 고두루는 계민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파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비록 한 나라의 추장이였지만 고두루를 감히 낮게 볼념을 못내고있었다.

《영양왕께서 건강하시요?》

《우리 대왕의 안부를 물어주어 고맙소. 추장의 인사를 전하지요. 우리 대왕께서도 추장의 안부를 물으시며 친서까지 보내주셨소.》

고두루는 품속에 정히 간수해온 친서를 계민앞에 내밀었다.

계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친서를 두손으로 정중히 받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뜯었다. 영양왕의 친서를 읽으면서 그의 표정은 자주 변하였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곤하였는데 고구려 국왕의 제기가 저으기 공감되는 모양이였다.

계민이 친서를 다 읽고 봉투안에 넣고있을 때였다. 무관 하나가 급히 들어오더니 계민의 귀에 대고 뭐라 속삭이였다.

《뭐? 지금 당장?》

계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눈확이 불시에 커졌다.

무관이 나가자 그는 서둘러 영양왕의 친서를 품안에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집을 지고 왔다갔다하며 몸돌바를 몰라하는것이였다. 때론 걸음을 멈추고 고구려사신일행을 넘겨다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고 다시 서성거렸다.

(계민이 왜 갑자기 저렇게 당황해할까? 수나라에서 사신이 온게 아닐까? 수나라사신이 온다고 저렇게 당황해할 계민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고두루는 역관과 어달기를 바라보았다. 그들도 눈을 똑 부릅뜨고 바짝 각성을 높이고있는것 같았다.

계민이 당황해하며 서성거리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며칠전에 수양제 양광이 직접 돌궐로 온다는 급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고구려사신이 온다는 급보를 또 받았는데 뜻밖에도 돌궐지리에 밝은 어달기를 앞세우고 고구려사신들이 먼저 도착하는바람에 그들을 종도록 대해보내자고 한 노릇이 거의 같은 시간에 수양제가 들이닥쳐 한자리에서 두나라 사절단을 만나지 않을수 없게 되었기때문이었다. 일이 이렇게 공교롭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한 그였다. 이제는 고구려사신들에게 랑해를 구하는수밖에 없다고 여긴 계민은 고두루앞에 다가와 입을 열었다.

《딱한 사정이 생겨 그러는데 고구려사신들은 잠간 자리를 피해야 할것 같소. 저쪽 병풍뒤에 숨어주오.》

《그건 왜 갑자기...》

고두루는 의아한 표정을 짓고 물었다.

《대형일행을 위한 일이니 과히 의심 말고 얼른 피해주오. 우물거리다간 무슨 변이 날수 있소.》

계민은 사정하는것 같기도 하고 위협하는것 같기도 한 목소리로 애매하게 말하였다.

《사연을 밝히기전엔 피할수 없으니 그리 아시오.》

고두루는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강경하게 말하였다.

《대형은 내 사정도 봐줘야 하지 않겠소. 이러구서야 우리가 어찌 서로 의사소통은 하겠소. 내 그 은혜를 후히 갚겠으니 어서 피해주오.》

계민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고두루는 마음이 흔들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그마한 자존심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겠는지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아 그는 다시 역관과 어달기쪽을 바라보았다.

고두루의 눈치를 살피던 역관은 좀 당황해하고 있었으나 어달기는 꿈쩍하지 않고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도

《아무리 형세가 급하다고 어찌 남의 병풍신세를 지겠사옵니까? 그런 욕을 당할바엔 차라리 이 천한 목숨을 끊고 말겠사옵니다.》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고두루는 다소나마 마음이 흔들린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시 계민의 거동을 살폈다.

이때 장막밖에서 말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누가 수레를 타고 오는것 같았다.

계민은 말방울소리를 듣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제야 수양제가 왔다는것을 알리면서 빨리 피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장막밖으로 마중나가는것이였다. 그의 신하들도 우르르 밀려나갔다.

수양제라는 말에 고두루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알고보니 수양제가 온다고 계민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며 고구려사신일행을 병풍뒤에 숨기려한것이였다. 생각할수록 계민의 처사가 패썹했다.

수양제가 오는 이 마당에서 병풍뒤에 숨었더라면 고구려의 체면이 어찌 되었겠는가!

고두루는 숨결이 높아졌다. 쿵쿵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전에 울려오고 관자노리가 푸들푸들 뛰었다.

(차라리 잘되었다. 여기서 수양제를 직접 만나 이놈의 속심을 떠보고 그놈의 기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그리구 계민추장도 두가지 소리를 못하게 수양제와 함께 만나 꼭 눌러놓아야 한다.)

고두루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금은으로 요란하게 장식한 옷을 입고 그우에 황색도포를 걸친 수양제가 계민과 함께 장막안에 쑥 들어섰다.

《잘 있었소 계민, 나는 계민이 성심으로 나를 받들기에 친히 계민의 장막에 왔소.》

《황제께서 친히 우리 돌궐에 오셨는데 이렇게 장막에서 맞이하게 되니 환송하옵니다.》

계민은 수양제의 위엄에 놀리워 숨도 제대로 못쉬는것 같았다.

계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쓸어주며 장막안을 휘둘러보던 수양제는 고구려사신들이 눈에 띄자 낮빛이 달라졌다. 부드럽고 온화해보이는듯하던 그의 눈에 한순간 적의가 번뜩이였다.

《저건 누구냐?》

수양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태연히 앉아있는 고구려사신들을 보자 계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적의를 띤 수양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못해 그들을 소개하였다.

수양제는 계민의 말을 귀등으로 흘려들으며 서슬푸른 눈길을 룡상쪽에 돌렸다. 잠시후에야 노기를 가신 그는 제멋대로 고구려사신들과 마주

앉았다. 그옆에 수원들이 앉고 계민은 한쪽 옆구리에 밀려나 신하들과 함께 앉았다.

잠시 숨막힌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수양제의 눈길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였다. 그의 얼굴빛은 또다시 어두워지더니 호령조로 뇌까렸다.

《한날 대형의 명색으로 여기가 어딘줄 알고 함부로 나타나는가?》

고두루는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으나 체통에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사뭇 도도하고도 의젓하게 머리를 쳐들고 수양제를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허허 소리내어 호방하게 웃고나서 조용히 비양조로 나왔다.

《나는 돌궐에 온 사신이온데 그 웬 말씀이오니까.》

수양제의 불편이 일그러졌다. 고두루는 고구려의 기상이 완전한 근엄한 얼굴로 거침없이 바른 말을 했다.

《보아하니 거기서도 이 집에 온 손님같은데 손님으로 왔으면 대접이나 잘 받다가 갈 일이지 남의 제상에 배나라, 감나라 할게야 없지 않소이까.》

《이런 고현놈 봤나? 수양제도 몰라보고!》

고두루는 수양제의 입에서 고현놈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 가볍게 코웃음치며 도도하게 팔자수염을 쓸어들렸다.

《수양제를 몰라봐서 안되긴 하였지만 말을 삼가하는게 좋겠소. 남을 그렇게 낮추 대하다간 제대로 대접받기 어려울거요.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고구려사신 북부대형 고두루라는걸 잊지 말기 바라오.》

《무엇이!》

수양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뽑으려 했다. 그 모양을 보고 고두루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어이없이 웃었다.

수양제는 말할것도 없고 그를 따라온 수원들까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두루는 수양제옆에 앉은 배구란놈을 가리키며 추상같이 호령하였다.

《경은 칼을 거두게 하시오. 이 무슨 경거망동이요. 한 나라 국왕이...》

수양제의 황문시랑(벼슬이름) 배구란은 그 말에기가 질려 상전의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사태가 어지간히 험악해졌다. 수양제앞에서 조금도 숙어들지 않는 고두루의 기상에 아연해진 계민은 몸둘바를 몰라하며 제발 이러지들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수양제는 남의 장막에 와서 칼을 뽑는것이 체면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고두루의 위임에 놀리웠던지 칼을 도로 쿡 박아넣고 자리에

앉으며 뇌까렸다.

《내 여기서 고구려의 허물과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돌아가는 날로 국왕에게 말하여 일찌감치 와서 나를 찾아오도록 하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의 왕을 위하여주기를 계민에게 하는것처럼 할것ियो 만일 찾아오지 않는다면 계민을 거느리고 고구려땅에 들어갈것이다.》

자기가 돌궐에 온 목적과 고구려에 대한 침략기도를 여지없이 드러낸 말이였다. 고두루는 그 말에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해하지 않았다.

《내가 사신으로 온만큼 그 말은 전하긴 하겠소. 하지만 당신은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덤비는것 같소. 동방에서 천년가까이 한 임금이(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을 이른 말임) 세운 나라를 고스란히 받들어가는 나라는 오직 고구려뿐이요. 한족이나 돌궐족은 말할것도 없고 저 바다 건너 섬오랑캐와 서역의 크고작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덕을 입지 않은 나라가없는바요. 나라력사가 오랜 점에서나 강대성에서나 문명한 점에서 고구려를 따를 나라가 없거늘 나라를 세운지 몇해되지도 않는 당신이 땅덩이가 크고 사람이 좀 많다고 분별없이 날뛰는데 당치않은 일이요.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다가 얻어맞고 쫓겨간 수문제의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라오. 우리 고구려사람들은 빈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소.》

《뭘, 뭘라구!》

수양제는 주먹으로 탁상을 쿵! 쳤다. 경풍이라도 일어난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때 수양제옆에 앉은 황문시랑 배구가 수양제에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조상때부터 누구에게나 복종하려 하지 않기에 돌아가신 황제(수문제)께서 정복해버리려 한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양량(수문제가 쳐들어올 때 룡군을 책임지고 온놈)이 똑똑치 못하여 군사가 나갔다가 허탕을 쳤지만 폐하가 계신 이때에도 어찌 그대로 방임하여 폐하가 있던 지역으로 하여금 무법천지로 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야 할줄 아옵습니다.》

수양제는 배구의 말을 듣는동안은원손으로 턱을 싸쥐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불가죽을 굽적거리기만 하였다. 수양제의 얼굴은 금시 어두워졌다. 그의 두눈엔 살기가 서리고 입안에서는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민에게 말하였다.

《내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래일 다시 오겠으니 그리 아오!》

수양제는 고구려사신들과는 인사도 없이 유유히 장막밖으로 나가고있었다. 그의 신하들도 칼을 절걱거리며 우르르 밀려나갔다.

4

자정이 훨씬 지나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도 멎은 지 오래였고 서쪽하늘에 걸린 달도 어둡고 침침한 밤가운데 잠기려 할 때였다.

행장을 풀고 아래목에 누운 고두루와 역관은 드렁드렁 코를 끌며 깊은 잠에 빠졌지만 옷목에 누운 어달기는 이리 뒤채고 저리 뒤채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돌궐추장의 장막에서 보고 듣고 느낀 가지가지 일들이 삼삼히 떠올라 눈을 감아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또렷해지기만 하였다.

그 살벌한 속에서 얼굴색 한번 변하지 않고 수양제와 당당히 맞서 싸우던 고두루의 기상이 눈앞에 선히 안겨왔다. 동방에서 천년가까이 한 임금이 세운 나라를 고스란히 받들어가는 나라는 오직 고구려뿐이라며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녹아난 수문제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 어달기는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수양제가 장막에서 나간후 고두루는 또 얼마나 리치에 맞게 계민추장을 깨우쳐주었던가!

《남의 장막에 와서까지 주인공세를 하며 호통을 치려드니 싸움은 붙여놓은거나 다름없소. 수양제가 말끝마다 땅이 좀 크고 사람이 많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덩치가 크다고 싸움에서 이긴다는 법이야 없지 않소. 싸움은 해봐야 하니까. 돌궐추장, 그렇지 않소? 내 소견에 추장은 함부로 군사를 움직일것이 아니라 싸움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이기는쪽에 붙어도 늦지 않을것 같소. 어느쪽이 이길지 모르면서 공연히 덤비다가 큰코 다치지 말고!》

어디서 그런 배짱과 기개가 나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럴수록 어달기는 고두루를 더 잘 지켜주고싶은 생각을 한순간도 지울수 없었다. 천정을 들었다놓는것 같은 고두루의 코소리만 들어도 힘이 솟는 어달기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어달기는 개미 한마리 얼씬하지 않던 문밖에서 가랑잎을 밟는것 같은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다. 온 신경을 귀에 모았으나 아무런 인적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수 없었다. 수양제며 배구놈이 살기를 떠고 고두루를 노리던 눈길이 다시금 눈앞에 어른거렸다. 돌궐과 손을 잡고 고구려에 쳐들어오려고 악을 쓰는 놈들이니 무슨 공궁이를 할지 알수 없는 일이었다.

어달기는 벽에 걸어놓은 칼만이라도 담요밑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문이 살며시 열리었다. 어달기는 머리끝이 쭈뼛이 일어섰다. 그는 자리에 누운채 숨을 죽이고 바깥동정을 살폈다. 이윽고 문간에 비수를 든

사나이가 나타났다.

그놈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달기는 비호갈이 일어나며 자객의 배허벅을 힘껏 걷어찼다.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을 든 사나이가 철석하고 문지방우에 나가넘어졌다. 돌궐 옷차림을 한 자객이었다.

어달기는 그놈의 칼을 빼앗아 옆구리에 쿡 박아놓았다.

고두루와 역관이 달려나와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다.

《대형님을 해치려고 들어오기에 소인이 칼질을 좀 했사옵니다.》

어달기는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칼을 뽑으려했다.

《이사람, 칼을 뽑지 말라구. 칼을 뽑으면 피가 나오니까. 내쫓 문초해봐야겠네.》

어달기는 칼을 박은채 그놈의 팔을 뒤로 비틀어 묶어가지고 방안으로 끌고들어왔다. 불빛에 보니 수양제와 함께 온놈이었다.

고두루는 짙이는것이 있어 그놈을 문초하기 시작하였다.

《너 이놈, 누가 보내서 왔느냐. 실토헌테냐, 안할테냐? 어서 말해봐라!》

고두루의 기상은 자못 엄엄했다.

자객은 땀을 바질바질 흘리며 죽는 시늉을 했다.

《실토 안할테냐? 실토 안하면 당장 죽여버리고 말테다.》

자객은 자기가 죽을 죄로 잘못했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그래 누가 보내서 왔느냐?》

《황문시랑 배구가 보내서 왔소.》

《그런데 왜 돌궐 옷차림을 하고 왔느냐?》

《... ..》

《어서 말을 못할고?》

《네네. 말을 합지요. 잡히거나 죽는 경우에 그 죄를 돌궐에 묻게 하려구...》

그 말을 듣자 고두루는 이를 갈았다. 돌궐을 틀어쥐기 위해 못하는것이 없는 비렬한놈들이라고 생각하니 솟구치는 분노를 참을길이 없었다.

《그래 지금 수양제와 배구놈은 어디 있느냐?》

《.....》

《왜 대답이 없느냐? 엉?》

고두루는 불이 이는 눈으로 자객을 쏘아보았다. 자객은 기겁을 하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며 실토정을 했다.

《지금쯤 아마 계민의 장막에 가있을거요.》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한 자객의 말에 의하면 온밤 잠을 못이루던 수양제가 고구려사신들을 애기전엔 계민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면서 황문시랑 배구에게 자객을 보낼 계책을 꾸며냈고 배구가 자기를 자객으로 보내면서 고구려사신들을 처단한 다음 계민의 장막으로 뒤따라 오라고 했다는것이였다. 고두루는 그놈을 통하여 수양제가 온 목적을 더 똑똑히 알게 되였다.

어느새 동녘하늘이 환히 밝아왔다.

고구려사신일행은 공꿀말과 재밋말을 갈라타고

계민의 장막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갔다. 장막 앞에 와당자 고두루는 쾅쾅 뭉은 자객을 한쪽 옆구리에 낀채 말우에서 뛰어내렸다.

《무슨 일이요?》

《돌궐군사는 왜 잡아가지고 오는지요?》

장막을 지켜섰던 파수병들이 막아나섰다.

《돌궐군사가 아니라 수나라 자객이요. 수양제에게 죄를 묻겠으니 길을 비키오!》

고두루가 위엄있게 웨치자 파수병들이 감히 막아설념을 못했다.

고두루는 장막안에 들어서자 자객을 주단우에 내던지며 버락치듯 호령했다.

《배구, 이놈! 네가 보낸 이 자객을 푹푹히 보아라! 네 죄로 말하면 이 자리에서 찢어죽여도 씨원치 않지만 계민추장의 얼굴을 봐서 용서하는줄 알아라!》

고두루의 눈에서는 증오의 물결이 이글거렸다.

《이게 어찌 된거냐?》

수양제는 금시초문이라는듯 배구놈을 돌아보며 물었다. 배구놈은 머리를 떨어뜨린채 아무 대답도 못하고있었다.

《그렇게 시치미를 따지 않는게 좋겠소, 국왕두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거요.》

고두루는 계민을 돌아보며 다시 불같은 말을 토했다.

《돌궐추장은 푹푹히 기억해두는게 좋겠소. 왕의 명령을 받들고 온 고구려사신들을 죽이고 돌궐군 10만을 얻어가려구 자객까지 보낸 비렬한들이 추장앞에 서있소. 저 자객의 옷차림을 보시오. 잡히거나 죽게 되면 그 죄를 돌궐에 묻게 하구, 우리와 돌궐 사이에 썩기를 박으려는 흉계까지 꾸며서 보냈다고 저놈이 제임으로 실했소. 돌궐추장은 그래도 이런 배신자들과 손을 잡겠소?》

계민은 뒤집을 지고 장막안을 오락가락하였다.

저으기 불쾌한 모양이었다.

수양제는 거무튀튀한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며 자객앞으로 다가가 뺨살을 틀어잡더니

《더러운 변절자! 이놈을 당장 풀어내가지 못할가!》하고 탁 밀쳐버렸다. 그것은 내다가 목을 치라는 명령이었다.

《황제 폐하! 이게 어찌된 일이오니까! 황제께서...》

자객은 벌벌 떨며 몸부림을 쳤다. 배구놈이 허둥지둥 달려와 자객의 입을 틀어막으며 장막밖으로 끌고나갔다. 수양제는 배구놈의 뒤를 따라 나가려다가 걸음을 멈추고 계민을 돌아보며 물었다.

《계민, 그래 어떻게 할 작정이요.》

계민은 머리를 번쩍 추켜들었다. 남의 장막에 와서 못하는것이 없는 수양제에게 날카로운 눈길을 던지며 엄숙히 선언했다.

《나는 이 싸움에 끼여들고싶지 않으니 황제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오.》

《좋다, 어디 두고보자! 내 나라를 통일한 100만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너부터 버릇을 가르치지 않나 어디 두고보아라!》

수양제는 악이 반친듯 이 두마디 말을 남기고 총총히 장막밖으로 사라졌다.

수레를 타고 멀어져가는 수나라 사절단일행을 바라보며 계민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수양제를 노엽혀보냈으니 일시 이놈이 복수하려들것이므로 수양제의 100만대군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하는것이 우려되는 모양이었다.

고두루는 계민의 약한 마음을 다잡아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곁에 다가서면서 입을 열었다.

《계민추장, 조금도 겁낼게 없소. 그놈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고구려가 가만 있지 않을거요.》

계민은 그제야 긴장을 풀며 고두루앞에서 두손을 마주잡고 머리우에 쳐들며 사의를 표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나는 수양제가 온다고 대형의 그 높은 기개를 몰라보고 병풍뒤에 숨기려 했으니 불났이 없소.》

《공연한 말씀을! 오히려 내가 부끄럽소. 자칫하면 나도 마음이 흔들릴뻔했으니!》

《어쨌든 고맙소. 영양왕께서 대형같은 훌륭한 사신을 보내어 나에게 추장답게 사는 법도를 가르쳐주어 나는 금시 태어난것처럼 기쁘오. 내 영양왕께 후히 사례하겠습니다.》

《추장의 감사를 우리 대왕께 전하지요.》

계민은 자못 흡족한듯 웃음띤 얼굴로 다시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수양제를 호랑이로 알았는데 오늘보니 진짜 호랑인 대형이더군! 그렇게 살벌한속에서 수양제와 당당히 맞설수 있는 그런 담이 어디서 나오우?》

고두루는 허리에 찬 칼과 숫돌을 한옆으로 밀면서 되물었다.

《돌궐추장은 그제 짐작이 안가시우?》

《글쎄 뭐라고 할지... 나는 대형이 문무를 겸비하고있는데다가 남다른 기질을 타고난것만 같아서...》

《아니지요. 내가 남다른 기질을 타고났거나 문무를 겸비해서가 아니지요.》

고두루는 잠시 말을 끊고 계민은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의혹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고두루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기 생각을 터놓았다.

《그건 바로 우리 고구려가 강대하기때문이요.》

이렇게 입을 연 그의 눈앞에는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 영양왕의 모습이

며 수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용감한 고구려사람들, 고구려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수나라 자객을 일격에 요정내버린 강직한 어달기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려

확신에 찬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남한테 억눌려 사는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고구려사람들이 떠밀어주지 않았다면 나같은게 무슨 큰 존재겠소.》

계민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었다. 깨달음이 컸던것이다.

이때 계민의 신하가 달려와서 주연이 다 마련되었다는것을 아뢰었다.

계민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초대하였다.

그들은 궁성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겨 걷는 그들앞에서는 《고구려사신》이라고 쓴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어달기가 누구보다 기뻐하며 보무당당히 걸어가고있었다.

가을바람을 안고 세차게 나뭇기는 그 기발을 감회깊은 눈길로 바라보는 고두루의 가슴은 고구

려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들은 어느새 궁성앞에 다달았다.

고구려사신 북부대형 고두루는 역관과 어달기와 나란히 궁성안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갔다.

종래의 모든 관례를 벗어나 고구려사신을 최대의 국민으로 맞이하여 궁성안에서는 북소리며 징소리, 뿔나팔소리가 장중하게,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노을 피는 바다가에서

김영근

몽금의 포구에
저녁노을 불타니
이때라, 정다운 바다가에서
포구의 아이들 그림을 그리누나

하늘가득 바다가득
노을이 타니
그림은 온통
붉은색, 붉은빛

돌아오는 배들도
붉은 기발 휘날리고
춤을 추는 갈매기도
붉은 노을에 비껴 날개 저어라

아이들아, 소꿉놀이 그 시절
해당화꽃송이로 《꽃배》를 띄우며
갈매기 쫓아 뛰놀던 모래불에는
너희들의 작은 발자국이 찍혔더니

오늘은 자라서
고향의 아름다움 다 안았구나
바다로 열린 마을의 창문도 학교의 창문도
너희들을 위해 활짝 열렸구나

노을이 타는 하늘도
너희들의것
붉게 물든 바다도
너희들의것

아름답다
노을 비낀 포구의 저녁하늘
아름답다
너희들 그리는 한쪽의 그림

아버지들 기쁨도 노을속에 어려있고
너희들의 희망도 노을속에 어려있어
더욱더 아름다운
몽금포의 저녁노을

노을처럼 피어나는 꿈을 안고
그림을 그리는 포구의 아이들아
너희들 없이야
몽금의 포구에 아름다움 있으라

아, 노을 타는 하늘과
아름다운 저 바다
그림을 그리는 너희들의 모습이
수령님 꽃피주신 아름다운 조국의 화폭이여라!

우리 시대 가정론리의 생동한 화폭

-중편소설 《강물은 한 굽으로》에 대하여-

박영래

지금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혁신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차넘치고있는 일대 혁명적 양양의 시기에 놓여있다.

우리 작가들앞에는 오늘의 이 벅찬 현실과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높은 사상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제사상과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이론을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보람찬 투쟁속에서 우리의 소설문학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에 본보기로 되는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들을 훌륭히 그려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독자들의 사랑속에 널리 읽혀지고있는 중편소설 《강물은 한 굽으로》(주유훈작)도 바로 그런 작품들중의 하나이다.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중편소설 《강물은 한 굽으로》는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낡은 사상은 가정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사회와 가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한 충성의 한 마음으로 일색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문제를 사상주체적과제로 하고있다.

작품이 제기한 사회정치적문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서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매우 의의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야 하며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나아가 하겠습니까.》

소설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오늘의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절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내세우고 가정혁명화문제를 옮겨 형상화함으로써 혁명화의 본보기를 창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사상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현하였다.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새롭게

탐구하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는 소설은 그 어떤 진기한 사실이나 《생활》을 추구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기계공장의 한 기술자가정을 무대로 하고 그 누구나 잘 알고있는 가정생활을 취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들의 형상은 생활의 참된 진리와 새로운 의미를 깨우쳐주고 지울수 없는 인상과 깊은 사색의 여운을 남겨준다.

이것은 작품이 제기하고있는 사회정치적문제의 심각성과 그를 통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시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이며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가장 높이 발양됨으로써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위대한 변혁이 일어나고있는 전환의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는 사랑, 가정, 행복과 리상에 대한 견해에서도 주체적인 관점이 확립되고 가풍에서도 혁명적기풍과 새 룰리가 지배하고있다.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가기 위하여 순간을 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살고 충성의 한길에서 영생하는 혁명가의 참된 삶을 누리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사업도 하고 사랑도 맺으며 가정도 꾸려가고있는것이다.

마땅히 우리 문학은 이처럼 고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를 활짝 펼쳐 보여줄수 있는 사회정치적문제성을 내세우고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할것이다.

이것은 우리 문학앞에 나서고있는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다.

바로 여기에 중편소설 《강물은 한 굽으로》가 제기한 기본문제의 가치가 있으며 이 작품의 새로운점이 있는것이다.

소설의 중심에는 타빈설계기사 김연희가 서있다.

연희는 공장에서는 기사이고 가정에서는 안해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며느리이다.

그는 《자기를 양보하면서도 자기를 지킬줄 알

고... 자기를 지키면서도 양보》 할줄 알며 사랑하는 남편의 일이 잘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여성이다.

그의 시집인 허필순일가는 《꽤 까다롭다고도 할수 있는 가정적인 질서》가 수립되어있는 집이었다.

몇년동안의 대학기숙사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자라온 가정에서 몸에 배인 생활습성들을 버릴줄도 알고 새로운 생활환경들에 인차 익숙해지기도 한 연희였지만 허필순일가의 낡은 가풍에 어울리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연희의 결혼생활은 무리없이 아니 행복하게 흘러갔다.

그랬던 이 가정에 단조, 주물을 비롯한 소재준비직장로동자들의 힘든 손로동을 덜어줄수 있는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을 놓고 취하는 리창민의 보수주의적태도에서 스쳐버릴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연희가 발견하게 된 때로부터 보이지 않는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것이다.

공장사람들앞에서는 기계손과 대형마치를 기술개건안에 넣어 하자고 하고 가정에 들어와 안해앞에서는 《유압식기계손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남편을 보았을 때 연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쩌면 그럴수 있단말인가. 이해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조용히 의견을 말하니 남편은 안해의 생활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있지만 안해는 남편의 일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다는 태도이다.

녀성이며 안해이기때문에.

시어머니인 허필순도 간부들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편의 일에 녀자가 《간섭》을 하며 부부간의 금줄을 녀자가 먼저 긋는가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연희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연희는 가정질서에서 다른것은 이력저력 맞춰나갈수 있으나 가정의 《화목》이라는 명목밑에 그릇된것까지도 용납하며 건전치 못한 가풍에 용해될수는 없었다.

이것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어나가야 할 우리 시대 녀성들의 태도가 아니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평범한 생활속에서 사람들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구태여 제기하지 않는다. 공기처럼 익숙한것이 가정이기때문이다. 가정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과오를 범하고 자책에 빠진 때에 조차 가정은 위로와 고무를 주어 용기를 잃지 않게 한다.

그러나 때로 가정은 사람들에게 사상적인 퇴보를 가져올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을 그저 아늑한 보금자리로만 생각하는것이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품이 자기를 용납하고 무럭대고 용서하고 어루만져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는 어차피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리기주의 울타리를 가지는것이며 가정은 낡은 사상의 마지막 은신처로 되는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연희는 머리를 흔들었다.

연희의 가슴속에서는 우리의 가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이끄시는 주체조국의 한세포라는 투철한 신념이 자꾸만 머리를 쳐든다.

그 신념은 연희에게 《가정이라는 세포에서도 끊임없는 대사과정이 진행되어 부단히 낡은 사상의 찌꺼기를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자면 가정과 사회사이에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가정적인 분위기속에 자기를 숨기지 말아야하며 가정이 낡은 사상의 안식처로 되지 말아야한다.》고 말해주는것이다.

때문에 연희는 남편이 사회와 가정의 제동기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도와나서게 된다.

소설은 가정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의 폭을 더욱 넓혀가고있으며 철학적깊이를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가정에서도 모든 문제를 당의 유일사상선에서 고찰하고 사고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낡은 사상경향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때만이 참말로 한가정은 진정한 혁명가의 행복한 집단으로 될수 있다는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은 사회성원들의 생활의 거점이며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우월함이 제일 잘 눈에 띄우게 되는 기층단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혁명화하는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소설의 주인공 김연희기사의 갈등대상인물은 그의 남편이며 공장기술부기사장인 리창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일하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물단조직장에 아직 손로동이 많이 남아있다고 심려하시며 기술혁신을 하여 로동자들의 힘든 로동을 덜어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공장안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속에서는 수많은 기술혁신안이 제기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다.

특히 주물단조직장에서 손로동을 없앨수 있는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관철에서 매우 의의있는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것은 아니였다. 새것을 창조하는 일인것만큼 실패가 없을수 없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못한 리창민은 동요하게 되며 결국 중도반단하게

된다.

리창민은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이 중도반단된 것을 마치도 공장의 실정과 기술이 약한 탓으로 여기면서 자기 머리에 쓴 녹을 벗기려 하지 않는다.

기술부기사장의 체면때문에 사람들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기계손과 대형마치제작을 계속 추진시키자고 말을 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가정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로동계급의 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소리를 하는것이다.

이러한 사상적병집은 대형마치모루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물품을 붓게 위해 10톤토에서 15톤의 쇠물을 뽑기로 했을 때 더욱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리창민의 낡은 사고방식은 누이동생인 영단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있다.

리창민의 녀성에 대한 관점은 집에서 아이나 키우면서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해주면 된다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이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그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서 로동과 집단생활속에서 단련시킬데 대한 요구와는 어긋나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옳지 못한 사상관점은 사회에서 보다 주로 가정에서 많이 나타나며 특히 안해인 연희앞에서 아무 꺼리낌없이 표현된다.

연희가 리창민의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을 용납하려 하지 않는데로부터 《단란하고 화목하게》만 느껴지던 허필순일가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것이다.

그러나 연희를 비롯한 긍정적인물들의 혁명적 작용에 의하여 기술신비주의, 보신주의, 남존녀비사상에 물젖었던 리창민도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옳은 신념이 없이 허영에 들떴던 영단이기도 그리고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가풍이 몸에 폭배인 허필순이도 사회와 가정은 하나의 숨결로 고동쳐야 한다는 신념과 새 룰리로 교양되고 혁명화된다.

작품에서는 가정혁명화문제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방법으로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내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과정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소설은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가정을 혁명화하는데로부터 시작하여 분조와 작업반, 인민반을 혁명화하고 나아가서 직장과 리를 혁명화하여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깊이 인식시켜주며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혁명화를 시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실한 현실적요구를 반영한것인가를 심오히 밝히었다.

소설에서는 또한 중요하게 우리 사회에서 부부간의 사랑, 가정의 참다운 행복이란 무엇이며 가정룰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녀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의 뒤바라지나 하며 남편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것으로 치부되어왔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도덕이였고 가정룰리였다.

식민지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인신적예속과 사회적불평등이 지배하던 착취사회에서 생겨난 이러한 표상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머리속에 굳어져온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사랑, 가정에 대한 전혀 새롭고 가장 고상한 혁명적룰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더욱 아름답게 승화되어 꽃피고있다.

소설에서 옳게 형성된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에서도 단순한 부부관계에 의한것이 아니라 혁명동지들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있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곳으로》의 주인공 연희와 그의 남편 리창민과의 관계는 혁명투쟁속에서 맺어지고 투쟁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사랑과 가정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형적형상이다.

연희가 자신만이 알수 있는 남편의 사소한 결함까지도 스치지 않고 안타까이 비판하게 되는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가까운 혁명동지이기때문인것이다.

이러한 연희의 사랑과 가정에 대한 관점은 작품에서 자기의 동생 용팔이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옥절이에게 하는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표현되고있다.

《...혁명동지라는데는 남자들이 습관되지 못할수있어. 그러나 옥절이, 모욕을 두려워하지 마. 자존심때문에 물러서서는 안돼. 동지라면말이다. 동지관계에서는 쓸데없는 체면이나 자존심은 필요없어. 오직 성실하게만 대하면 돼. 내가 무슨 옥절이를 혼책하는건 아니야. 생활에서 내가 느낀것이기때문에 하는 말이지.》

바로 이러한 연희이기에 대형마치와 기계손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그것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쇠물을 뽑는 문제가 나섰을 때도 보신의 울타리에서 맴도는 남편에게 것처럼 진정에 넘친 비판을 할수있은것이다.

이와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가정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혁명적으로 살며 사랑하며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옳은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작품은 자기 가정을 혁명화하고야말려는 확고한 결심을 품고 모태기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밝히면서 생활적으로 예리하게 개방해

주는 그러한 묘사를 통하여 연희의 정신사상적 높이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연희는 그 누구보다도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바라는 녀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인정이나 부부관계, 가정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맹목적인 화목이나 인정적인 사랑관계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된 삶과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의하여 결합된 혁명적인 사랑으로, 화목으로 되어야 하는것이다.

만일 부부간의 맹목적인 사랑, 의리로 하여 혁명의 원칙, 생활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벌써 가정의 참된 행복을 위한것으로는 되지 못하는것이였다.

이런 신념을 가졌기에 연희는 피로움을 이겨가며 낡은 사상에 오염되어있던 남편과 시누이를 교양개조하며 그들이 의거하고있던 낡은 사상의 마지막 《은신처》인 가정의 가풍까지도 새로운 룰리로 혁신시키는것이다.

이렇듯 소설은 연희의 형상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잘못을 진정으로 성실하게 깨우쳐주며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할 때 그것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피로울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정의 모든 성원들이 다같이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성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 과정에서 가정의 모든 성원들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동지들과 집단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그럴 때에야말로 한가정은 진정으로 사회와 경계가 없이 충성의 한마음으로 숨쉬고 맥박치는 참말로 행복만 우리 시대의 참다운 가정으로 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밝혀주고있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곳으로》는 사상주제적내용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는 심각한 문제성을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그 심각한 문제성을 예술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생활의 룰리에 맞게 인간과 그의 생활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담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주인공들의 실생활을 생동하게 깊이있게 그리는 문제는 사실주의적문예작품의 사상예술적감흥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생활을 풍부하고 진실하게 그린 작품이라야 실감이 있고 흥미가

있으며 교양적가치도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인간학인 문학에서 생활을 그린다는것은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곳으로》는 연희를 비롯한 긍정적주인공들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전형들로 실감있게 그리고있다.

연희에게 있어서 공장 기술부기사장 리창민은 사랑하는 남편이며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이다.

한때는 남이였고 학창시절에는 상급생이었던 리창민과 갓 결혼하였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서 생활과정에 용납해서는 안될 결함을 발견하였을 때 연희의 심리적고통은 그 누구보다 큰것이였다.

남편과 안해 사이에는 이른바 부부간만이 아는 《가정비밀》도 있을수 있으나 우리 사회에 제동기로 되는 결함을, 그것이 비록 자신밖에 모르는것이라 할지라도 옹호하고 묵과할수는 도저히 없는것이였다.

그것은 언제나 가슴속에 가정의 오늘과 래일의 행복도 아이들의 먼 미래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지대로 숨쉬고 살며 일련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이 맥박치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녀성으로서 안해로서 며느리로서 그 신념을 곳곳이 지켜가자니 가슴저린 고뇌와 번민은 너무나 아팠다.

심각한 심리적고충속에서도 연희가 혁명의 원칙을 지켜 티없이 맑은 마음으로 피로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작품은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긍정적인것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서 긍정의 적극적인 영향하에 부정이 극복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들과 자신을 대비하며 돌이켜보게 하고 커다란 사상적자극을 받도록 하고있다.

작품에 얹혀진 인간관계도 또한 생활적으로 맺어졌다.

연희와 그의 남편 리창민, 시어머니 허필순과 시누이 영단이, 허필순일가를 중심으로 연희의 친정인 김두섭일가와 영단의 시집인 송성녀일가.

연희를 중심으로 얹혀진 세 가정은 각기 사회의 세포로서 독자성을 띠고있지만 사둔관계로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들중 어느 한 가정의 한사람이라도 시대의 전진운동에 뒤떨어진 락오자가 있다면 결코 행복할수 없을것이였다.

따라서 김두섭은 사둔집인 허필순일가에서 벌어지고있는 일에 무관심할수 없고 시집간 영단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도 가슴아픈 말을 서슴없이 하게되는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사돈관계로서만이 아니라 동지적관계로 승화됨으로써 것처럼 실감있게 우리 사회에 지배되고있는 참다운 인간관계를 펼쳐주고있는것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단순히 가까운 사람에 대한 애착심이 아니라 혁명의식에 의하여 안받침된 고귀한 감정이다.

김두섭이 자기 사위인 리창민에게 충고하는 장면과 연희가 압력조절본체때문에 수력발전소에 가는 이야기, 용해장휴계실장면들은 모두 이 고귀한 감정의 실제적발현이며 남편과 사위라는인정적인 감정보다 동지라는 그들의 사색이 얼마나 깊은가하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안해이기때문에 남편의 일에 대하여 옳던 옳던 묵묵히 따르기만을 바라는 리창민과 허필순일가의 가풍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존엄을 지킬뿐아니라 혁명동지인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때문에 남모르는 시름을 안고 모대기는 연희의 번민에 대한 묘사는 얼마나 생활적인가.

이와 같이 작품은 오늘 우리 사회에 흘러넘치는 참다운 인간관계를 실감있게 밝히고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을 원칙적으로 벌리면서도 어디까지나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구현하고있다.

김두섭의 리창민에 대한 태도, 연희의 리창민과 영단, 용팔에 대한 태도, 리창민과 영단, 용팔과 허필순의 개조과정은 우리 사회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목적에 맞게 옹계 그려졌다.

그러므로 연희와 김두섭이 리창민을 준절히 비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참된 인간성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특히 연희와 리창민과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관계만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려는 하나의 신념과 지향으로 련결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동지적관계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소설은 생활을 풍부하게 찾고 진실하게 묘사하였기때문에 작품에 펼쳐진 화폭은 이처럼

생동하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가정윤리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 혁명적기풍을 깊이 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곳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낡은 사상과의 투쟁의 목적에 맞게 작품의 양상을 옹계 잡음으로써 독특한 인상을 남기고있다.

작품은 한가정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혁명화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취급한것만큼 그 내용이 심각한 극적관계속에서 밝혀지고있다.

이것은 심각성에만 치우쳐 자칫하면 그들의 생활을 어두운 정서적색갈로 그릴수 있는 전제를 주고있다.

그러나 작품은 생활의 본색그대로 밝고 명랑한 색채로 일관되어있으며 주인공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감정과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로부터 흘러나오는 약동적인 정서가 넘치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양상적특징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려는 창작적의도로 부터 현실을 당정책적안목으로 보고 그것을 생활의 본색 그대로 그려낸데 있다.

작품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가정혁명화문제를 취급하는 작품의 구성이 심각한 극적갈등관계를 추구하면서도 양상에서는 어디까지나 밝은 정서가 넘쳐나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시사해주고있다.

이밖에도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그린것을 비롯하여 엮음새와 구성조직도 비교적 짜이고 여러 형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사상예술적품위를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하였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곳으로》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주체문학건설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